익투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합니다.

초대교회 순교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Christianus sum

익투스

역자서문

본 저서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들이다. 이 순교 기록들은 역사적 진정성이 있는 기록들이며, 초대교회 순교자들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재판과정에 대한 보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은 후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더해지고 과장되거나 수정이 된 순교 전설, 순교 사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본 저서를 위해 Th. Ruinart, *Acta martyrum*, Regensburg 1859., O. von Gebhardt, *Acta martyrum selecta. Ausgewählte Märtyrerakten und andere Urkunden aus der Verfolgungszeit der christlichen Kirche*, Berlin 1902., G. Krüger, *Ausgewählte Aärtyrerakten*, Tübingen 1965 등의 책을 참조하였으며, 순교 시대 순서에 따라, 그리스어, 희랍어로 된 원문에서 직접 선별하여 번역하였다. 또한 번역을 하는 가운데 개신교 정통 신앙의 입장과 다소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역주의 내용으로 보충하여 설명하였다.

순교 기록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순교자들에 대한 심문과 판결 과정을 법정 속기사들이 기록해 놓은 관청의 공식 기록이며, 또 한 가지는 순교자들의 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기독교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관청의 공식 문서들을 입수하여 그것에 자신들의 서론과 결론 혹은 더 첨가해야 할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문서의 형식상으로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판 기록 자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그 사건을 지켜보았던 증인들이 다른 교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부류의 문서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진실성에 대해서

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문서도 그 편지가 눈으로 본 증인들의 기록이라는 점과 보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생한 기록으로 인해 그 역사적 진정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부류의 문서들을 '재판 기록'이라 번역하였고, 두 번째 부류의 문서들을 '순교'라고만 번역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순교 기록들은 처음부터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순교 기록을 교회의 거룩한 문서들 중의 하나로 여겼으며, 예배 의식에서 낭독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순교자들의 신앙 발자취를 따르고 믿음에 굳건히 서라는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수난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보고, 이를 낭독하는 것을 예배 의식을 구성하고 담당하는 말씀 사역의 한 부분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순교 기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특징을 지적한다면 다양함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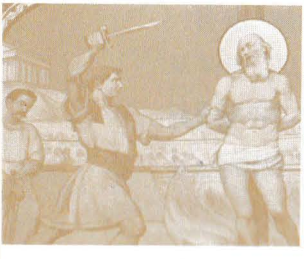
본문의 순교 기록은 심포로사와 일곱 아들이 순교한 120년 즈음부터 이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찾은 이후인 372년에 이르는 200년 이상의 광범위한 시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순교가 일어난 장소 역시 다양하다. 로마 제국 전역과 기독교가 정복해 가는 모든 지역에 주님을 위해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순교자의 연령과 계층에서도 남자와 여자, 소년 · 소녀와 구십이 넘은 노인, 귀족과 자유인과 노예, 학자와 농부와 상인과 군인, 감독과 장로 같은 성직자에서부터 세례 준비자와 순교의 현장에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든 종류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대답한 말은 한결같았다.

간결하고 분명한 한 문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Christianus sum)."였다.

김영희

2010년 2월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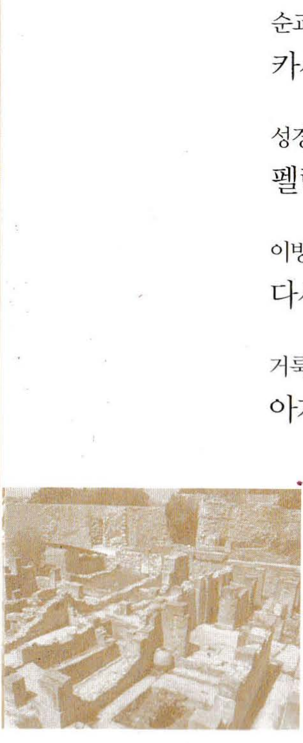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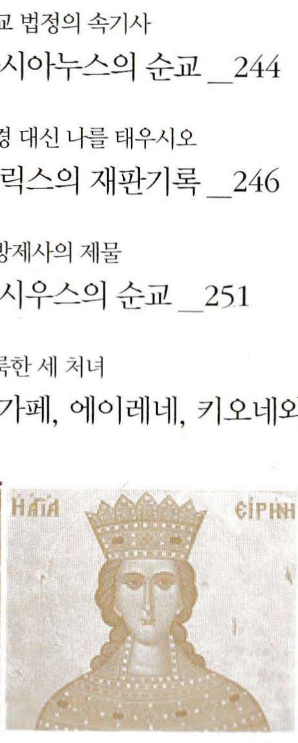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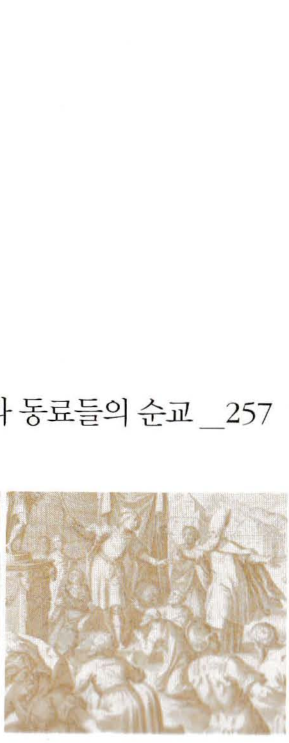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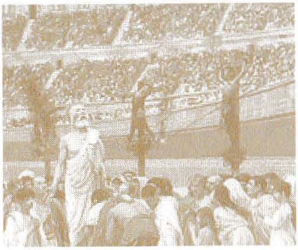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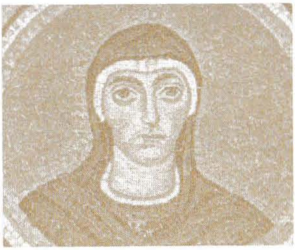










Η ΑΓΙΑ
ΕΙΡΗΝΗ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 11:36~38

1

심포로사와 그의 일곱 아들의 순교

1

1.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궁전을 건축한 후 그 궁전을 혐오스러운 제사의식과 함께 우상들에게 봉헌하고자 했다.[1] 그가 우상들과 그 우상들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신탁을 청하자 그들이 대답하였다.[2]
2. "과부 심포로사가 일곱 아들과 함께 매일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일곱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다면 네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을 약속하겠다."[3]

---

1) 하드리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117~138년)의 초기에 해당하는 약 120년경으로 추정된다.
2) 참고. Eusebius, vita constantini, ii. 50.
3) 지극히 미신적이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속죄의식과 함께 궁전을 신들에게 봉헌하고자 하자, 제사장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심포로사가 제사를 드리거나 심포로사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는 한 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황제로 하여금 심포로사에게 압력을 가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자 하드리아누스는 그녀를 아들들과 함께 체포하라고 명령하였으며 그들이 경건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 동의하도록 부드러운 말로 권하였다. 그러자 경건한 심포로사가 황제에게 대답하였다.

4. "나의 남편 게툴리우스Getulius는 형(혹은 동생) 아만티우스Amantius와 함께 폐하의 호민관을 지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형과 아우가 각기 다른 형벌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 동의하지 않고, 마치 훌륭한 경기자와 같이 죽음으로써 당신의 신들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을 베이는 것을 선택하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한 그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이 지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시적인 불명예를 얻게 해 주었지만 천사들 가운데서는 영원한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천사들 가운데서 거닐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난의 면류관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늘에서 영원한 왕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2

1.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경건한 심포로사에게 말했다. "네 아들들과 함께 전능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이 네 아들들과 함께 제물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심포로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나의 아들들과 함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이런 좋은 일(순교)이 어디로부터 나에게 오게 될까요?"

2.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말했다. "내가 너를 나의 신들에게 제물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심포로사가 대답하였다. "폐하의 신들은 나를 제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불태워진다면 도리어 나는 당신의 신들을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3.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말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라. 나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참혹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든지 하라." 심포로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죽음의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인 나의 남편 게툴리우스와 함께 안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4. 그러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그녀를 헤라클레스 신전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거기서 먼저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매달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어떤 말, 어떤 협박으로도 그녀를 선한 결심에서 돌이키지 못하자 그녀의 목에 큰 돌을 매달아서 강물 속에 빠뜨리라고 명령하였다. 티버Tibur[4] 시장이던 그녀의 오빠(혹은 남동생) 유게니우스Eugenius가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 도시 근교에 매장하였다.



심포로사와 일곱 아들

4) 지금의 Tivoli. 로마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라티움의 옛 도시로 로마 황제들의 여름 휴양지가 있었던 곳.

3

1. 그 다음 어느 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그녀의 일곱 아들을 모두 한꺼번에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협박과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는 것을 보자 헤라클레스 신전 주변에 말뚝 일곱 개를 박고 그들을 말뚝에 묶으라고 명령하였다.

2. 그리고 첫째인 크레스켄스Crescens의 목을 찌르고, 둘째 율리아누스Julianus는 가슴을, 셋째 네메시우스Nemesius는 심장을, 넷째 프리미티부스Primitivus는 배를, 다섯째 유스티누스Justinus는 등을 앞으로 한 후에 등을 검으로 찌르게 하였으며, 여섯째 스트락테우스Stracteus는 옆구리를, 일곱째 유게니우스Eugenius는 머리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가르라고 명령하였다.

4

1. 그 다음날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헤라클레스 신전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한꺼번에 모아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제사장들이 그 장소를 "일곱 비오타나투스에게Ad septem Biothanatos"[5]라고 명명하였다. 이 일 후 일 년 반 동안은 박해가 잠잠하였으며, 그동안 모든 순교자들의 거룩한 시신은 예우를 갖추어 수습되었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무덤에 정성껏 매장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

5) 비오타나투스(Biothanatus)는 '난폭하게 살해된 자'란 뜻임.

2.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교자들, 경건한 심포로사와 그의 일곱 아들 크레스켄스, 율리아누스, 네메시우스, 프리미티부스, 유스티누스, 스트락테우스의 순교는 7월 18일이다. 그들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가운데 도시로부터 8마일[6] 떨어진 티버로路에 안식하고 있다.[7] 주 예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6) 1마일은 약 1.5km.

7) 그곳에는 지금 "일곱 형제를 위하여"라는 이름의 고대 교회의 잔재가 남아 있다.

2

폴리캅의 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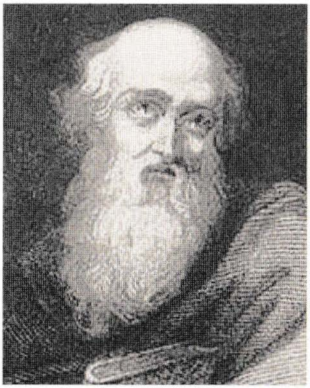
스미르나[8]의 교회가 필리멜리움[9]의 교회와 모든 지역의 거룩한 공회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

1. 형제들이여, 우리는 순교자들, 특히 폴리캅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자신의 순교를 통하여 봉인을 하듯 박해의 마지막이 오게 하였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든 거의 모든 사건들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자신의 순교의 과정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8)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Izmir)를 말함. 성경 지명은 서머나.
9) 프리기아 지방의 남동쪽에 있는 도시.

2. 폴리캅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체포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10]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11]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참되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폴리캅

2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순교만이 복되고 진정한 순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며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누가 순교자들의 용기와 인내, 주님께 대한 사랑에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채찍에 맞아서 동맥과 정맥, 몸의 내부 조직이 환히 보일 정도로 찢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감하게 그 고통을 견디어 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구경꾼들도 그들을 향해 동정의 눈물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그들의 용기는 거의 초인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한마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된 순교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 육체를 떠나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 자

10) 그 당시 교회에서는 관청에 자발적으로 출두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밝히는 일을 금하고 있었다.
11) 참고. 빌 2:4.

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3.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대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체형 집행인들의 뜨거운 불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원하며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보화, 즉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12] 그 하늘의 보화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맹수들에게 보내지는 형을 받은 사람들도 혹독한 고문을 견뎌 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조개껍질 위에서 뒹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체형 집행인들이 고안해 낸 가지각색의 고문을 모두 견뎌 내야 했습니다. 사탄은 가능한 한 그들을 배교자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괴롭힐 새로운 고문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해 냈습니다.

3

1. 사탄은 그들을 상대로 참으로 많은 것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고귀한 가문 출신인 게르마니쿠스는 용기있게 고문을 견디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약해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맹수들을 상대로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총독이 젊은 나이를 생각해 보라며 그를 설득하자 그는 일부러 맹수들을 자극하

12) 참고. 고전 2:9, 사 64:3, 65:16.

여 자신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 불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2. 이로 인해 모든 관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적인 용기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폴리캅을 잡아오라!"

4

최근에 프리기아 지방에서 온 퀸투스Quintus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관청에 출두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맹수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많은 말로 그를 회유하여 그로 하여금 맹세하고 제물을 드리게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발적으로 순교하려는 자들을 우리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같이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13]

5

1. 참으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폴리캅은 처음 박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으며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에게 피신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미르나에서 멀지 않은 작은 영지로 피신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가까운 몇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늘 하던 대로 모든 사람과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2. 그는 체포되기 사흘 전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베개가 불에 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그는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산 채로 화형을 당할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3) 참고. 마 10:23.

6

1. 그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는 사이에 그는 다른 영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던 자들이 곧 그의 행방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두 명의 어린 노예 소년들을 체포했고 고문을 통해 그 중 한 명에게서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2. 더 이상 그는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배반한 자들[14]이 그와 같은 집에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15]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안관—이 이름이 얼마나 그에게 잘 어울리는지!—이 서둘러 폴리캅을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폴리캅은 자신의 거룩한 운명인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게 된 반면, 그를 넘겨 준 자들은 유다와 같은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7

1. 그를 수색하는 자들이 금요일 점심 식사 시간쯤에 출발하였습니다. 노예 소년과 기병대가 그들과 함께했으며 평소대로 무장을 하고 '강도를 잡는 것같이'[16]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저녁 늦게 그곳에 도착하여 이층 조그만 방에서 쉬고 있는 폴리캅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장소로 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17]

2. 폴리캅은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계단을 내려가 그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찾던 자들은 그의 고령의 나이와 침착한 태

---

14) 폴리캅을 넘겨준 자들을 복수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다른 한 명의 노예도 자백을 한 것 같다.

15) 참고. 마 10:36.

16) 참고. 마 26:55.

17) 참고. 행 21:14, 마 6:10.

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든 노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중무장을 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폴리캅은 곧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시간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 그들이 허락하자 그는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는 두 시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경건한 노인을 잡으려고 무장을 하고 온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8

1. 마침내 그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그가 만난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 유명한 자들과 이름 없는 자들, 온 세상의 교회 전체를 기억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그들은 그를 나귀에 태워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2. 치안관 헤롯과 그의 아버지 니케테스가 그를 마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자기들이 탄 마차로 옮겨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황제를 주라고 말하고 제물을 드리며 그에 따른 의식을 행하여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인가?"라고 말하며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 폴리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자 폴리캅은 "나는 당신들의 충고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 그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그들은 거친 말로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차에서 급하게 내리게 하는 바람에 폴리캅은 내리면서 정강이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경기장 안으로 끌려가자 큰 소요가 일어나 한 마디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9

1.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폴리캅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18] "용기를 내라, 폴리캅, 그리고 씩씩하라." 아무도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나 그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리캅이 재판관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또다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2. 폴리캅이 앞으로 나오자 총독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폴리캅인가?" 폴리캅이 이를 시인하자 그는 폴리캅에게 신앙을 부인하도록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하시오." 그리고는 늘 하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시오." "마음을 바꾸시오." "신자들을 없애라고 말하시오." 폴리캅은 그의 엄숙한 얼굴을 경기장의 관람석에 자리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돌려 불경건한 이교도 무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정중하게 손을 흔든 뒤 탄식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무신론자들을 없애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3. 총독이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 주겠소.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여든여섯 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10

1. 총독이 계속해서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라고 강요하자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리라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거나 내가 누구인지 모른 체하고 있다면 분명히 들으십시

---

18) 참고. 요 12:28.

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면 하루 날을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총독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군중에게 말해 보시오." 폴리캅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충분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 군중에게는 기독교를 변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

1. 총독이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맹수들이 있소.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맹수의 먹이로 던져 버릴 것이오."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맹수들을 오게 하십시오. 그러나 더 좋은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한 것에서 의로운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총독이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맹수들이 당신에게 겁을 주지 못하고 당신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신을 불에 던져 버릴 것이오."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한 시간 동안 타다가 곧 꺼져 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 다가올 심판의 불,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12

1. 폴리캅은 그 외에도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용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충만한 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말에 그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음을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총독은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총독은 전령을

경기장 가운데로 보내어 "폴리캅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였다"라는 말을 세 번 공포하게 하였습니다.

2. 전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미르나에 사는 이교도와 유대인 전체가 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큰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의 교사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다! 우리의 신들을 무시하는 자이다! 우리의 신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말고, 우리의 신들을 더 이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아시아 지역의 대사제 필립푸스에게[19] "폴리캅에게 사자를 풀어 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사제는 맹수를 풀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러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로 "폴리캅을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폴리캅에게 계시되었던 베개에 관한 환상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자기의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보았고 깨어난 뒤 함께 있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나는 산 채로 화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었습니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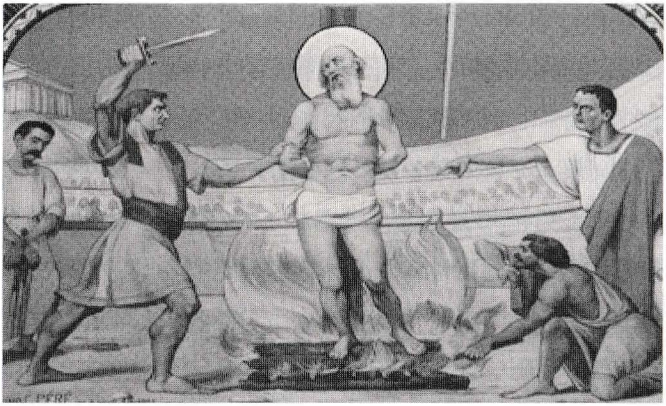
1. 이 일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군중은 작업장과 목욕탕에서 나무와 잔가지들을 모아 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도왔습니다.

2. 장작더미가 준비되자 폴리캅은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을 벗으려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20]을 그가 스스로 할 필요

---

19) 필립푸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통치하던 149~153년 아시아 지역의 대사제였다. 대사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기와 축제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20)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신을 벗는 것은 성찬식을 준비하는 예식에 속하는 일이었다.


폴리캅의 순교

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자들이 저마다 그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느라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혹시 그런 기회를 통하여 제일 먼저 폴리캅의 몸을 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순교 전에도 그의 거룩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3. 곧 장작더미를 태우기 위해 준비된 도구들이 그의 주위에 쌓였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그를 나무 기둥에 못 박으려 하자 폴리캅이 말했습니다. "나를 그냥 이대로 놔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께서 당신들이 나를 못으로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오."

14

1. 그래서 그들은 폴리캅을 못 박지 않고 팔만 단단히 묶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흠 없는 번제물로 큰 양 떼 가운데서 선택된 아름다운 숫양과 같이 그는 손이 단단히 묶인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의로운 족속들의 하나님이시여,

2. 당신을 찬미합니다. 제가 이날 이 시간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순교자의 수數에 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하고 이루신 대로 오늘 저를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살진 희생 제물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여,

3. 모든 것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영원하시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성자와 성령과 당신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15

1. 그의 아멘 소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서 기도가 끝나자 불을 맡은 사람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때 일어난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적을 보도록 허락받았으며 우리를 통하여 그 내용이 보존된 것입니다.

2. 불꽃이 둥근 천장을 가진 방의 형상을 만들어 내며 타올랐습니다. 그런 후 마치 바람을 가득 받은 배의 돛처럼 불룩해져서 순교자의 몸을 사방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는 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타지 않았으며 오븐 속의 빵처럼, 용광로 속에서 정련되고 있는 금과 은처럼 그는 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향기로운 유향이나 값비싼 향료에서 나는 냄새와 같았습니다.

16

1. 마침내 이교도들은 폴리캅의 몸을 불로 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콤퀙토르[21]라고 불리는 사형 집행인에게 그를 단검으로 찌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명령을 이행하자 그 상처에서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와 타오르던 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군중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택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놀라운 차이에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2. 위대한 폴리캅도 선택받은 이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사도적 스승이었으며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스미르나 정통 신앙 교회[22]의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1. 시기와 중상모략을 하며 의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인 사탄은 어릴 때부터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하게 살아온 폴리캅의 위대한 순교를 보았습니다. 그는 영원불멸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으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우리가 그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하고 그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2. 사탄은 헤롯의 아버지이자 알케의 형제인 니케테스를 부추겨 폴리캅의 시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총독에게 간청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

21) 이 사형 집행인의 원래 임무는 경기장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검투사나 동물을 죽이는 것이었다.

22) 여기서 사용된 정통 신앙교회(ἡ καθολικὴ ἐκκλησία)는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지 않고, 이단적 교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몬타누스주의 교회와의 차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이를 떠나 이 사람을 숭배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부추기고 굳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타다 남은 장작더미 속에서 폴리캅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며,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그분 외에 결코 다른 사람을 숭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이자 주님을 본받는 자들로 여기며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요 스승이신 그분께 변함없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들의 일에 참여하며 그들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

1. 한 백부장이 악의에 찬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알아차리고 폴리캅의 시신을 장작더미 한가운데 놓고 그들의 관습에 따라 화장을 하였습니다.
2.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늦게라도 그의 유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석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합한 장소에 묻었습니다.
3. 환희와 기쁨 속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그곳에 자주 모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가 순교한 날을 하나의 생일로 기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전투에 승리한 자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순교할 모든 사람들이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19

1. 이것이 폴리캅에 관한 우리의 보고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순교자들을 함께 계산하면 그는 스미르나의 열두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어디에서나 그의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순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순교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 모두는 그의 순교를 본받으려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2. 그는 불의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인내로 이겼으며 불멸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환희에 가득 찬 그는 이제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의인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자 우리 몸의 인도자이시며 전 세계 교회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20

1.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적어 우리의 형제 마르키온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 편지를 읽은 후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도 자신의 종들 가운데서 얼마를 그런 명예를 얻도록 선택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2. 그분의 종,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분께 영광과 영예와 권세와 위엄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고 있는 나 유아레스토스와 나의 온 가족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1

폴리캅은 크산티쿠스 달의 둘째 날,[23] 2월 23일 안식일 오후 2시경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트랄레스의 필립푸스가 대사제이고, 스타티우스 콰드라투스가 총독이었던 해,[24]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가운데, 헤롯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영예와 위엄과 영원한 보좌가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2

1.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폴리캅이 증언한 것처럼 선택받은 성도들의 구원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폴리캅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2. 이 기록은 이레네우스와 같은 곳에 살았던 가이우스가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네우스의 작품으로부터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 소크라테스는 고린도에서 가이우스의 필사본으로부터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은혜가 모든 이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3. 그리고 나 피오니우스는[25] 이전에 기록된 필사본에서 이것을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나는 이 필사본을 폴리캅의 계시에 따

---

23) 크산티쿠스 달은 2월 22일에 시작된다.

24)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치하에서 집정관을 지냈던 스타티우스 콰드라투스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폴리캅의 사망 연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순교록 21장의 연대기적 보고에 근거하여 155~156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25) 피오니우스(Pseudo-Pionius). 4세기 중엽의 인물로, 오늘날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폴리캅의 생애」의 저자이다.

라 발견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나도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길 바라며,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소실되었던 기록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3

카르푸스, 파필루스, 아가토니케의 재판기록

1. 총독이 페르가몬(성경 지명은 버가모)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인 복된 카르푸스와 파필루스가 그의 법정에 소환되었다.

2. 총독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후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3. 카르푸스가 대답했다.

"내가 제일로 여기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세상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면 카르푸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총독이 말했다.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을 경배해야 한다는 고귀하신 황제의 명령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가서 제사를 드리라."

5. 카르푸스가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

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6.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귀신들의 거짓 형상에게 절대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제사하는 자는 그들과 같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7. 참된 신을 경배하는 자들은 우리 주 하나님의 권면하심에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26] 그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닮아가며 그와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로고스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귀의 허무함을 닮아가며 그와 함께 지옥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8.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한 것에 대한 정당한 형벌입니다. 시기심에 가득 차 악의를 가지고 인간을 타락으로 유혹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독님, 내가 그들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9. 그러자 총독은 진노하며 말했다.

"신들에게 제사하고, 어리석은 짓을 멈춰라!"

10. 카르푸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멸망할지어다!"

11. 총독이 말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그것이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12. 카르푸스가 말했다.

"산 자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

26) 참고. 요 4:23.

13. 총독이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14. 카르푸스가 말했다.
"정말 대답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신들은 결코 살아 있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15. 진실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마땅히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사의식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흩어져 버리는 땅의 먼지일 뿐입니다.

16.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시되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 버립니다.

17. 그들이 종종 지혜로운 신탁 같은 도움을 주거나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서 일찍이 추락한 사탄은 그 안에 내재한 본질적인 악의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의 원수인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그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고 그것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신탁으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18. 모든 인류보다 앞서 난 자인 사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로부터 미래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자기 스스로가 행할 악한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다음부터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인간을 시험하고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페르가몬(버가모)

20. 내 말을 믿으십시오, 총독 각하. 당신은 지금 엄청난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21. 총독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쓸데없는 말을 쉴 새 없이 지껄이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신들과 자비하신 황제까지도 모욕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네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제사를 드리겠느냐?"

22. 카르푸스가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23. 그러자 총독이 그를 고문대에 달아매고 쇠갈고리로 고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카르푸스가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살은 계속해서 찢겨져 나갔고 그에게는 말 한마디 할 기운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24. 그러자 총독은 카르푸스를 끌고 나가게 하고 파필루스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혹시 귀족인가?"

25. 파필루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보통 시민입니다."

26. 총독이 말했다.

"어느 지역 시민인가?"

27. 파필루스가 대답했다.

"튀아티라Thyatira[27] 시민입니다."

28. 총독이 말했다.

"자녀가 있는가?"

29. 파필루스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30. 그때 옆에 둘러서 있던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큰소리로 외쳤다.

"그가 자녀가 많다고 말한 것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적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31. 총독이 말했다.

"무슨 이유로 자녀가 많다는 거짓말을 하였느냐?"

32. 파필루스가 대답했다.

"나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 모든 도시에 있습니다."

33. 총독이 말했다.

"제사를 드리겠느냐?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34. 파필루스가 대답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나는 한 번도 우상들에게 제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제게 다른 말을 들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선하고 귀한 고백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35. 그는 곧 고문대에 매달리게 되었고 쇠갈고리로 고문을 받아 살이 찢겨 나갔다. 그를 고문하기 위해 고문하는 자들이 세 번이나 교대를 해야 했

---

27) 성경은 두아디라로 부르고 있다. 참고. 계 2:18.

다. 그러나 그는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는 참으로 용감한 경기자와 같이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담담히 감당했다.

36. 이들의 초인적인 인내를 지켜 본 총독은 그들을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은 가능한 한 속히 이 세상을 작별하고 싶어하는 듯한 발걸음으로 원형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37. 먼저 파필루스가 나무기둥에 못 박혀 높이 세워졌다. 그런 다음 불이 붙여졌다. 파필루스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38.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카르푸스를 나무기둥에 못 박았다. 그러자 카르푸스는 미소를 지었다. 주위에 서 있던 군중이 놀라서 물었다.

"당신이 웃는 의미가 무엇인가?"

39. 복된 사람 카르푸스가 대답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들로부터 해방되며 당신들의 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나는 기쁩니다."

40. 한 병사가 나뭇가지들을 쌓아올리고 불을 지폈다. 카르푸스는 매달려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한 어머니 하와에게서 태어났으며 같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마지막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견디어 냅시다."

41. 이 말이 끝난 후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기도하였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죄인인 나로 하여금 이 같은 당신의 운명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카르푸스는 숨을 거두었다.

42. 가까운 곳에 아가토니케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아가토니케 또한 카르푸스가 보았다고 말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곧 큰소리로 말했다.

"하늘의 잔치가 나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 영광스러운 식탁의 음식을 꼭 먹고야 말 것입니다."

43. 군중이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라!"

44. 그러나 복된 아가토니케는 말했다.

"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만물을 돌보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깐 그의 곁에 있을 뿐입니다."

곧 그녀는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는 환희에 가득 찬 가운데 나무기둥에 못 박혔다.

45. 그것을 보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소리쳤다.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란 말인가! 이 법은 참으로 불의하도다!"

46. 그녀는 나무기둥에 높이 달려 있었다. 이미 뜨거운 불꽃이 그녀에게 넘실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 번 소리 높여 외쳤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피하였나이다."

47.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으며, 다른 거룩한 자들과 같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밀리에 그녀의 유골을 수거하여 정성스럽게 보존하였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증인 된 순교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께만 합당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지금 그리고 항상,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4

프톨레마이우스[28]와 루키우스의 순교[29]

1.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전에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방탕한 여자였습니다.

2.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게 된 날부터 정숙한 생활을 하였으며 남편도 변화하여 자기와 같이 정숙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음란하고 불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불의 심판에 대해 말해 주어 그를 건전한 생활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그러나 남편은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서 부부 사이

28) 165년 10월 19일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프톨레마이우스와 루키우스의 순교'라고 불리는 이 순교 기록은 순교자 저스틴(Justinus)의 두번째 변증(Apol. 2. 2)에서 발췌되었다. 이 순교 기록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저스틴이 황제들을 향해 그의 변증을 기록한 것이며, 법적으로 공증된 사례만이 그 내용으로 첨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4. 그러자 그 여인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고 의로움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 결국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러나 그녀의 친지들이 그녀에게 '남편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며 이혼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권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6. 그러던 중 그녀의 남편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더 추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부부로서 그 남자와 한 식탁, 한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 남편에게 로마식 이혼증서를 보내고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7. 사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변화로 인해 기뻐해야 했습니다. 전에는 자기 집의 노예들이나 남창들과 자유롭게 즐기며 술에 취하는 등 각종 부도덕한 쾌락에 빠져 있던 아내가 그런 일들을 끊고 남편도 그런 타락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녀를 관청에 고발하고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이혼해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8. 그러자 그 여인은 황제인 당신에게 진정서를 올리고 먼저 그녀의 집안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부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후에 그녀가 고발당한 내용, 즉 종교 문제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기를 청원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요청한 내용을 허락하였습니다.

9. 일이 이렇게 되자 당분간 그녀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게 된 그녀의 전 남편은 다른 희생 제물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의 아내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던 교사였으며, 그 당시 다른 문제로 로마 지사인 우르비키우스에게 소환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남편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자신의 희생양으로 삼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프톨레마이오스를 체포하러 간 백부장은 그 남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백부장에게 그를 체포한 후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11. 프톨레마이오스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거짓이나 속임수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그는 체포되어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2. 마침내 프톨레마이오스가 우르비키우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단 한 가지 질문만이 그에게 던져졌습니다.

13.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온갖 유익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교의 덕을 가르치는 교사임을 또다시 고백하였습니다.

14. 신앙을 부인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이미 그 신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신앙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

니다. 그 중의 어느 하나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15. 우르비키우스가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이 불의한 판결을 보고 있던 루키우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우르비키우스에게 말했습니다.

16.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간음을 하거나 음란한 일을 한 적도 없으며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 혹은 도둑질을 한 적도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적도 없으며 그의 불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르비키우스, 당신의 판결은 황제 피우스Pius와 황제의 철학자 아들[30]과 거룩한 원로원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17. 그러나 우르비키우스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루키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인지 나에게 밝혀라."

18. 루키우스가 "예"라고 대답하자 우르비키우스는 그도 사형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9. 그러자 루키우스가 그에게 고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 세상의 폭군들로부터 해방시켜 하늘에 계신 왕이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30) 경건한 황제라 불리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아들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를 말한다. 그는 이미 이때 황제의 정치를 돕고 있었다.

5

저스틴[31]과 그 동료들의 재판기록

거룩한 순교자들 저스틴, 카리톤, 카리토, 유엘피스투스, 히에락스, 파이온, 리베리아누스의 순교

1

1. 불의한 황제들이 통치하던 때에 우상 숭배의 명령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제국의 모든 도시와 지역에 반포되었다. 그 명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받았다.
2. 위에 이름이 적힌 거룩한 자들은 체포되어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 앞으로 끌려 나왔다.

2

1. 그들이 재판정에 서자, 지사 루스티쿠스가 저스틴에게 말했다.

---

3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였던 165년경 로마에서 여섯 명의 제자들과 함께 순교하였다. 유세비우스는 저스틴이 체포된 것이 그와 공개적인 토론을 벌였던 크레스켄스(Crescens)의 계략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내가 가장 먼저 할 말은 이것이다. 신들에게 순종하고 황제에게 복종하라."

2. 저스틴이 말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당신은 어떤 학문을 하고 있는가?"
저스틴이 대답했다.
"나는 모든 철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가르침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짓을 가르치는 철학 교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4.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철학은 당신 마음에 드는가?"
저스틴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도대체 어떤 신념을 말하는가?"

5. 저스틴이 대답했다.
"우리의 신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태초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과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선포자요 복된 진리의 교사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6. 그리고 나는 단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신

성을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의 예언적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 속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바로 이분이 인간 세상에 임재하실 것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

1.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모이고 있는가?"

저스틴이 대답했다.

"누구라도 올 수 있고 오고 싶어 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모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항상 같은 장소에서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며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충성된 자들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2.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모이며 제자들을 어느 장소에 모으는지 자백하라!"

3. 저스틴이 말했다.

"나는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두 번째로 로마에 온 이후 항상 한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티모테우스 목욕탕 위층에 있는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모임 장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와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4.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저스틴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4

1.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카리톤에게 말했다.

"카리톤, 당신도 그리스도인인가?"

카리톤이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2.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카리토에게 말했다.

"그러면, 카리토,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카리토가 대답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유엘피스투스에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가, 유엘피스투스?"

황제 가문의 노예인 유엘피스투스가 말했다.

"나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자유를 얻었으며, 그분의 은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소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히에락스에게 말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인가?"

히에락스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그리스도



저스틴

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경배하고 있습니다."

5.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여기에 있는 저스틴이 당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히에락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6. 그 옆에 서 있던 파이온이 말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느냐?"

파이온이 대답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물려받았습니다."

7. 유엘피스투스가 덧붙여 말했다.

"기쁜 마음으로 저스틴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당신의 부모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유엘피스투스가 대답했다.

"갑바도기아에 살고 있습니다."

8. 루스티쿠스가 히에락스를 향해 말했다.

"당신의 부모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히에락스가 대답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세상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프리기아의 이코니움에서 강제로 이곳 로마에 끌려 왔습니다."

9.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리베리아누스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당신도 그리스도인인가? 신을 경외하지 않는가?"

리베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나도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5

1. 로마 지사가 다시 저스틴을 향하여 말했다.

"잘 들어라, 참된 학문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지혜자여! 당신은 매를 맞고 목이 잘린다면 곧장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2. 저스틴이 대답했다.

"참을성 있게 이 고난을 인내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3.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신의 상상일 뿐이다."

저스틴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나는 그 진리로 충만해 있습니다."

4.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안건은 시급하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제 모두들 나와서 한마음으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저스틴이 대답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5.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말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6. 저스틴이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구원 받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할 것이며 온 세상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7. 다른 순교자들도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8. 로마 지사 루스티쿠스가 최종 판결을 내리며 말했다.

"신들에게 제사드리기를 거부하고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들을 매질하고 사형장으로 끌고 갈 것을 명한다. 법률에 따라 이들을 참수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6

1. 거룩한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나아갔다. 거기서 그들은 참수를 당하고 구주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가운데 순교를 완성하였다.

2. 몇몇 성도들이 비밀리에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적합한 장소에 매장하였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리옹 사람들의 순교

리옹과 비엔나 교회가 아시아와 프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1

1. 갈리아는 앞에서 언급한 격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경기장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갈리아의 수도는 그 지역의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훌륭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리옹과 비엔나입니다. 그 두 도시를 통과하는 론 강은 거센 물살로 갈리아 전 지역을 두루 지나 흐르고 있습니다.

2. 그곳에 있는 교회의 명망 있는 자들이 순교자들에 관한 편지를 아시아와 프리기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들은 그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3. "갈리아의 비엔나와 리옹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구속에 대해 우리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아시아와 프리기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4. 그런 다음 얼마간의 서론을 덧붙인 뒤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이곳에서 있었으며, 거룩한 자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으며, 순교자들이 어떤 고난을 참아내야 했는지 우리는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5. 원수는 온갖 힘을 다해 우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에 있을 무시무시한 그의 출현을 우리에게 예고했습니다.[32] 그는 자기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모든 짓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집과 목욕탕,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결국 어느 곳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투에 개입하여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우리 진영에 든든한 기둥을[33]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연한 인내로 악한 자의 온갖 공격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온갖 종류의 모욕과[34] 가혹한 행위를 참아내며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35]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7. 먼저 그들은 흥분하여 모여든 군중에게서 쏟아지는 모든 공격을 고귀한 모습으로 견디어 냈습니다. 군중은 그들을 욕하고 때렸습니다. 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옥에

---

32) 세상의 마지막 날에 사탄이 그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등장할 것을 의미한다.
33) 참고. 딤전 3:15.
34) 참고. 히 10:33.
35) 롬 8:18.

가두었습니다. 폭도로 변한 군중은 개인적 또는 정치적 원수에게 가할 만한 온갖 가혹한 행위를 그들에게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8. 마침내 그들은 광장으로 끌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 백성이 지켜 보는 가운데 군 사령관과 시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심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굽히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자 그들은 총독이 도착할 때까지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9. 그 후에 다시 총독에게 심문을 받았으며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룰 때 항상 그러하였듯 매우 가혹하게 그들을 다루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베티우스 에파가투스Vettius Epagathus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실은 거의 완전하여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이 든 사가랴에게[36] 한 칭송이 그에게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즉 그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저함 없이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티우스 에파가투스는 우리에게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그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분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청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경한 일이나 악한 행위가[37]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형제들을 변호했습니다.

10. 그러나 재판관석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매우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

36)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를 의미한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눅 1:6)라고 말하고 있다.

37)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의식 중에 영아 살해나 음란 행위와 같은 심각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으며,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죄악에 대해 자백하도록 강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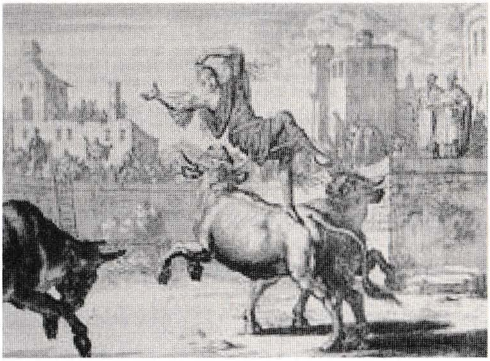
다. 총독도 그의 정당한 요청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 "당신도 그리스도인인가?"만을 질문하였습니다. 베티우스는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티우스 자신도 순교자들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변호인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보혜사, 사가랴의 성령[38]이 계셨으며 그는 그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39] 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40]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11. 그때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순교의 준비가 된 것이 분명했으며,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격렬한 전투를 견뎌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약 열 명의 배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배교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체포되지 않고 온갖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순교자들을 돌보고 있던 형제들에게도 용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12. 그 당시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신앙을 고백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무서운 고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에 대한 두려움, 즉 더 많은 사람이 배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

38) 참고. 눅 1:67.
39) 참고. 요 15:13, 살전 2:8.
40) 계 14: 4.


리옹 사람들의 순교

13. 중요한 인물들이 체포되는 일이 매일 일어났으며 그들로 인해 고백자들의 수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쪽 교회의[41] 기둥이 되는 형제들이 모두 체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14.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속한 몇 명의 이교도 노예들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총독이 우리들을 모조리 수색하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교활한 계략에 넘어갔거나 고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거나 혹은 군인들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티에스테스Thyestes의 만찬과 오이디푸스의 죄악과[42] 그 밖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범죄들을[43] 저질렀다며 우리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맹세컨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

41) 리옹과 비엔나 지역의 교회를 말한다.

42) 그리스 전설에서 나온 개념이다. 미케네의 왕이었던 아트레우스(Atreus)는 형제인 티에스테스(Thyestes)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것의 요리를 티에스테스에게 대접하였다. 오이디푸스는 어린 아이였을 때 버려졌지만 구조되고 폴리보스의 양자로 양육된다. 자기의 친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테베의 왕이 되었으며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초기에는 기독교의 예배 의식이 이방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이방인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나쁜 소문이 무성하였다. 기독교인들이 예배 의식에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오해가 있기도 했고, 예배 의식 마지막에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어두운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43) 참고. 엡 5:3.

15. 그들이 이런 거짓 고발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하여 강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우리와 친척 관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 대하여 격분하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는[44]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6. 이때부터 거룩한 순교자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문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순교자들로부터 이러한 중상모략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백을 받아내려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7. 군중과 총독과 군인들은 모든 분노를 비엔나 출신의 집사 상투스Sanctus와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용감한 전사였던 마투루스Maturus와 언제나 이곳 형제들의 '기둥과 터'[45]가 되었던 페르가몬 출신의 아탈루스Attalus와 블란디나Blandina에게 거침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블란디나를 통하여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능력으로 증명되며 사람의 외모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8. 우리는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블란디나의 여주인마저도 블란디나가 연약한 건강 상태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대로 그녀를 고문하던 자들이 쇠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두

44) 요 16:2.
45) 참고. 딤전 3:15.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 전체는 찢기고 살은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 한 번의 고문이면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9. 그러나 블란디나는 마치 한 사람의 고귀한 투사와 같이 힘차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악한 일이라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녀에게 구원이자 휴식이었으며 그녀로 하여금 모든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 상투스의 모습 역시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모든 가혹한 행위들을 참아냈습니다. 고문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가혹해지는 것을 지켜 보면서 이교도들은 소문으로만 들어 왔던 그리스도인의 죄악들이 상투스의 입을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투스는 굳게 입을 다물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민족의 이름도, 자신의 출생지조차도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하여 라틴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Christianus sum' 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이름과 고향과 민족명,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에 대답해야 할 순간에 신앙 고백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에게서 신앙 고백 외에 다른 말은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1. 총독과 체형 집행인들은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를 괴롭힐 방법을 찾지 못하자 마침내 뜨겁게 달아오른 철판을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들에 갖다 대었습니다.

22. 철판을 갖다 댄 부분들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으로부터 오는 하늘 샘의 생명수로 촉촉이 젖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23.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의 몸이 증거하였습니다. 온통 상처와 부풀어 오른 자국들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굽어졌으며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업적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파멸시키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고통도 없다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 주셨습니다.

24. 며칠 후에 이교도들은 그 순교자를 다시 고문하였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을 만큼 부어오르고 곪아터진 그의 사지를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고문하면 그에게서 항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만약 그가 고문을 받다가 죽으면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줄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가혹한 고문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오그라졌던 그의 육신은 다시금 반듯하게 펴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형상을 되찾았으며 사지의 기능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고문이 그에게는 체형體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치유였던 것입니다.

25. 또한 사탄은 배교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비블리스Biblis라는 여자를 고문대로 데려왔습니다. 사탄은 그녀를 이미 자기 손에 넣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로 하여금 소문으로 떠도는 기독교인의 죄악들에 대해 자백하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미 심신이 지쳐 있고 겁먹은 그녀에게 우리가 행한 죄악들을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26. 그러나 비블리스는 고문을 받는 중에 다시 정신이 들었으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일시적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들에 대한 각종 비방에 대하여 사탄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이[46] 어떻게 어린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순교자가 되는 복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 잔인한 고문이 그리스도와 복된 자들의 인내로 인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자 사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무시무시한 장소에 감금하기, 고문대에서 두 다리를 강제로 벌어지게 하되 다섯 번째 구멍까지 벌어지게 하기[47] 등 악마에게 사로잡혀 흥분하고 분개한 형리들이 죄수들을 괴롭힐 때 사용하던 온갖 종류의 고문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이 감옥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마지막을 맞도록 정해 놓으신 자들이었습니다.

28. 어떤 이들은 이미 지독한 고문으로 절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육체와 정신이 새롭게 힘을 얻고 강건해져서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그 참혹한 감옥 생활을 이겨내기도 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방금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체가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어서 감옥 생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사망하기도

---

46) 참고. 행 15:20, 29, 21:25.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융화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다.

47) 나무나 철로 된 고문 도구로 머리와 팔과 다리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발판에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원하는 만큼 다리를 벌어지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구멍까지' 란 약 1.8~2m의 넓이를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29. 리옹의 감독직을 맡고 있던 포티누스Pothinus는[48] 이미 아흔 살이 넘어 기력이 완전히 쇠진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미 너무 약해져서 호흡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에 대한 열망과 영적인 기쁨과 각오로 인해 그의 육신은 다시 강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까지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육신은 고령의 나이와 질병으로 인해 쇠약해져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강건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통하여 승리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0. 병사들이 그를 부축하여 재판관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의 관원들과 군중 전체가 그를 따라가며 마치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를 향하여 온갖 종류의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스럽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31. "기독교인들의 신은 누구인가?"라는 총독의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당신은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무자비하게 구타하였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그의 나이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며 닥치는 대로 그를 학대하였습니다. 멀리 서 있던 사람들은 각기 손에 잡히는 대로 그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그를 향해서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대신하여 복수를 한다는 망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의 죽게 된 채로 감옥에 던져졌고 이틀 뒤

48) 포티누스(Pothinus)는 약 87년경 소아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폴리캅의 제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50년경 최초의 리옹 감독이 되었으며 177년 6월 2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였다.

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32.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형제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것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3.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감금되어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교가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만으로 구속되었으며 그 외의 다른 범죄 혐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교자들은 살인자요 범죄자로서 구속되어 고백자들보다 두 배나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34. 더욱이 고백자들은 순교에 대한 기쁨과 약속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배교자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무섭게 벌하였습니다. 지나가는 것만 보아도 그 둘 사이의 차이는 역력했습니다.

35. 명랑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고백자들의 걸음걸이에는 위엄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은 마치 귀금속으로 된 장신구처럼 보여서 그들은 마치 금테를 두른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 들어오는 신부 같았습니다.[49]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50]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배교자들은 완전히 지쳐서 아무 용기도 없었으며, 흉하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신의 없는 겁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살인자라는 죄목 또한 여전히 그들에게서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명예롭고 영

49) 참고. 시 45:13~14.
50) 참고. 고후 2:15.

광스러운 생명력 있는 이름[51]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나서 태도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자들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52]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6. [편지를 기록한 자들은 더 상세한 서술과 함께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그때 이후로 순교자들에게는 각기 다른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화초들과 색깔들로 그들은 아버지께 바칠 하나의 화관을 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러 번의 전투를 겪고 영광스럽게 승리한 고귀한 전사들을 위한 영생의 면류관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37. 군중들을 위한 또 하나의 구경거리로 마투루스와 상투스, 블란디나와 아탈루스는 원형경기장의 맹수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이날에 있었던 맹수들과의 경기는 오직 이들 때문에 개최된 것이었습니다.[53]

38. 원형경기장에서 마투루스와 상투스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고문을 당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온갖 종류의 고문을 또다시 견뎌야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그들이 이미 여러 번의 제비뽑기[54]를 통해 적을 이기고 이제 승리의 면류관에 도전하는 것 같았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 원형경기장에서 채찍질을 또다시 당해야 했으며 맹수들에게 질질 끌려 다녀야 했고 흥분한 군중들이 성난 목소리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견뎌야

51)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참고.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의 순교 4장.

52)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53) 맹수들과의 경기는 일반적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8월이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시기에 주어진 맹수들과의 경기는 언제나 '빵과 경기'를 요구하던 민중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54) 여기에 쓰인 '제비뽑기'란 표현은 시합 또는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이다. 한 경기에서 이긴 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자와 다시 경기를 하고, 거기서 이긴 자들은 다시 제비뽑기를 통해 상대를 정하여 싸우게 된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여 마지막에 남은 승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게 된다.

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쇠로 된 의자 위에 앉혀졌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불로 지지는 냄새가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되어 순교자들을 에워쌌습니다.

39. 그러나 군중들은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순교자들의 인내를 이겨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상투스에게서 그가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 했던 말 외에 아무것도 더 듣지 못했습니다.[55]

40. 그렇게 가혹하고 힘겨운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을 살해해야만[56]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순교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던 보통 경기와는 달리 오로지 그들 자신을 통해 세상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41. 사람들은 블란디나를 십자가 모양의 나무기둥에 매달았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녀를 향해 풀어 놓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그녀는 함께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자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투에서 육신의 눈으로도 블란디나 안에 계신 그분,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그분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42. 어떤 동물도 블란디나에게 가까이하려 하지 않자 사람들은 그녀를 십자

---

55)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

56) 여기서 쓰인 단어 'ειν'은 원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을 도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목을 잘라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말한다. 순교자들도 이런 방법으로 살해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가에서 내려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를 위해 감옥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여러 번의 경기에서 승리한 자로서 간교한 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안겨 주고 형제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란디나, 작고 연약하고 천한 신분의 그녀는 위대하며 결코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는 경기자인 그리스도로 옷 입고[57] 악한 원수를 여러 번의 시합에서 제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를 통해 불멸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43. 군중은 또한 아탈루스를 격렬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양심으로 잘 무장한 경기자로 등장한 그는 그리스도의 진영에서 성실히 훈련 받은 사람이었으며 우리에게는 항상 진리의 증인이었습니다.

44.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라틴어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탈루스이다'라고 쓰인 팻말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향해 광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가운데 총독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그를 구금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45.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순교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다시 생명으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백자들은 배교자들에게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낳은 것같이 죽은 자로 밖에 버려야만 했던 자녀들을 살아 있는 생명으로 어머니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순결한 어머니[58]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

57) 참고. 롬 13:14, 갈 3:27.

46. 순교자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배교자들이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겼으며, 다시 받아들여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사망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해 그들은 기운을 얻어 힘차게 재판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총독의 심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47. 황제가 그들을 사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는 자들은 석방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총독은 축제가 시작될 때 순교자들을 자신의 재판관석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축제에 참가하려고 모여든 군중들에게 순교자들이 행렬을 지어 나오는 모습을 구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총독은 그들을 또다시 심문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참수형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맹수들에게 넘겨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48. 처음에 신앙을 부인했던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따로 심문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풀어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순교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행운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믿음의 흔적을 가진 적이 없고 신부의 예복[59]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삶

58)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는 세례를 베풂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낳는 어머니, 특히 아버지 없이 아이를 잉태한 동정녀 어머니로 상징되고 있다.

59) '신부의 예복'이란 세례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참고. 갈 3:27), 그로 인해 세례에 대하여 '의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고대 교회 역사에서 세례는 '불멸의 옷', '썩지 않는 옷', '빛의 옷', '구원의 옷', '행복의 옷'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럽힌 '멸망의 아들'[60]이었습니다.

49.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문을 받고 있을 때 알렉산더라는 프리기아 사람이 재판관석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갈리아에서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담대한 말씀 선포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도적인 은사가 있어서 재판정 가까이 서 있으면서 심문을 당하는 자들에게 표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으러 나온 이들에게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와 같았습니다.[61]

50. 처음에는 신앙을 부인했던 자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변하자 군중들은 격분했습니다. 군중들은 알렉산더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를 향해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아챈 총독이 알렉산더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총독은 몹시 화를 내며 그를 맹수들에게 던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그는 아탈루스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군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총독이 아탈루스도 맹수들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62]

51. 이 두 사람은 원형경기장에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고문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통과한 후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혀 신음하지 않았으며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

---

60) 참고. 요 17:12, 살후 2:3.

61) 알렉산더가 심문받는 자들을 권유함으로써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교회에 자녀들을 낳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62) 아탈루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맹수 형(刑)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었다.

기 때문입니다.

52. 사람들이 아탈루스를 쇠로 된 의자에 앉혀 놓고 몸의 여기저기를 불로 지져대어 그의 몸에서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가 하늘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군중들을 향하여 라틴어로 소리쳤습니다. "보라!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인간을 잡아먹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잡아먹는 일은 물론 그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53.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뒤 경기의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블란디나가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나이가 십오 세쯤 된 폰티쿠스Ponticus라는 소년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곳으로 끌려 나와 다른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우상 앞에 맹세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들은 매우 격분하였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고 블란디나가 여성이라는 것도 흥분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4. 끔찍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고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번갈아 가면서 강제로 그들에게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폰티쿠스는 블란디나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폰티쿠스는 모든 괴로움을 영웅적으로 견뎌내다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55. 블란디나는 마치 자기 자녀들을 격려하여 승리자로서 왕 앞에 서게 만드는 고귀한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경기를 끝까지 다 치른 후에 마지막 경기자로서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맹수들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마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그녀는 환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56. 채찍질, 맹수들, 불에 뜨겁게 달구어진 철판 등의 고통을 지난 뒤에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물에 갇혀서 황소 앞으로 던져졌습니다. 황소는 그녀를 힘세게 받아 공중으로 날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속한 것에 대한 소망과 충만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리스도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마저도 블란디나와 같이 가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한 여인은 아직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57. 그러나 그것으로도 이방인들의 분노와 잔인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짐승 한 마리의 사주를 받은[63] 야만적이고 난폭한 이 종족을 달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특이하게도 순교자들의 시체를 향하여 그 난폭함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58. 그들이 패배했다는 사실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한 마리의 야수와 같이 분노만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과 군중들은 똑같이 우리에게 불의한 적개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64]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9. 그들은 감옥에서 질식해 죽은 자들의 시체를 개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매장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또한 맹수들로부터 찢겨지고 화형으로 인해 불에 타 석탄처럼 되어 버린 시신의 일부를 구경거리로 공개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신들의 몸통과

---

63) 참고. 계 11:7 이하.
64) 참고. 계 22:11.

머리들을 모아 구경거리로 제공하였습니다. 군인들은 며칠 동안이나 그 시신들을 철저히 지키며 매장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습니다.

60. 그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씩씩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더 지독한 보복 방법을 찾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며 순교자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린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교적 온건하며 동정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이렇게 탄식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들의 신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들은 신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건만 그것이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61. 이렇게 이방인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매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매장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이익이라도 생기는 듯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시신을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62. [몇 가지 내용을 더 서술한 후에 편지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이 무법한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시신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롱거리를 만들고 육일 동안이나 노천에 방치한 후에[65] 마지막으로 그것을 화장하여 그 재를 론 강물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교자들의 아무런

---

65) 유세비우스는 여기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어거스틴의 사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de cura pro mortuis gerenda 8, 10) 그는 어거스틴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죽은 자들을 장례하는 문제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죽은 후 그 육신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 이들, 지금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의 육신에 무슨 일이 행해지든지 그들의 육체는 온전히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8) 한편으로 이처럼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에게는 그들의 시신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 순교한 형제들을 정중하게 매장하지 못한 남은 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다.(10)"

흔적도 지상에 남겨 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63.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그 거룩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양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그들은 참으로 낯설고 새로운 종교를 우리에게 들여왔으며 아무리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어도 개의치 않고 기꺼이 기쁨 가운데 죽음으로 나아갔다. 이제 지켜 보자! 그들이 정말 부활하는지, 그들의 신이 정말 그들을 도와 우리 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지켜 보자!"

2

1.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황제[66] 치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일어났으며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편지에서 몇 가지를 더 발췌하여 덧붙인다. 이를 통해 순교자들의 온유하며 인도주의적인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편지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바이다.

2. 그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67]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영광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수들에게 던져졌다가 다시 감옥으로 끌려 갔으며 온 몸은 불에 데거나 부어오른 상처들로 얼룩져 있었습

66)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말한다.
67) 빌 2:6.

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순교자라 부르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들을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른 일이 알려지면 그들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3. 그들은 기꺼이 '순교자'라는 호칭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68]이신 그리스도께 돌려 드렸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69]이며 신성한 삶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그곳으로 달려간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순교를 죽음을 통하여 인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고 부족한 고백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자기들이 순교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눈물로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4. 그들은 순교의 능력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교도들을 향해 거리낌 없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인내, 용기, 담대함을 통하여 그들의 고결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충만하여 형제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순교자'라는 칭호를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5. [편지는 잠시 후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이렇게 높이신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70]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풀었으며 아무도 매지 않았습니다.[71] 그들을 그렇게 혹독

---

68) 참고. 계 3:14.
69) 참고. 계 1:5.
70) 참고. 벧전 5:6.

하게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완전한 순교자였던 스데반과 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72]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형제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6.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더 첨가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들 순교자들이 참사랑의 힘으로 그[73]를 대항하여 싸운 가장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통하여 그들은 짐승의 목을 조르고 그 짐승이 이미 삼켜 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던 이들을 산 채로 도로 토해 내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배교자들에 대하여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염없이 관대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은 자기들이 풍성하게 가진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배교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 그들은 생명을 구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을 다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승자로서 그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늘 평화를 사랑하였으며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었던 그들은 평화 속에서 아버지께로 갔으며 어머니에게[74] 어떤 고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어떤 불화나 분쟁을 남기지 않았으며 오직 기쁨과 평화와 일치와 사랑만을 남겼습니다.

---

71) 아마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72) 행 7:60.

73) 사탄을 말한다.

74) 교회를 말한다.

7

스킬리[75] 순교자들의 재판기록

1. 두 번째 임기를 맞는 프레센스Praesens와 클라우디아누스Claudianus가 함께 집정관이었던 해[76] 7월 17일 카르타고의 비밀 법정에 스페라투스Speratus, 나르찰루스Nartzalus, 키티누스Cittinus, 도나타Donata, 세쿤다Secunda, 베스티아Vestia가 소환되었다.

총독 사투르니누스Saturninus가 말했다.

"너희가 만일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주 황제 폐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스페라투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결코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도 행한 적

---

75) 스킬리라는 지역이 어디였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지 스킬리가 카르타고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76) 서기 180년을 말한다. 공화정 시대와 마찬가지로 제정 로마 시대에도 집정관들의 이름으로 연도를 표시하였다.

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황제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 총독 사투르니누스가 말했다.
"우리도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우리 종교는 단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황제의 수호신께 맹세하며 황제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의무가 너희에게도 있다."

4. 스페라투스가 말했다.
"총독님이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단순함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 사투르니누스가 말했다.
"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려는 너의 말은 듣지 않겠다. 우리 주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여라!"

6. 스페라투스가 말했다.
"나는 이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눈으로는 볼 수도 없으며,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그분만을 섬깁니다.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으며, 물건을 살 때는 항상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사투르니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러한 신념을 포기하라!"
스페라투스가 말했다.
"살인을 행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악한 신념입니다."

8. 총독 사투르니누스가 말했다.
"더 이상 이러한 미친 짓에 동참하지 말라!"
키티누스가 말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 도나타가 말했다.

"시저에게는 시저에게 적합한 존경을,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께!"

베스티아가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쿤다가 말했다.

"나도 역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77

10. 총독 사투르니누스가 스페라투스에게 말했다.

"너도 그리스도인이기를 계속 고집하겠느냐?"

스페라투스가 말했다.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스페라투스와 같은 대답을 했다.

11. 총독 사투르니누스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원하느냐?"

스페라투스가 말했다.

"이렇게 의로운 일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총독 사투르니누스가 말했다.

"통에 든 물건들은 무엇이냐?"

스페라투스가 말했다.

"책과 의로운 사람 바울의 편지입니다."

13. 총독 사투르니누스가 말했다.

"30일의 시간을 줄 테니 정신을 차리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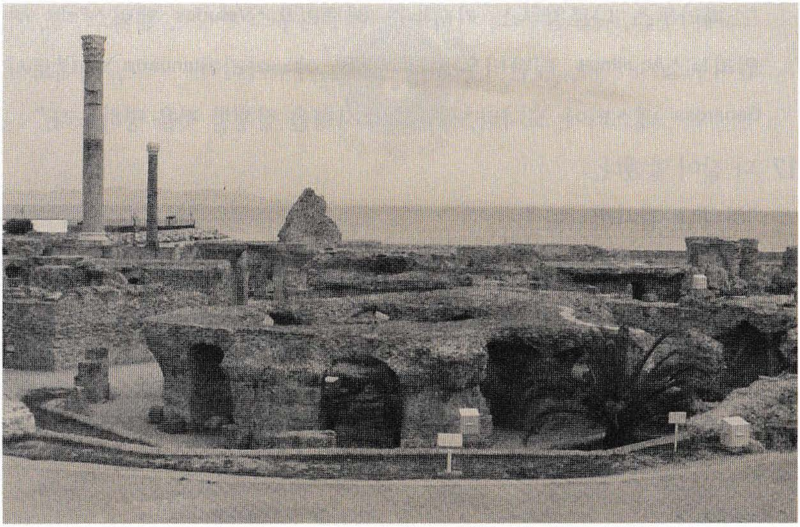
스페라투스가 다시 한 번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의 말에 동의했다.

---

77) Quod sum, ipsud uolo esse(나는 현재의 나 그대로이기를 원한다).



스킬리 순교자들의 재판장소 '카르타고'

14. 총독 사투르니누스가 서판에 적힌 판결문을 낭독했다.

"스페라투스, 나르찰루스, 키티누스, 도나타, 베스티아, 세쿤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교의 규례를 따라 사는 자임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로마인들의 규례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기를 고집하였다. 이에 참수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15. 스페라투스가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르찰루스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로서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6. 총독 사투르니누스가 포고자[78]를 시켜 사형을 선포하였다.

---

78) 로마인의 직업 중 하나로, 관리의 명령이나 전달 사항을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스페라투스, 나르찰루스, 키티누스, 베투리우스Veturius, 펠릭스Felix, 아퀼리누스Aquilinus, 레탄티우스Laetantius, 야누아리아Ianuaria, 게네로사Generosa, 베스티아, 도나타, 세쿤다의 사형을 집행할 것을 명하노라."

17. 다 같이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같이 순교의 면류관을 썼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있다. 아멘.

8

아폴로니우스[79]의 재판기록

황제 콤모두스Commodus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아시아의 총독 페렌니스Perennis 앞으로 사도 아폴로니우스가 체포되어 끌려 나왔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생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1. 아폴로니우스가 재판정에 끌려 나오자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아폴로니우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2. 아폴로니우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

79) 매우 학식이 높은 상류층 인물이었다. 원로원 의원이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글을 읽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세베루스'라는 하인이 그를 기독교인으로 고발하였다. 그는 콤모두스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였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 185년경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데 모든 것을 만드신[80]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외합니다."

3.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마음을 돌리고 내 말을 따르라, 아폴로니우스! 우리 주 황제 콤모두스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라!"

4. 아폴로니우스가 대답했다.

"나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렌니스. 당신에게 법에 근거하여 진지한 변호의 말과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의롭고 선하며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야말로 무법하고 악한 진정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와 불법, 우상 숭배와 악한 생각에서 돌아서며 죄악의 지배로부터 돌이켜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5. 따라서 페렌니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로고스를 통하여 신성하고 뛰어난 계명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6. 게다가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며[81] 매사에 진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굳은 맹세는 단순히 '예'라는 대답 속에 들어 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맹세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짓말에서 불신이 생겨나며, 불신 때문에 또한 맹세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에게 황제를 존경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직접 세상에서 인간을 다스리

80) 참고. 출 20:11, 행 4:24.
81) 참고. 마 5: 34.

도록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 맹세할 것입니다."

7.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의 생각을 바꾸라, 아폴로니우스! 신들과 콤모두스 황제의 형상 앞에 제물을 드리라!"

8. 아폴로니우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해드렸습니다, 페렌니스 총독님. 제사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피가 흐르지 않는 정결한 제물을 전능하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제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제사에 들어 있습니다.

9. 즉, 우리는 의로운 계명에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 콤모두스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82] 결코 패하지 않으시며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그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아폴로니우스, 당신의 생명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겠으니 그동안 심사숙고하라."

11. 삼일 후에 페렌니스는 다시 아폴로니우스를 법정으로 소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번에는 수많은 원로원들과 시의원들과 학식 있는 철학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페렌니스는 아폴로니우스를 법정 안으로 들어오게

82) 참고. 딤전 2:1 이하.

명령한 후 말했다.

"아폴로니우스의 기록을 낭독하라!"

그의 서류가 낭독된 후에 페렌니스가 말했다.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아폴로니우스?"

12. 아폴로니우스가 대답했다.

"서류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13.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원로원의 결의에 따라 충고한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함께 숭배하며 우리와 같은 삶을 살라!"

14. 아폴로니우스가 대답했다.

"나도 그 결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금이나 은, 동이나 철, 또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수공업자나 금세공업자, 목수와 같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일 뿐,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15.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모두에게 매일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입니다.[83]

16. 나는 결코 굽힐 수 없습니다, 페렌니스. 결코 나 자신을 쓰레기 더미 속에 던져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 또는 귀신들보다 더 못한 수준에 있는 존재를 경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

83) 참고. 행 17:25.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손으로 만든 형상을 경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온기 없는 차가운 석상, 말라빠진 나무 조각, 단단한 쇠붙이, 죽은 자의 뼈들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속임수가 아닌가요?

17. 애굽인들 또한 여러 가지 추잡한 우상 외에 소위 '발 씻는 대야'로 불리고 있는 청동 대야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18. 그런데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소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테네의 행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원래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들의 영혼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19. 도대체 이런 신들이 마른 점토나 부서진 자기의 파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듣지 못하는 귀신의 그림 앞에서 마치 그 그림이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 그림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 그림들의 형상은 모두 거짓입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며,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며, 손이 있지만 뻗지 못하며,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형상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들에서 자라는 하나의 나무에 불과한 플라타너스 나무를 두고 맹세를 한 것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풍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 또한 둘째로, 성장을 존재의 필수 조건으로 하는 사물을 숭배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파나 마늘을 숭배하는 펠루스[84] 사람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배로 들어가

84) 나일 강의 동쪽 지류 어귀에 위치한 이집트의 도시.

서 배설물로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21. 셋째로, 사람이 동물의 감각을 가진 존재를 숭배하는 것 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나 비둘기, 그리고 애굽인들의 관습을 상징하는 개와 개코원숭이, 악어나 황소, 뱀과 늑대 같은 형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22. 마지막 넷째로, 이성을 가진 존재 즉 사람을 숭배하는 것 또한 하늘에 대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화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전에는 단순히 사람이었던 자들을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몸이 가리가리 찢겨졌다고 하며, 헤라클레스는 산 채로 장작더미의 불 위에 던져졌고,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신화 속에 등장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나는 그 신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3.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아폴로니우스, 그래도 원로원 결정은 명백하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4. 아폴로니우스가 대답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아무런 해악도 범하지 않은 자들을 부당하게 죽일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수를 더욱더 늘리실 것입니다.

25. 페렌니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왕들과 원로원 의원들과 권세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자유인이나 종들, 높은 자들과 비천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모두에게 한 죽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6. 그러나 죽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말씀)의 제자인 우리

는 날마다 죽습니다.[85] 즉 금욕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정욕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페렌니스, 우리를 믿으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한 점 더러운 정욕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유혹을 가져오는 단정하지 못한 시선조차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폴로니우스 당시 집권자 콤모두스

27. 총독님, 이러한 삶의 원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가지, 불행한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28.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86] 때로는 이질이나 열병도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런 질병 중 하나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29.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죽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확고한가?"

---

85) 참고. 요 1:1, 고전 15:31, 고후 4:10이하.

86) 참고. 롬 14:8.

30. 아폴로니우스가 대답했다.

"물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산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31.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은 마치 법률가처럼 나에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32. 아폴로니우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은혜의 아름다움에 이토록 무감각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렇습니다, 페렌니스. 눈이 열린 자에게만 빛이 유용한 것처럼 주님의 로고스는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눈이 먼 자들에게는 빛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33. 그때 한 냉소주의 철학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폴로니우스, 당신은 스스로를 조롱하고 있다. 당신이 스스로 아무리 생각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여길지라도 당신은 지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34. 아폴로니우스가 말했다.

"나는 기도하기를 배웠지, 조롱하기를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길고 장황한 변론을 늘어놓아도 당신 마음속에 숨어 있는 위선은 당신 마음의 어두움을 증명한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리는 항상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35.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선한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만들고,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신의 로고스라는 사실은 우리도 믿어 의심

하지 않는다."

36. 아폴로니우스가 말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지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전 우주의 하나님이 누구인지와 거룩한 삶에 이르기 위한 덕을 실천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영혼에 자기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난을 통하여 죄의 권세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37. 그분은 우리에게 분노를 누르며 욕망을 절제하고 쾌락을 억제하며 마음에서 우울을 떨쳐 버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랑을 키우고, 허영심을 버려야 하며,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진정한 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죽음조차도 무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죄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불의를 감당함으로써 죽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직접 주신 명령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황제를 존경하라는 명령입니다.[87] 그러나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한 분뿐입니다.[88] 우리는 영혼의 불멸과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을 쌓기 위해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한 상급, 즉 부활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산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소망해야 합니다.

38.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능력 있게 가르치셨으며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큰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시기를 받으셨습니

---

87) 참고. 벧전 2:17.
88) 참고. 딤전 6:16.

다. 이것은 그분보다 먼저 살았던 의인과 철학자들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늘 불의한 자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39. 또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불의하게 말하기를 '의로운 자를 묶어 버리자. 그가 우리에게 거슬리는구나.'[89]

40. 우리가 들은 바 그리스에도 이런 말을 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의인은 채찍에 맞으며, 고문을 당하며, 사슬에 묶이며, 양쪽 눈을 후벼 눈멀게 될 것이며, 모든 수난을 다 당한 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90]

41. 예전에 아테네 사람들도 부당하게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고 단순한 민중을 선동하여 그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생님이자 구주이신 그분도 몇몇 교활한 자들에 의해 사슬에 묶인 후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42. 이런 일은 예전 선지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는데, 모든 면에서 의롭고 덕 있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것이며 만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고의 덕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룩한 계명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 즉 영혼의 불멸과 죽음 뒤에 있는 심판과 부활의 때에 받게 될 선한 일에 대한 상급이 설사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큰 기쁨으로 이러한 오류 속에 머물 것입니다. 그것을 통

89) 참고. 사 3:10(Septuaginta). 우리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90) 플라톤, Rep. II p. 361 E.

하여 우리 대부분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선하게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43.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지금까지 나는 당신이 이러한 사상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신들을 경배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아폴로니우스."

44. 아폴로니우스가 대답했다.

"총독님, 오히려 나는 신앙에 관한 나의 변론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당신 영혼의 눈이 밝아져 마음의 열매를 가져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부터는 날마다 오직 그분께만 자선과 이웃 사랑을 통한 기도를 피 없고 정결한 제물로서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45. 총독 페렌니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풀어 주고 싶다, 아폴로니우스. 그러나 황제 콤모두스의 칙령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하지만 사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총독은 순교자의 허벅다리를 부러뜨리라는 판결을 내렸다.[91]

46. 그러나 아폴로니우스는 말했다.

"페렌니스 총독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고백한 모든 이들과 함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사형 판결을 내려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91) 아르메니아어 번역판에는 '그를 검으로 참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다.

47. 이처럼 매우 거룩한 경기자였던 아폴로니우스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마지막을 침착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였다. 그가 악과 싸워 승리의 상을 얻었던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의 훌륭한 영웅적 행적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세 배나 복 받은 순교자 아폴로니우스는 로마 달력으로 오월 첫 날이 되기 11일 전,[92] 아시아 달력으로는 여덟 번째 달에, 그리고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92) 4월 21일.

9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교

1

1. 옛 믿음의 본보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 기록이 사건들을 현재에 재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최근의 사건들도 기록해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지금 이 시대에는 옛 것에 대한 경외심에 눌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최근의 사건들도 언젠가 후손들에게는 옛 것이자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한 성령의 동일한 역사하심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의 법칙에 따라 새 시대의 것일수록 더욱 위대하게 여겨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93]

4. 우리는 예언뿐만 아니라 환상도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임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모든 은혜의 선물을 주관하시는 한 분 성령이 이 모든 은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교회에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상들과 기적들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그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의심하는 어떤 자라도 순교나 계시를 옛 성도들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이루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를 삼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기 위해서.
5. 그러므로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우리도 또한 믿음의 형제요 아들들인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데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너희도 거룩한 순교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순교자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94]

2

젊은 세례 준비자들인 레보카투스Revocatus와 그의 동료 노예 펠리키타스Felicitas, 사투르니누스Saturninus와 세쿤둘루스Secundulus가 체포되었다. 그들 중에는 고귀한 가문 출신이며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인 비비아 페르페투아Vibia Perpetua도 있었다. 페르페투아에게는 부모와 두 남자 형제가 있었으며

---

93) 욜 2:28, 행 2:16.
94)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교록은 교부였던 터툴리안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터툴리안은 페르페투아와 사투루스의 기록을 근거로 먼저 라틴어로 순교록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에 그것을 직접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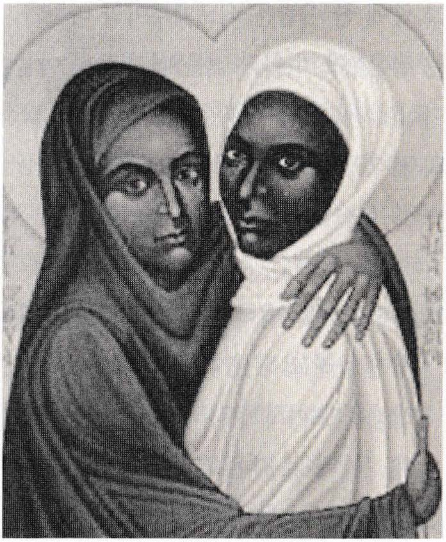
그 중에 한 사람은 페르페투아와 마찬가지로 세례 준비자였다. 페르페투아는 결혼했으며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약 이십이 세가량 되었다. 페르페투아는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순교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3

1. 아직 내가[95] 경비병들과 함께 있을 때[96] 아버지는 나를 설득해서 배교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나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97]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아버지, 작은 항아리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놓여 있는 그릇이 보이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래, 보인다."
2.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러면 그것을 그릇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나도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 말에 격분해서 내 눈알을 후벼파려는 듯 달려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기만 했을 뿐 결국은 악마의 논리와 함께 패배를 당하고 떠나셨다.
3. 그 후 아버지가 안 계신 며칠 동안 나는 주님께 감사했으며 다시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때 성령께서는, 육신의 인내만을 구하도록 나에게 명령하셨다. 며칠 후에 우리는 감옥으로 끌려 갔다. 나는 거기서 무척 겁에 질렸다. 아직까지 그런 어두움을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

95) 페르페투아 자신을 말한다. 3~10 단원은 페르페투아의 자전적 기록이다.
96) 감옥에 갇히기 전 상태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97) 세례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

4. 오! 괴로운 날들이여!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견디기 힘든 더위와 군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그 후에 우리를 돌보던 집사들인 테르티우스Tertius와 폼포니우스Pomponius가 군인들을 매수하여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감옥 중에서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

5. 그런 다음 우리는 모두 감옥[98]에서 나와 각자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나는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그리고 아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혹은 오빠)을 격려했으며 그들에게 내 아들을 부탁하였다. 나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 그들을 보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6. 여러 날 동안 그러한 근심들로 인해 나는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 아기를 데리고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곧 아기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갑자기 감옥이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 더 좋은 궁전처럼 느껴졌다.

98) 감옥 중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말한다.

4

1. 그 후에 남동생(혹은 오빠)이 나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누이! 누이는 이미 환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요? 누이가 요구하기만 하면 고난을 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석방될 것인지 환상으로 알려 주실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약속했다. "내일 분명히 말해 줄 수 있을 거야."
2. 나는 환상을 보여 주실 것을 간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엄청나게 큰 청동으로 만든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 그 사다리는 폭이 아주 좁아서 겨우 몇 명만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 옆에는 온갖 종류의 위험한 철기구들이 매달려 있었다.
3. 검과 창, 낫과 단검들이 사다리에 매달려 있어서 잠깐이라도 부주의하거나 집중해서 위쪽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몸이 그 철기구들에 의해 찢겨져서 그것에 살이 묻어나 걸려 있게 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거대한 용이 누워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며 겁을 주고 있었다. 먼저 사투루스가 그 사다리를 올라갔다. 그는 우리를 교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잡히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수하고 잡혀 왔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감옥에 끌려 왔으나 그 이후에는 우리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
4. 사투루스가 사다리 꼭대기에 도착한 다음 몸을 돌려 나에게 말했다. "페르페투아,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저 용이 너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저 용이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용이 마치 나를 두려워하는 듯 사다리 밑에서 슬그머니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마치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을 밟는 것처럼 그 용의 머리를 밟았다.

5. 올라가자 끝없이 넓은 정원이 보였다. 그 정원 한가운데에 머리가 흰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양의 젖을 짜고 있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잘 왔다, 딸아." 그리고는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새로 짠 우유로 만든 치즈 한 조각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외쳤다.

6.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까지도 나의 입 속에서는 무슨 달콤한 것이 씹히고 있었다. 속히 이것을 내 형제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는 장차 내가 순교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5

1. 며칠 후에 우리가 심문을 당할 거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아버지는 괴로움과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배교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셨다. "딸아, 늙은 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만약 너에게 아버지라 불릴 만하다면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이 두 손으로 너를 꽃다운 이 나이까지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면, 내가 너를 네 형제들보다 더 아낀 것을 안다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받는 데서 나를 구해 다오. 네 형제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네 엄마와 이모를 생각해라. 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네 아들을 생각해라. 너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지 않도록 그만 교만함을 내려놓아라. 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 식구는 앞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2. 아버지는 딸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후 내 손에 입을 맞추시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차마 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主라고 부르셨다.

3. 나 역시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내 가족과 친척 중에서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순교를 기뻐해 주시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깊이 상심하여 집으로 돌아가셨다.

6

1. 어느 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심문을 당하러 끌려 나갔다. 그리고 포룸[99]에 도착했다. 곧 소문이 포룸 근처의 여러 마을로 퍼져 나갔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는 재판정으로 올라갔다. 질문을 받은 다른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내 아들과 함께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나를 계단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간청하셨다.

"아기를 불쌍히 여겨라."

2. 당시 행정관 힐라리아누스Hilarianus가 죽은 총독 미누키우스 티미니아누스Minucius Timinianus를 대신하여 사형시킬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네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라. 네 어린 아들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황제의 안녕을 위해 제사를 드려라."

나는 대답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힐라리아누스가 물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99) 정치 활동, 연설, 재판 등이 열리는 집회 장소로 사용되던 광장.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배교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힐라리아누스는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곧이어 아버지에게 채찍이 날아왔다. 아버지가 맞자, 나는 마치 내가 채찍에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높은 연세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다.

4. 그런 다음 우리 모두에게 맹수에게로 보내지는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옥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집사 폼포니우스를 보내 속히 아기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아기는 나의 젖을 먹으며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기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는 더 이상 젖을 찾지 않았고, 나도 젖이 불어서 타는 듯이 아픈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나를 아기에 대한 걱정과 젖몸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7

1. 며칠 후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한창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내게서 갑자기 어떤 말이 튀어 나왔다. 그리고 디노크라테스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디노크라테스에게 생각이 미치자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나는 곧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생겼다는 것과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 탄식하기 시작했다.

2.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환상을 보았다. 디노크라테스가 어떤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곳에는 디노크라테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디노크라테스는 무척 더워 보였고 목이 말라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죽을 때

갖고 있던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 디노크라테스는 일곱 살에 암으로 죽은 나의 친 형제였다. 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은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끔찍해 할 정도로 그의 죽음은 고통스러웠었다.

3. 그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하였다. 그런데 나와 디노크라테스 사이에는 큰 공간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가 있는 곳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물통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디노크라테스의 키보다 높았다. 디노크라테스가 물을 마시려고 까치발을 하였다.

4. 나는 마음이 아팠다. 물통에 물이 가득한데도 디노크라테스의 키가 작아서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 잠에서 깨어난 나는 나의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의 고통을 내가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병영 감옥으로 이송될 때까지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게타Geta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경기에서 맹수들과 싸우게 되어 있었다. 나는 나를 보아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를 위해서 매일 밤낮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다.*

8

1. 손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던 어느 날 또다시 나에게 환상이 보였다. 나는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장소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쉬고 있는 디노크라테스를 보았다. 그곳에는 또한 전에 보았던 그 물통도 있었는데 그 높이가 디노크라테스의 배꼽 부분까지 낮아져 있었다.

2. 물통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으며 물통 꼭대기에는 물이 가

*「죽은 자를 위한 도고」는 가톨릭교회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 환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득 담긴 금 그릇이 놓여 있었다. 디노크라테스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은 결코 줄지 않았다. 물을 다 마신 디노크라테스는 보통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물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몹시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깨어난 후 나는 디노크라테스가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9

1. 며칠 후 감옥의 간수장인 푸덴스Pudens라는 군인이 우리 안에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를 극진하게 대해 주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어서 그들이나 우리가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2. 경기할 날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방문했다. 아버지는 심한 고통으로 쇠약해 있었다. 아버지는 수염을 뜯으며 땅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 나이를 저주하였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말을 하였다. 나는 높은 연세에 겪게 된 아버지의 불행을 보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10

1. 우리가 싸우러 경기장에 나가기 전날, 나는 다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 폼포니우스 집사가 감옥 문에 와서 세게 문을 두드렸다. 가서 문을 열어 주니 폼포니우스가 띠를 매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는 여러 종류의 장식 구슬이 달려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페르페투아,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갑시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았다. 우리는 울퉁불퉁하고 이리저리 굽어진 장소를 통과해 가기 시작했다.
2. 마침내 우리는 숨을 헐떡이면서 원형경기장에 도착했다. 그는 나를 경기장 중앙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말했다. "겁내지 말아요. 내가 당신과 함

께 여기 있을 것이며 당신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는 흥분해서 소리치고 있는 수많은 관중을 둘러보았다. 내가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진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의아했다.

3. 그때 흉측한 모습을 한 어떤 애굽 사람이 조수들과 함께 싸우려고 나왔다. 그리고 나에게도 젊고 고귀해 보이는 조수들과 후원자들이 다가왔다. 나는 옷을 벗었다. 그리고는 남자가 되었다. 나의 후원자들이 경기장에서 하는 것처럼 내 몸에 기름을 발라 주기 시작했다. 나와 달리 애굽 사람은 모래에 뒹굴고 있었다.

4. 그때 원형경기장의 지붕 꼭대기를 넘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가운데가 자주색으로 된 허리띠 없는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과 은으로 된 여러 형태의 장식 구슬이 달려 있었다. 그는 한 손에는 검투사 훈련 감독같이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금사과가 달려 있는 초록색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

5. 그는 관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 말했다. "이 애굽인이 여자를 이기면 그가 여자를 검으로 죽일 것이고, 여자가 애굽인을 이기면 그녀는 이 나뭇가지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뒤로 물러섰다. 나와 애굽인은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애굽 사람이 내 발을 잡으려고 하자 나는 발로 그의 얼굴을 차버렸다.

6. 그리고 나는 공중으로 떠올랐다. 이제 땅바닥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서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승부가 쉽게 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자 나는 손가락과 손가락이 서로 꽉 끼이도록 두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아채었다. 곧 그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쓰러졌다. 나는 그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의 후원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훈련 감독관에게 가서 나뭇가지를 받았다.

7. 그가 나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딸아, 네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는 영광스럽게 사나비바리아 문porta Sanavivaria[100]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나는 맹수들이 아니라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또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기 바로 전날까지 겪었던 일들이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일어날 일들은 원하는 사람 누군가가 기록하게 되기를!

11

1. 복받은 사람 사투루스도 자기가 본 환상을 직접 글로 써서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우리는 순교를 당하였고 육신으로부터 벗어났다. 네 천사가 우리를 동쪽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은 우리를 만지지 않았다. 우리는 곧바로 위를 향하여 올라갔다. 그런데 마치 가파르지 않은 비스듬한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2. 세상에서 벗어난 우리는 무한한 빛을 보았다. 내가 옆에 있던 페르페투아에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다." 네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큰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장미나무와 온갖 종류의 꽃들로 만발한 정원 같았다. 나무들의 키는 사이프러스 정도 되었는데, 그 나무에서 잎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3. 그 정원에는 다른 네 천사가 있었는데 다른 천사들보다 고귀한 천사들이었다. 그 천사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경의를 표하였다. 그리고는 다른 천사들에게 말했다. "보라! 그들이다. 보라! 그들이다." 경탄을 금치 못한 외침이었다.
4. 그러자 우리를 인도하던 네 천사가 놀라서 우리를 내려놓았다. 거기서 우

---

100)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가는 경기장의 문.

리는 넓은 길을 직접 걸어서 운동장 같은 곳을 통과해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 박해 때 산 채로 화형을 당한 요쿤두스Iocundus와 사투르니누스Saturninus와 아르탁시우스Artaxius를 만났다. 그리고 역시 순교자로 감옥에서 옥사한 퀸투스Quintus도 보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머지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보았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했다. "일단 갑시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인사를 하시오."

12

1. 우리들은 그들과 헤어져서 어떤 장소에 갔다. 그곳의 벽들은 마치 빛으로 지어진 것 같았다. 그 장소의 문 앞에는 네 천사가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흰색으로 된 스톨라[101]를 입혀 주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2. 그곳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머리가 흰 사람처럼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지만 표정은 젊어 보였다. 발은 보이지 않았다.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는 네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장로들이 서 있었다.
3. 우리는 들어가서 감탄하며 보좌 앞에 섰다. 네 천사가 우리를 들어 올렸다. 우리는 그분께 입 맞추었다. 그분이 손을 내밀어 우리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네 장로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시오!"라고 말했다.
4. 우리는 일어서서 그 장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장로들이 말했다. "가서 즐기시오!"
   나는 페르페투아에게 말했다.

---
101) 목에서 발목까지 오는 긴 옷.

"당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페르페투아가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지금 여기서는 훨씬 더 기쁘고 즐겁네요."

13

1.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 그리고 문 앞에서 감독 옵타투스Optatus와 가르치는 장로 아스파시우스Aspasius를 보았다. 옵타투스는 문의 오른쪽에, 아스파시우스는 문의 왼쪽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으며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의 발 앞에 쓰러져 말했다. "우리들 사이에서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오! 당신들은 떠났고 우리를 이런 상태로 세상에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당신은 우리의 장로님이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발 앞에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들을 일으켰다.
2. 페르페투아가 그리스어로 그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을 정원의 장미나무 아래에 함께하게 했다.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이제 좀 쉬어야 한다. 너희 사이에 무슨 불화가 있다면 스스로 용서하고 해결하라. 그들이 너희 일로 인해 상심하고 있지 않느냐?"
3. 이어서 천사들이 옵타투스에게 말했다. "마치 원형경기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네 백성을 책망하라."

곧 그들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곳에서 많은 형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들 중에는 순교자들도 있었다. 말할 수 없이 향기로운 냄새가 충만하여 우리의 피로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속에서 나는 깨어났다.

14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순교자 사투루스와 페르페투아가 본 매우 의미 있는 환상을 직접 기록한 것이다. 세쿤둘루스는 일찌감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세쿤둘루스를 위해 준비되었던 맹수들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 이미 영혼이 떠난 그의 육신에 검이 꽂혔기 때문이다.[102]

15

1. 펠리키타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이러하다. 그때 펠리키타스는 임신 8개월이었다(체포될 당시에 이미 임신 중이었다). 경기장에 끌려 나갈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임신 때문에 순교가 연기될까봐 크게 근심하였다. 임신부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일반 범죄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거룩하고 순전한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2.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순교자들도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 훌륭한 동지였던 그녀를 함께 걸어왔던 소망의 길에서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경기가 열리기 이틀 전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였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펠리키타스에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3. 8개월 만의 조산이라서 그녀의 분만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간수 중의 한 명이 그녀에게 말했다. "애를 낳는 것으로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102) 감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세쿤둘루스는 다른 순교자들보다 먼저 옥사를 했다. 이런 죽음으로 다른 순교자들과 같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쿤둘루스는 죽은 뒤 검을 맞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세쿤둘루스가 원형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다 죽은 다른 순교자들과 같은 순교의 영예를 갖게 되었다.

짐승들에게 던져졌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제사드리기를 거부할 때는 그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지금은 내가 겪어야 할 것을 겪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는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겪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펠리키타스는 딸을 낳았다. 그 아이는 자매 중의 한 사람이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16

1. 성령께서는 경기가 있던 날에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하셨고 또한 그것을 원하셨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교기록에 무엇인가를 보충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성스러운 페르페투아의 권면, 더 나아가서는 그녀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그녀의 의연함과 위대한 정신에 관한 기록을 그녀 스스로가 남긴 기록에 덧붙여 하나의 문서로 만들기로 하였다.
2. 그동안 그들은 경비대장으로부터 더 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경비대장에게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이 마술을 부려 감옥에서 도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충고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페르페투아가 직접 경비대장의 면전에 대고 말하였다. "왜 당신은 시저의 고귀한 죄수들, 특히 그의 생일에 짐승들과 싸우게 될 우리들에게 한 순간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경기장에 끌려 나갈 때 우리의 혈색이 좋아야 당신에게도 영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을 듣자 경비대장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좀더 인간적인 대우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페르페투아의 형제들과 다른 이들이 감옥에 방문해서 우리를 격려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

17

경기 전날 사람들이 '자유의 식사'라 불리는 마지막 식사를 할 때였다.[103]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것을 '자유의 식사'가 아니라 애찬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군중들에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고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큰소리로 외치고 자기들이 받는 수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증거했다. 또한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다. 사투루스가 말했다. "너희들은 내일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를 왜 이제는 보고 싶다고 아우성을 하느냐? 오늘은 친구요, 내일은 적이로다! 그날[104]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얼굴을 잘 보아두라." 그러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18

1. 그들의 승리의 날이 밝았다. 먼저 남성 순교자들이 감옥에서 원형경기장으로 걸어 나갔다. 마치 하늘을 향해 걸어가듯이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떨고 있었다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였다. 페르페투아가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은 광채가 났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같이 우아한 자태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으로 눈을 떨어뜨렸다.
2. 뒤를 이어 펠리키타스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건강하게 분만을 하고 맹수들과 싸우게 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피에서 다시 피로,

---

103) 맹수들과의 시합이라는 판결을 받은 죄수들에게는 경기 바로 전날 공개적으로 성대한 식사가 제공되었다.
104) 마지막 심판날을 말한다.

산파에게서 맹수에게로, 분만 후 받았던 물세례에서 두 번째 세례를 향하여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한 문에 도착하자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받았다. 남자는 사투르누스 제사장의 옷, 여자는 세레스 여신의 사제의 옷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고결한 의연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였다.

3. 페르페투아가 말했다. "바로 이 때문에, 즉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기꺼이 이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놓았다. 이 점은 이미 너희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불의는 의를 이길 수 없는 법이다. 경비 대장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경기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다. 페르페투아는 찬송을 불렀다. 환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그녀는 이미 애굽인의 머리를 발로 밟고 선 것이었다.

4. 레보카투스와 사투르니누스와 사투루스는 구경하고 있는 관중들을 향해 경고하였다. 마침내 힐라리아누스가 그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힐라리아누스에게 손짓과 몸짓을 섞어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관중들이 흥분하여 그들을 맹수들에게 내보내기 전에 먼저 무거운 채찍으로 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였다. 그들은 이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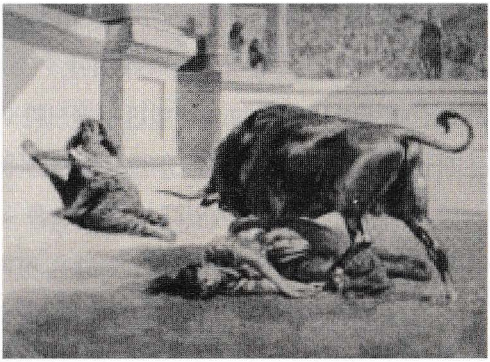
1. 힐라리아누스는 말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순교자들에게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들은 어떤 순교를 택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였다. 그런 후에 사투르니누스가 그들을 대표하여 발표했다. 보다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맹수들에게로 던져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 그 결과 경기가 시작되자 사투르니누스와 레보카투스는 처음에는 표범, 그 다음에는 곰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3. 그런데 사투루스는 평소에 어떤 동물보다도 곰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곰과 싸우기 전에 표범에게 물려 죽게 되기를 원했다. 사투루스가 끌려가 곰 앞에 서게 되었을 때였다. 사투루스를 곰 가까이에 묶어 두던 사람이 곰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그 사람은 경기가 끝난 며칠 후에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사투루스는 경기장에서 끌려 나갔다. 또다시 사투루스가 단상 위에 묶여 곰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번에는 곰이 우리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두 번째로 아무 부상 없이 경기장을 나오게 되었다.

20

1. 젊은 여인들을 위해서는 악마가 매우 사나운 암소를 한 마리 준비하였다. 이는 전에 없던 일이었는데, 그 암소가 유달리 사나웠고 희생자들이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성의 동물을 준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옷을 벗기고 그물에 싸인 채 경기장으로 끌려 나왔다. 관중들이 그들을 보고 경악하였다. 한 사람은 갓 소녀티를 벗은 어린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분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은 젖가슴에서 젖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경기장 밖으로 끌려 나가 긴 천으로 몸을 가려야 했다.
2. 먼저 페르페투아가 암소에게 받쳐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허리로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드러난 넓적다리를 가리기 위해 옆으로 풀어헤쳐진 옷자락을 여미었다. 육체의 고통보다 정숙한 모습을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머리핀을 찾아 풀어헤쳐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했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순교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영광의 순간에 슬퍼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일어서서 땅에 쓰러져 있는 펠리키타스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교

3.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그 순간 관중들의 잔인함은 이 두 여인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녀들은 사나비바리아 문으로 퇴장하게 되었다. 거기서 페르페투아는 당시 세례 준비자이자 그녀를 존경하던 루스티쿠스Rusticus라는 사람의 영접을 받았다. 그녀는 마치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종종 그녀는 성령 안에서 황홀함 가운데 있었다)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언제 암소에게로 끌려가게 되나요?"

4.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녀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 몸에 난 상처의 흔적들과 찢어진 옷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의 형제와 그 세례 준비자 루스티쿠스를 불러오게 해 그들을 권면하였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 실족하지 마십시오."

21

1. 다른 출입문에서는 사투루스가 푸덴스Pudens라는 군사와 말을 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할게요. 내가 기대하고 예언했던 바와 같이 아직 어떤 맹수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곧 다시 그곳으로 나가서 표범에게 단

한 번 물림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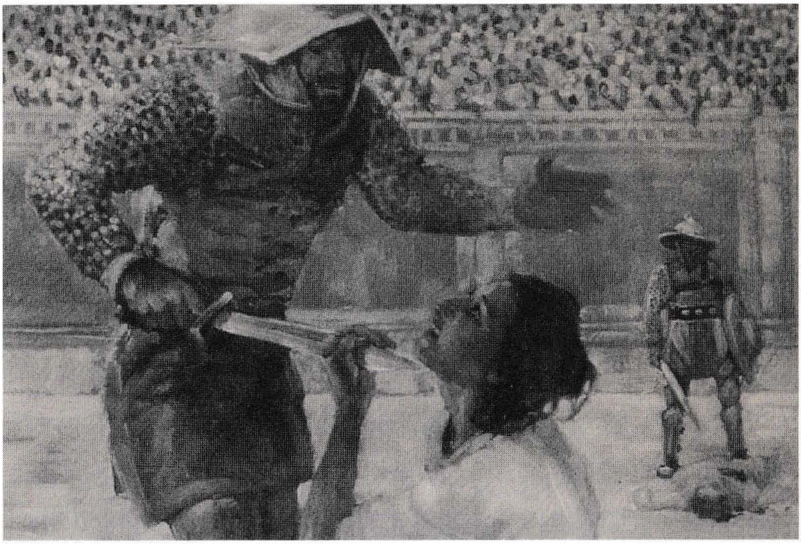
2. 곧 경기의 마지막이 되었다. 표범이 우리에서 풀려 나왔다. 표범의 단 한 번 공격에 사투루스의 몸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와 온몸을 적셨다. 그러자 보고 있던 관중들이 "살붐 로툼, 살붐 로툼salvum lotum"105 하고 소리 치며 사투루스의 두 번째 세례를 증명해 주었다. 이렇게 자기 몸을 피로 씻은 사투루스의 영혼은 참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사투루스는 죽어 가면서 군인 푸덴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일들로 인해 방황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

3. 사투루스는 말을 마치고 푸덴스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 달라고 청했다. 그러고는 푸덴스의 반지를 자기의 흐르는 피에 담갔다가 돌려주었다. 피 묻은 반지는 하나의 유물과 같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푸덴스에게 자신의 피에 대한 보증과 기억을 남겨 놓은 것이다. 곧 의식을 잃은 사투루스는 사형당한 자들을 창으로 찔러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장소로 던져졌다. 관중들은 그들을 가운데로 끌어내라고 요구하였다. 순교자들의 몸에 검이 뚫고 지나가는 순간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그들을 처형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순교자들은 서로 입을 맞추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순교 의식이 평화의 입맞춤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4. 다른 사람들은 꼼짝도 않은 채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칼을 받았다. 환상 중에 제일 먼저 사다리를 올라갔던 사투루스가 첫 번째로 숨을 거두었다. 다음에는 페르페투아 차례였다. 페르페투아는 뼈 사이로 칼이 꽂히며 엄청난 고통을 느끼자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아직 어린 검투사의 미숙

---

105) 그 당시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이 끝난 후에 서로 나누던 인사말로 "건강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교

한 오른손을 잡아 스스로 자기 목에 대 주었다.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하는 그렇게도 위대한 여인의 죽음은 그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5. 오! 참으로 용감하고 복된 순교자들이여! 당신들은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 받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는 사람은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최근의 신앙 증거에 대해서도 읽어야만 한다. 이러한 신앙의 증거들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하여 옛 것들에 비해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새로이 일어난 기적들은 한 분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측량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10

포타미아이나[106]와 바실리데스의 순교

1. 이들 중[107]에 일곱 번째로 바실리데스Basilides의 이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유명한 포타미아이나를 법정으로 호송했던 사람이다. 아직까지도 포타미아이나의 고향에서는 그녀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꾸며 주는 장신구와도 같았던 육체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다. 그녀의 육체의 아름다움이 영혼의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절정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한 그녀는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마지막 고문을 당한 뒤에 어머니 마르켈라Marcella와 함께 화형을 당했다.

---

106)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던 그리스도인 노예였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교도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당했다. 그녀는 뜨거운 역청이 들어 있는 가마솥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7) 유세비우스는 먼저 6명의 순교자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오리겐의 제자들이었으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였다.

2.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퀼라스Aquilas라는 재판관이 먼저 그녀의 온 몸에 가혹한 고문을 가하게 한 후 마지막에는 그녀를 검투사들에게 넘겨주어 욕을 보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녀는 잠시 동안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였다. 그런 다음 무슨 결정을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아마도 매우 무례하게 들릴 법한 말을 했던 것 같다.

3.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녀는 근무 중이던 군인 가운데 하나였던 바실리데스에게 넘겨졌다. 바실리데스는 그녀를 사형장으로 호송하였다. 흥분한 군중들이 험한 말로 그녀를 모욕하며 달려들려고 하자 바실리데스는 그들을 물리치고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에게 깊은 애도와 동정심을 표시하였다. 포타미아이나는 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그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뒤에 그를 위해 주님께 부탁할 것이며 그가 자기에게 베푼 일에 대하여 곧 갚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4. 이 말을 마친 후에 그녀는 의연하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발바닥부터 허벅지까지, 그리고 점차 그녀의 몸 여러 부위에 펄펄 끓는 역청이 부어지기 시작했다.

5. 이렇게 해서 그토록 칭송을 받는 한 소녀의 경기가 끝났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실리데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료 군인들로부터 맹세를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는 맹세를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명확히 대답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실리데스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자 결국 재판관 앞으로 끌려갔다. 재판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기를 거부한 그는 감옥에 갇혔다.

6.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를 찾아와서 갑작스러운 그의 결단에 대해서 묻자 바실리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포타미아이나가 순교한 후 삼일 동안 계속해서 밤에 그에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녀는 바실리데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께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주님께서 바실리데스를 곧 주님 곁으로 데려올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그에게 전해 주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형제들은 곧 그에게 주님 안에서 인을 쳐 주었다.[108] 그리고 다음날 그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고백한 후에 참수되었다.

7. 바실리데스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갑자기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포타미아이나가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기로 하자.

108) '세례를 주었다'는 뜻이다.

11

메트라와 아폴로니아, 많은 사람들의 순교[109]

(디오니시우스[110]가 안디옥의 감독 파비우스에게 보낸 편지)

1

1. 우리에게는 박해가 황제의 칙령으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것은 이미 일 년이 넘습니다. 이미 그 전에 불길한 예언을 하는 어떤 시인이 토속적인 미신을 이교도 무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불타오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대적하도록 그들을 격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흥분하게 된 무리들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기회란 기회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며, 우리의 죽음으로 광분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이요 그들의 신들에 대한 예배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

109) 데키우스 황제 하에서의 박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라 249~251년으로 추정된다.

110)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으며(248~265), 유세비우스, 성 바실리우스 등이 그를 '대 디오니시우스'라고 불렀다.

2

1. 제일 먼저 그들은 메트라Metra라는 노인을 체포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메트라가 그것을 거부하자 그들은 몽둥이로 그를 때렸으며, 뾰족한 꼬챙이로 그의 얼굴과 눈을 찌르고, 교외로 끌고 가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2. 그런 다음 그들은 크윈타Quinta라는 한 경건한 여성을 우상들의 신전으로 끌고 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저주하며 거부하자, 그녀의 두 발을 묶고 거친 돌들이 깔려 있는 도시의 온 마을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커다란 돌에 걸려 넘어지자 그녀를 채찍으로 때리며 교외의 그 장소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3. 그런 다음 그들은 순식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이웃으로 잘 알고 지내던 그들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노략질하였습니다. 귀중품들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하찮은 것이나 목재로 된 것들은 사방에 집어던지며 길거리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4. 이러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시는 마치 적에게 정복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도망하여 피신하였으며 바울이 증거했던 바와 같이[111] 자신들의 소유를 약탈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들의 손에 잡힌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에 그들 중에 지금까지 주님을 부인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

1. 그러나 그때 그들은 덕망 있는 동정녀인 고령의 아폴로니아Apollonia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그녀의 턱을 사정없이

111) 히 10:34.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시 외곽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들의 불경한 말을 함께 따라 하지 않으면 산 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폴로니아는 잠깐 동안만 여유를 달라고 간청하였으며 그것을 허락받은 이후 눈 깜빡할 사이에 뜨거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2. 그 외에도 그들은 세라피온Serapion이라는 사람을 그의 저택 안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세라피온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의 사지를 다 부스러뜨린 후에 머리를 거꾸로 하여 맨 위층에서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밤낮 할 것 없이 어떤 도로나 골목으로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3. 도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경한 말(배교의 말) 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끌고 가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고 쉬지 않고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동과 내전이 그 불행한 자들을 덮치자 우리를 제물로 삼아 날뛰던 그들의 잔인성은 자기들 서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이 식어 있는 동안 잠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4

1.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우리는 우리에게 호의적이던 황실에[112]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113] 우리를 위협해오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이 반포

112) 필리푸스 황제(Marcus Julius Philippus, 204~249)는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것이 확실치 않더라도 그는 최소한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113) 249년 반란을 일으킨 데키우스는 베로나 전투에서 필리푸스 황제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였으며, 그 전투에서 필리푸스를 살해하고 스스로 황위에 올랐다.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114] 우리 주님의 예언이 가장 참담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2. 상류층에 속한 많은 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즉시 (제사장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공직에 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나타나야 했으며, 어떤 이들은 친지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그들은 부정하고 불경건한 제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바쳐질 제물 대신 도살을 당하게 된 것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3. 결국 그들은 에워싸고 있던 무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에도 지나치게 겁이 많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진해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오래 전에 하신 예언은 매우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115]

4.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116] 바로 앞에서 서술한 사람들의 태도 중 하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피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포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사슬에 묶여 감옥에 보내졌으며 더욱이 많은 날들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그들은 미처 재판관 앞에 소환되기도 전에 신앙을 부인하였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자 중 몇 사람은 어느 정도는 고문을 용감히 견디어 냈으나 앞에 놓여 있는 계속될 고통 앞에서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14) 참고. 마 24:24.
115) 참고. 마 19:23, 막 10:23, 눅 18:24.
116) 상류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5

1. 그러나 주님의 복되고 견고한 기둥들은, 주님이 그들을 강건케 하시며 그들의 강한 믿음에 합당하고 일치하는 힘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경탄할 만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율리아누스Iulianus였습니다. 그는 발의 통풍으로 인해 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를 운반해주던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바로 신앙을 부인하였습니다.

2. 유누스Eunus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크로니온Cronion이라는 또 한 사람과 나이 많은 율리아누스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 높이 낙타 등에 태워져서 채찍질을 당하며 온 도시, 당신들도 알다시피 그 큰 도시를 두루 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온 무리에 둘러싸인 가운데 생석회 속에 던져져 불타 죽었습니다.

3. 죽음의 길을 가는 그들의 편에 서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막아주던 베사스Besas라는 군인은 그를 향해 질러대는 군중의 함성과 함께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로서 믿음의 위대한 싸움에서 용맹하게 싸운 뒤 참수되었습니다.

4. 또 한 사람, 리비아 출신이며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진정한 마카르Μάκαρ[117]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회유하였으나 전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산 채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5. 그 후 에피마쿠스Epimachus와 알렉산더Alexander는 사슬에 묶여 오래도록 끔찍한 옥살이를 한 후 고문과 채찍질과 수많은 고통을 당한 뒤 생석회의 뜨거운 불 속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

117) 라틴어로는 Beatus, '축복 받은 자' 라는 뜻.

6

1. 그들과 함께 네 명의 여인들도 같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경건한 동정녀인 암모나리온Ammonarion은 재판관이 그녀에게 명령한 말들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매우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완강하게 자기의 한 말을 지키자 사형장으로 보내졌습니다.
2. 나머지 여인들, 즉 누구보다 존경받던 나이 많은 머큐리아Mercuria와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였으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디오니시아Dionysia는 암모나리온과는 반대로 고문을 당하지 않고 바로 검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총독이 그 여인들을 고문해 보아도 아무런 결실이 없어 오히려 그가 그녀들로부터 받을 패배를 수치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암모나리온은 그 여인들의 대표자로서 맨 앞에서 모두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문을 감당하였습니다.

7

1. 이집트인 헤론Heron, 아터Ater, 이시도루스Isidorus, 그리고 그들과 함께 15세 즈음의 소년이었던 디오스코루스Dioscorus가 재판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재판관은 제일 먼저 소년 디오스코루스를 심문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말로 생각을 바꾸도록 회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고문으로 아직 여린 그의 신체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설득이나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가혹한 매질을 당한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고문들을 용감하게 감당한 후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2.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빛나던 소년, 그에게 주어진 질문에 지혜롭게 답하던 디오스코루스에게 재판관은 몹시 감탄하여 그가 아직 어린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생각을 바꿀 기간을 주겠다는 언급과 함께 그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디오스코루스는 더욱 더 격렬하고

오래 지속될 전투를 위해 남겨져 지금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3. 또한 처음에 도적들의 한 패로 잘못 고발당했던 네메시온Nemesion이라는 이집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 앞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은 후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하여 결박된 채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그 재판관은 그에게 다른 도적들보다 두 배나 더 가혹하게 고문과 매질을 가한 후에 도적들과 같이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축복받은 그는 그리스도의 본[118]을 따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8

1. 뿐만 아니라 한 부대의 전 군인들, 즉 암몬Ammon, 제노Zeno, 프톨레메우스Ptolemaeus, 잉게누스Ingenuus, 그들과 함께 나이 많은 테오필루스Theophilus가 총독 관저 앞에 정렬해 있었습니다.

2.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법정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곧 신앙을 부인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있던 그들은 이를 갈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기도 하면서 온 몸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하게 되자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체포하기 전에 먼저 법정으로 달려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3. 이런 일이 벌어지자 총독과 배석하고 있던 그의 보좌관들은 놀라서 기겁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당사자들 자신은 참으로 의연하고 당당한 반면에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선凱旋하는 것처럼 그들은 총독 관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증인이 된 것으로 인하여

118)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9

1. 그 밖에도 온 도시와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교도들로부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 언급하겠습니다. 이스키리온Ischirion은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관리해주는 고용주로부터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종하지 않자 주인은 처음에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자 나중에는 각종 폭력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꿋꿋이 견디어내자 주인은 끝이 뾰족한 큰 막대기를 집어 들어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막대기는 그의 배를 관통하였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10

1. 그 밖에도 광야와 산을 헤매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질병, 도적들과 맹수들로 인해 죽임을 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선택과 승리의 증인들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2. 고령의 노인 케레몬Chaeremon은 나일이라는 도시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라비아산으로 피신하였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온 산을 샅샅이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산에서 야만적인 사라센 사람들에게 잡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비싼 몸값을 치르고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1.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쓸데없이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끔찍한 재앙들 가운데 있는지 당신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한 자들이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옆에 앉아 있으며 그분과 함께 통치하며 함께 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장차 그 자리에 있게 될 우리의 훌륭한 예비 순교자들은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죄를 지은 우리의 배교한 형제들을 몇 명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죽음보다 회개를 더 원하시며[119] 기뻐하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배교를 회개하고 개심한 그들을 받아들여 교제하며 모임에 허락하고 기도와 식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

119) 참고. 겔 18:23, 33:11, 벧후 3:9.

12

피오니우스의 순교

거룩한 장로 피오니우스와 그 동료들의 순교

1

1. 사도는 거룩한 자들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데 함께 참여하라고 권면하였다. 온전히 신앙에 전심하였던 그들의 행적을 기념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더더욱 피오니우스의 순교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도적인 인물은 지상에 살아 있을 때에는 많은 형제들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었으며,[120]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순교했을 때에는 이 기록을 남겨 놓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까지도 이것을 그의 가르침의 기념물로 가지고 있다.

---

120) 참고. 약 5:20.

2

1.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던 해[121] 여섯 번째 달 둘째 날[122] 대안식일, 순교자 폴리캅의 기념일에 장로 피오니우스와 거룩한 사비나, 아스클레피아데스, 마케도니아와 교회 장로인 림노스가 체포되었다.
2. 그러나 피오니우스는 폴리캅의 기념일 전날부터 그들이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다.
3. 폴리캅의 기념일 전날 사비나와 아스클레피아데스와 함께 금식하고 있을 때 그는 다음날 그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세 개의 밧줄을 가져다 하나는 자기 목에, 또 하나는 사비나의 목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스클레피아데스의 목에 걸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러 오게 될 사람들을 맞이하였다.
4. 그들이 목에 밧줄을 걸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는 어떤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3

1. 안식일에 그들이 기도를 하고 거룩한 떡과 물을 먹고 난 후, 성전을 지키는 자인 폴레몬이 무리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수색하고 찾아내어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

121) 서기 250년.
122) 3월 11일.

2. 성전 관리자가 말했다.
"당신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황제의 명령을 알고 있는가?"
3.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알고 있습니다."
4. 폴레몬이 말했다.
"포룸으로 가자. 거기서 내 말이 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비나와 아스클레피아데스가 말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입니다."
5. 폴레몬은 아무 저항 없이 그들을 포룸으로 인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순식간에 군중들이 몰려들어 서로 밀치고 부딪치며 소동을 일으켰다.
6. 그들이 포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그리고 근처에 있는 주택의 지붕 위까지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헬라인과 유대인과 여자들로 넘쳐났다. 그 날은 사람들이 일에서 해방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다.
7. 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의자와 상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기까지 하였다.

4

1. 폴레몬이 그들을 가운데 세워 놓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자 피오니우스가 환한 얼굴로 손을 내밀어 다음과 같이 변증하였다.
"멜라스 강가에 살며 서머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호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여, 또한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다면 당신들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주기 바랍니다.

3. 당신들은 자청해서 제사를 드리기로 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의 우스갯거리로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4. 그리스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스승인 호머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죽는 자들과 자기를 비교해 으스대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권면했습니다.

5. 그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123]

6. 또한 당신들은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124]

7. 어찌되었든 나는 나의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우고 가르친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8.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은 채 도대체 누구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인간이며 더욱이 불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9.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된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

123) 출 23:5.
124) 잠 24:17.

10. 혹시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이 범한 죄악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과 자진해서 죄를 짓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125]

11. 누가 유대인들에게 바알브올에게 제사드리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126] 죽은 자들의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방인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127] 아들과 딸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있나요?[128] 또는 하나님께 불평하라거나 모세를 원망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129] 선을 베푼 자의 은혜를 잊으라고 하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하였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말하며,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등 여러 죄악을 행하라고 강요하였습니까?[130]

12. 이방인들이여, 그들은 당신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사사기와 열왕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그밖에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모든 것을 읽게 하십시오.

13.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강요받기도 전에 스스로 제사드리러 갔느냐고 그들이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 몇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 전체를 정죄할 것입니까?

14. 현재의 상황을 추수한 밀이 가득한 타작마당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알곡의 양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쭉정이가 더 많을까요? 농부

---

125) 참고. 히 10:26.
126) 참고. 시 106:28.
127) 참고. 겔 16:27.
128) 참고. 시 105:37, 렘 7:31, 겔 23:39.
129) 참고. 출 15:24, 16:2, 민 14:27, 21:5, 16:3.
130) 참고. 출 32:1 이하, 시 105:19.

가 타작마당을 정리하려고 까부르는 기구를 가지고 오면 그때 쭉정이는 가벼우므로 바람에 날려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는 알곡만 남을 것입니다.[131]

15. 또한 바다에 던져진 그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물에 걸린 모든 것이 값이 나가는 귀한 물고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6.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 모두가 의인이든 불의한 자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당신들은 어떻게 그 죄의 형벌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당신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불의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겠습니까?[132]

17. 지금 세상에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133] 많은 전조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18. 나는 유대 전 지역을 여행하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가 보았을 때 거기서 나는 폐허가 된 그 땅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134]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내쫓으며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19. 나는 그 땅에서 지금까지도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

131) 참고. 마 3:12.
132) 참고. 잠 11:31, 벧전 4:18.
133) 참고. 요 12:31.
134) 참고. 창세기 19장.

땅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인해 완전히 메말라 버렸으며 어떤 열매나 한 방울의 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 또한 나는 사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그곳의 바닷물은 자연적인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물은 어떤 생명체도 키울 수 없으며 어떤 물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물 속으로 들어가면 물은 그것을 다시 위로 밀어냅니다. 사람의 몸도 물 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람들로 인해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바닷물이 사람이 물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21. 이 이야기가 당신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여, 당신들은 데카폴리스의 리디아 땅이 완전히 불로 타버려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트나와 시실리, 리키아와 다른 섬들의 땅 속에서 뿜어 나오는 불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피오니우스가 순교한 지역, 스미르나(성경 지명은 서머나)의 광장

22. 만약 이러한 예조차도 당신들과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뜨거운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데운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땅 속에서 솟아나는 온천물 말입니다. 땅 속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불을 지필 것이며 어디에서 그 물을 데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3. 또한 대화재와 큰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들이 잘 아는 듀칼리온의 경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으나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전체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불의 심판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금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5

1. 피오니우스는 이 밖에도 오랫동안 많은 말을 하였다. 성전 관리자와 그를 돕는 자들과 모든 군중이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2. 그때 피오니우스가 자기가 한 말을 다시 한 번 반복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금으로 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다.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 그들 주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폴레몬과 함께 피오니우스에게 이렇게 말하며 간절히 호소하였다.

3. "피오니우스,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풍성과 의를 볼때 당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아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빛과 그 밖의 다른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은 아름다

운 일이 아닌가요?"

4. 피오니우스가 그들을 향해서 대답했다. "산다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에는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저 세상의 삶은 더 아름답습니다.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의 빛이야말로 참 빛이지요.

5.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열망하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미워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것들과 비교해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이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

1. 그곳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매우 교활한 변호사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오, 피오니우스."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내 말을 들어 달라는 나의 요청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2. 알렉산더는 그를 조롱하려고 반어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왜 밧줄을 목에 걸고 있는 것입니까?"

3.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첫째, 우리가 당신들의 도시를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금지된 음식을 먹으러 온 것으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질문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메시스 성전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했음을 당신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우리를 강제로 사로잡아 끌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밧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밧줄에 묶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군요."

4. 알렉산더는 침묵하였다. 또다시 사람들이 피오니우스에게 호소하자 그는 다시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오니우스는 많은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5.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들이 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이 모든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7

1. 군중들은 극장에 모여 피오니우스의 이야기를 좀더 듣기 원했다. 그러나 사령관의 몇몇 친구들이 성전 관리자 폴레몬에게 다가가 말했다.
"피오니우스가 말하도록 허락하지 마시오. 군중들이 극장 안으로 몰려가면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소원과 소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2. 이 말을 듣고 폴레몬이 말했다.
"피오니우스, 제사드리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네메시스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시오."
그러나 피오니우스는 대답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당신들의 신들에게 이롭지 못할 겁니다."

3. 폴레몬이 말했다.
"나의 말을 따르시오, 피오니우스."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할 수만 있다면!"

4.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산 채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죽은 뒤에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5. 이 말을 듣고 사비나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성전 관리자와 그의 부하들이 말했다.

"지금 웃고 있는 것인가?"

사비나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웃게 될 것입니다."

6. 그들이 사비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사드리기를 거부하는 여자들은 사창가로 보내게 되어 있다."

사비나가 말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8

1. 폴레몬이 다시 피오니우스에게 말했다.

"나의 말을 들으시오, 피오니우스."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설득하거나 처벌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설득하지 못할 테니 처벌하십시오."

2. 성전 관리자 폴레몬이 피오니우스에게 대답했다.

"제사를 드리라, 피오니우스."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 폴레몬이 말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인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135] 우리 모두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136]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압니다."

4. 폴레몬이 말했다.

"최소한 황제께라도 제사를 드리라."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9

1. 그러자 폴레몬은 기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였다.

"이름이 무엇인가?"

서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피오니우스입니다."

2. 폴레몬이 질문했다.

"그리스도인인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예."

성전 관리자 폴레몬이 물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거룩한 공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계

135) 참고. 행 4:24.

136) 참고. 딤전 6:17.

시지 않습니다."

3. 다음에 그는 사비나에게로 갔다. 그전에 피오니우스가 먼저 사비나에게 말했다.

"이름을 '테오도테'라고 하시오."

이는 사비나가 그녀의 전 주인이었던 폴리타라는 악한 여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4. 그 여자는 고르디아누스 황제 시절에 사비나의 믿음을 꺾기 위해 그녀를 묶어 산에 버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비나는 거기서 비밀스럽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로 형제들은 사비나를 속박과 그녀의 주인 폴리타로부터 구해 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사비나는 피오니우스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이번 박해가 왔을 때도 피오니우스와 함께 체포되었던 것이다.

5. 폴레몬이 사비나에게 물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그녀가 대답하였다.

"테오도테입니다."

그가 물었다.

"그리스도인인가?"

그녀가 대답하였다.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6. 폴레몬이 물었다.

"당신의 교회는?"

사비나가 대답했다.

"거룩한 공 교회입니다."

폴레몬이 물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누구인가?"

사비나가 대답했다.

"하늘과 땅과 우리 모두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7. 다음에는 폴레몬이 아스클레피아데스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아스클레피아데스가 대답했다.

"아스클레피아데스입니다."

폴레몬이 말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스클레피아데스가 말했다.

"예."

8. 폴레몬이 말했다.

"어떤 교회 소속인가?"

아스클레피아데스가 대답했다.

"거룩한 공 교회입니다."

폴레몬이 물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아스클레피아데스가 대답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 폴레몬이 말했다.

"그는 같은 신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신인가?"

아스클레피아데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10

1. 이렇게 말을 주고받은 후에 그들은 감옥에 보내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들의 뒤를 따라가서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 어떤 사람들이 피오니우스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말했다.
"그는 항상 창백해 보였는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혈색이 좋을 수 있는 것일까?"

3. 군중들이 심하게 밀치는 바람에 사비나는 피오니우스의 옷을 붙잡고 있었다. 그것을 본 몇몇 사람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 여자, 어머니한테서 떨어질까봐 겁먹은 아이처럼 겁먹고 있는 것 좀 보시오."

4. 누군가가 소리 쳤다.
"제사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저들이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폴레몬이 말했다.
"그러나 법은 우리가 그런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소."

5. 또 누군가가 말했다.
"보라! 저 사람은 제사드리러 몰래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아스클레피아데스를 가리켜 한 말이었다.

6.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분명히 제사를 드렸다."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피오니우스입니다."

7.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얼마나 참혹한 형벌인가! 참으로 그러하도다!"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이러한 형벌은 당신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형벌로 기근

과 잔인한 죽음을 비롯한 모든 재앙들을 경험하였습니다."

8.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굶기는 당신도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었는가?"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11

1. 피오니우스가 이 말을 하자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도록 간수들에게 넘겨 주었다.

2. 감옥에 들어온 그들은 공 교회의 장로인 림누스라는 사람과 카리네 마을에서 온 마케도니아 여자와 프리기아 이단 종파에 속한 유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이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감옥을 지키던 자들이 피오니우스와 그 일행이 이들을 위해 믿는 자들이 가져온 것들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오니우스가 이렇게 말했다.

"더 많은 것이 부족했을 때에도 우리는 누구의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4. 그러자 간수들이 분노했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로부터 아무 선물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난 간수들은 그들을 더 깊은 감옥으로 보내 버렸다.

5.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함을 잃지 않았으며 간수들에게는 평소와 같이 친절하게 대하였다. 그러자 간수장의 마음이 바뀌어 그들을 전에 있던 감옥으로 다시 보내 주었다.

6. 피오니우스 일행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7.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며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2

1. 그들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설득하러 찾아오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을 들은 이방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2.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강제로 감옥에 끌려 와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한 순간도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건한 생활로 명성을 얻고 있던 자들이 더욱 그러했다. 그러자 피오니우스는 울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3. "나는 지금 또 다른 종류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온 몸의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듯합니다. 교회의 진주가 돼지의 발 아래 짓밟히며,[137] 하늘의 별들이 용의 꼬리로 인해 땅에 떨어지고,[138]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은 포도나무가 돼지 한 마리로 인해 파헤쳐지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열매를 따 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139]

4.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140] 나의 어린 젖먹이들은 험한 길로 행하였습니다.[141]

5. 이제 다시 파렴치한 장로들이 수산나를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합니다.[142]

---

137) 참고. 마 7:6.
138) 참고. 계 12:4.
139) 참고. 시 80:12.
140) 갈 4:19.
141) 참고. 외경 바룩서 4:26.
142) 참고. 외경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수산나에 관한 이야기.

6. 하만은 다시 마시고 있으며, 에스더와 도시 전체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143]

7. 이제 다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144]

8. 그렇다면 모든 처녀들이 다 졸고 잠든 것인가요?[145]

9.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146]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 또한 나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내준다'는[147]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11. 실로 사탄은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요구하였습니다.[148] 그리고 타작마당을 깨끗게 할 불과 타작 기구가 하나님 말씀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149]

12. 소금은 그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150]

13.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여, 주님이 실패하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14.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151]

---

143) 참고. 에 3:15.
144) 참고. 암 8:11.
145) 참고. 마 25:5.
146) 눅 18:8.
147) 막 13:12.
148) 참고. 눅 22:31.
149) 참고. 마 3:12.
150) 참고. 마 5:13.
151) 참고. 사 59:1~2.

15.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서로를 배신하고 고소함으로써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파멸시켰습니다.
16.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했는데도 말입니다.[152]

13

1. 유대인들이 여러분 중 몇 사람을 그들의 회당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중하고 고의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53]
2. 당신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사람이었다. 그는 범죄자로서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손에 피가 가득했던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되지 마십시오.[154]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155]
3. 당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4.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질문에 답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자라면 그런 범죄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5. 어떻게 그런 범죄자의 제자들이나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 선생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6. 어떻게 그런 범죄자의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152) 참고. 마 5:20.
153) 참고. 막 3:29.
154) 참고. 사 1:10, 15.
155) 참고. 마 23:37, 행 7:52.

기적들은 무엇인가요?

7.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부르는 그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8.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접신술을 행하며 십자가로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오는 마술을 부렸다고 말합니다.
9. 그들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자는 과연 의로운 자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14

1. 유대인들이 마치 무슨 새로운 것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 왔던 것들이며, 더욱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2.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죽은 자의 영과 접하는 일을 하는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156]
3. 곧 그 여인은 겉옷을 입고 있는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으며,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아보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하여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4.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점치는 여인이 과연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었을까요?
5. 만약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악이 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6.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녀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예수 그리

156) 참고. 삼상 28:11.

스도께 대해서도 그런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7. 성경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악한 점쟁이 즉 악령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157] 거룩한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을까요? 열등한 것은 위대한 것의 명령을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8.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아무 영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결코 아닙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9. 누구든지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들이 그를 도우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종 마약을 만드는 자들, 마술사들, 점쟁이들, 예언자들에게 사탄의 일꾼들이 달려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10.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158] 실로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접신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무덤에서 불러 올린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자신을 사무엘로 가장하여 그 여인과 믿음 없는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12. 성경이 이것을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영이 사울에게 '내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59]

13.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있겠습니까? 사울은 자신

157) 참고, 눅 16:22.
158) 고후 11:14~15.
159) 참고, 삼상 28:19.

을 속이고 그의 주인이 된 악한 귀신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은 사무엘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14.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서 불러 올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160] 그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15. 당신들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반박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무런 강요 없이도 간음을 행하며[161]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행한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강한 것 아닌가?'

16. 나의 형제들이여, 절망에 빠져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말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다시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15

1. 그가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서둘러 감옥을 떠나라고 명령한 뒤에 성전 관리자 폴레몬이 기병 대장 테오필루스와 한 무리의 군인들과 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나타났다. 그들이 말했다.

2. "당신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육테몬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당신들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레피두스와 육테몬이 지금 당신들에게 네메시스 성전으로 오라고 요청하고 있다."

3. 피오니우스가 말했다. "감옥에 갇혔던 자들은 총독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의 임무를 대신하고 있

---

160) 참고. 행 1:9.
161) 참고. 유 7.

는 것입니까?"

4. 그러자 그들은 짜증을 내며 감옥을 나가더니 군인들과 군중들을 이끌고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기병 대장 테오필루스가 거짓으로 말했다. "총독이 당신들을 에베소로 보내라는 명령을 보내 오셨다."

5.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총독이 보낸 사람을 이리로 오게 해서 그가 우리를 직접 데려가게 하십시오."
기병 대장이 말했다. "황제의 장교는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는 당신을 데려갈 권한이 있다."

6. 말을 마친 후에 그는 피오니우스를 붙잡아 천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피오니우스는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런 다음 그는 피오니우스를 다른 병사의 손에 넘겨 주었다.

7. 그들은 광장으로 갔다. 사비나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였다. 그들은 큰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는 성전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여섯 명의 군인이 피오니우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머리를 거꾸로 한 채 끌고 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무릎으로 군인들의 옆구리를 차며 그들의 손과 발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6

1. 군인들은 소리를 지르는 피오니우스를 강제로 끌고 가 성전의 제단 앞에 던져 놓았다. 그곳에는 이미 제사를 드린 육테몬이 서 있었다.

2. 레피두스가 말했다.
"피오니우스, 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피오니우스 주위의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3. 레피두스가 말했다.

"당신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4. 레피두스가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를 말하는 것인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5. 이 말을 듣고 장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레피두스는 그리스도를 저주하였다.

6. 피오니우스가 큰소리로 외쳤다.

"당신들은 신앙을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최소한의 동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당신들 자신의 법을 위배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불순종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야말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처벌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17

1. 그 옆에 루피누스Rufinus라는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뛰어난 웅변술로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 피오니우스의 말을 듣던 그가 말했다. "멈추시오, 피오니우스. 이제 바보짓은 그만 두시오."

2. 피오니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것이 당신의 수사학인가요? 이것이 당신의 책에서 배운 것인가요? 소크라테스도 아테네인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아뉘투스Anytus와 멜레투스Meletus입니다.

3. 당신 견해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티데스와 아낙사르쿠스를 비롯

한 다른 모든 이들은 바보였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용기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4. 루피누스는 이 말을 듣고 침묵했다.

18

1. 그곳에는 이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지닌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와 루피두스가 말했다. "피오니우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오."
2. 피오니우스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우리 스스로 불에 뛰어들 테니, 장작더미를 준비하시오."
3. 군중 가운데서 테렌티우스라는 사람이 소리쳤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드리지 않도록 부추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오?"
4. 마침내 그들의 머리 위에 관이 씌워졌다.[162]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뜯어서 던져 버렸다.
5. 사제가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감히 누구에게도 접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고기를 먹어 버렸다.
6.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감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군중들은 조롱하며 따귀를 때렸다.
7. 누군가가 사비나에게 말했다. "왜 당신은 고향에서 죽지 못했는가?" 사비나가 대답했다. "나의 고향이 어디란 말인가? 나는 피오니우스의 누이다."

162) 이때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머리에 화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다.

8. 아스클레피아데스에게 검투사 시합의 책임자였던 테렌티우스가 말했다. “당신이 판결을 받고 나면 당신을 내 아들의 시합 상대로 요청할 것이오. 그러면 당신은 내 아들과 일 대 일로 시합을 하게 될 것이오.”
9. 아스클레피아데스가 그에게 말했다. “그런 말로 나를 겁주지는 못할 것이오.”
10.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피오니우스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군인 한 명이 그의 머리를 세게 때려서 부상을 입혔다. 피오니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 그러자 그를 때린 군인의 손과 옆구리가 매우 부어올라서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12. 그들은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킬 수 있었으며, 어떤 원수도, 심지어 배신자 육테몬도 그들을 조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찬양과 기도로 서로를 계속 격려하였다.
13. 후에 육테몬이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려 왔다. 그는 작은 양 한 마리를 네메시스 성전으로 가지고 와 불에 구워진 양고기를 먹은 후에 남은 고기를 전부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했다.
14. 또한 그는 그의 거짓 맹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는 머리에 관을 쓰고 황제의 수호신과 운명의 여신에게 맹세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자신이 신앙을 부인한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했다고 했다.

19

1. 며칠 후에 총독이 서머나로 돌아왔다. 총독에게 소환된 피오니우스는 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법정의 서기들이 그것을 기록하였다. 3월 12일의 일이었다.

2. 재판관석에 자리한 총독 퀸틸리아누스가 질문했다.

"이름이 무엇인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피오니우스입니다."

3. 총독이 말했다.

"제사를 드리겠는가?"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4. 총독이 물었다.

"어떤 종교 혹은 종파에 속해 있는가?"

그가 대답했다.

"거룩한 공회입니다."

5. 총독이 물었다.

"무슨 '공회'을 말하는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거룩한 공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의 장로입니다."

6. 총독이 물었다.

"당신은 그 교회의 교사 중 한 명인가?"

그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교사였습니다."

7. 총독이 물었다.

"어리석음을 가르치는 교사였는가?"

그가 대답했다.

"경건을 가르쳤습니다."

8. 총독이 물었다.

"어떤 경건을 말하는가?"

.

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경건입니다.”

.

라.”

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

신들을 경외하고 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
무엇 때문에 공중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공중에 제

대답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신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었는지 말하라.”

“마음을 바꾸라. 무엇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니다.”

3. 총독이 말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살아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제사드리지 않겠습니다.”

4. 총독이 말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마음을 돌리라.”

그가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5. 총독이 그에게 물었다.

답했다.

다."

는 제우스 신이시다. 그분은 모든 신들의 왕이시다."

20

이 없었다. 고문대에 매달려 있는 그에게 물었다.

가?"

다."

에 다시 한 번 고문이 가해졌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 가려고 하는가?"

그가 대답했다.

"죽음을 향해 달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

6. 총독 퀸틸리아누스가 말했다.

"당신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면서 별로 한 일이 없다. 맹수들과의 참여하는 자들도 소액의 돈 때문에 죽음을 무시한다. 당신은 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빨리 죽기를 소망한다면 화형을 당해야 할 것이다."

7. 서판에 적힌 판결문이 라틴어로 낭독되었다.

"피오니우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그를 로 화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신들을 섬

공중에 제

하늘에 있는

시다.”

다.

게 말했다.

"마음을 바꾸라. 무엇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3. 총독이 말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살아 있으며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제사드리지 않겠습니다."

4. 총독이 말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마음을 돌리라."

그가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5. 총독이 그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 가려고 하는가?"

그가 대답했다.

"죽음을 향해 달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6. 총독 퀸틸리아누스가 말했다.

"당신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면서 별로 한 일이 없다. 맹수들과의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도 소액의 돈 때문에 죽음을 무시한다. 당신은 단지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빨리 죽기를 소망한다면 산 채로 화형을 당해야 할 것이다."

7. 서판에 적힌 판결문이 라틴어로 낭독되었다.

"피오니우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그를 산 채로 화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그가 대답했다.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경건입니다."

9. 총독이 말했다.

"제사를 드리라."

그가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10. 총독이 말했다.

"우리는 모든 신들을 경외하고 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긴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공중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공중에 제사를 드리라."

11.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나는 공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2. 총독이 말했다.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말하라."

피오니우스가 대답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13. 총독이 말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제우스 신이시다. 그분은 모든 신들의 왕이시다."

20

1. 피오니우스는 말이 없었다. 고문대에 매달려 있는 그에게 물었다.

"제사를 드리겠는가?"

그가 대답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2. 피오니우스의 손톱에 다시 한 번 고문이 가해졌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마음을 바꾸라. 무엇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3. 총독이 말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살아 있으며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제사드리지 않겠습니다."

4. 총독이 말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마음을 돌리라."

그가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5. 총독이 그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 가려고 하는가?"

그가 대답했다.

"죽음을 향해 달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6. 총독 퀸틸리아누스가 말했다.

"당신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면서 별로 한 일이 없다. 맹수들과의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도 소액의 돈 때문에 죽음을 무시한다. 당신은 단지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빨리 죽기를 소망한다면 산 채로 화형을 당해야 할 것이다."

7. 서판에 적힌 판결문이 라틴어로 낭독되었다.

"피오니우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그를 산 채로 화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21

1. 그는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차 서둘러 원형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벗었다. 그 옆에는 간수가 서 있었다.
2.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한 그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는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고는 나무기둥에 자신의 몸을 세우고 군인들이 못질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맡겼다.
3. 못질을 한 후에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다시 한 번 말했다. "생각을 바꾸시오. 그러면 못을 뽑아줄 것이오."
4. 그가 대답했다. "내 몸에 못이 박힌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는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러자 사람들이 그가 박힌 나무기둥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마르시온파에 속한 메트로도루스Metrodorus라는 사제의 처형대를 일으켜 세웠다.
6. 피오니우스는 오른쪽에, 메트로도루스는 왼쪽에 세워졌다. 두 사람은 다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7. 사람들이 땔감을 가져와 나무토막을 원형으로 쌓아 올렸다. 피오니우스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그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8. 그러나 그는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그는 눈을 떴다.
9.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아멘'을 소리 내어 말했다. 그러고는 아무런 고통 없이 잠들듯이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불의하게 심판을 받은 모든 피와 영혼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였다.

22

1. 이것이 피오니우스의 순결하고 흠 없고 정결한 생애의 마지막이었다. 그러한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이신[163]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가 받을 만한 것이었다. 큰 전투에서 승리한 그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넓고도 밝은 빛에 이른 것이다.
2. 실로 그가 받은 면류관은 그의 시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불이 다 꺼진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경기자의 모습과 같이 남겨진 그의 시신을 볼 수 있었다.
3.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의 귀는 뒤틀려 있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턱수염은 한창 젊은 사람의 것과 같았다.
4. 그의 얼굴은 놀라운 은혜로 빛나고 있어서 그곳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으며, 믿음을 잃었던 자들은 양심의 고통 속에서 후회하며 신앙으로 돌아왔다.

23

이 순교의 사건은 황제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아우구스투스가 두 번째 집정관 임기 중이었으며, 베티우스 그라투스가 또한 집정관이었던 해, 그리고 율리우스 프로쿨루스 퀸틸리아누스가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해,[164] 로마력에 의하면 3월 11일, 아시아력에 의하면 여섯 번째 달 19일 안식일 열 번째 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 순교의 사건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어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163) 참고. 딤전 2:5.
164) 서기 251년.

13

아카키우스[165]의 재판기록

1

1. 하나님의 종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심한 고통 중에서 인내하고 있는 자를 지켜 보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2. 데키우스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집정관 권한 대행 마르키아누스 Marcianus는 그리스도교를 매우 적대시하였다. 마르키아누스는 아카키우스가 그 지방의 그리스도교 보호자이며 그리스도교인들의 피신처라는 말을 듣자 그를 연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아카키우스가 법정 안으로 들어

165) 안디옥과 프리기아의 감독이었던 아카키우스는 매우 경건하고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자선 행위로 인해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선한 천사' (Agathangelus)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Thaumaturgus)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였다. 그가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데, 이 재판 후에 방면되어 251년경에 일반사(一般死)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자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로마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황제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3.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황제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처럼 황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며 백성들을 의로 다스리고 그의 제국이 평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군대의 안녕과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4.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바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충성심을 황제께서 더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황제를 위해 제사를 드려라."

5. 아카키우스가 말했다.
"나는 참되시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께 황제의 안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우리 또한 그에게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인간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6. 마르키아누스가 대답했다.
"너는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냐? 우리도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카키우스가 말했다.
"나는 총독님이 정말 유익한 것과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7.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그 신의 이름을 말해보아라."
아카키우스가 말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8.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그것은 여러 신들의 이름이 아닌가?"
아카키우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참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9.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란 말이냐?"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그룹과 스랍 위에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아도나이)이십니다."

10.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그룹과 스랍이 무엇이냐?"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높고 높은 보좌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2

1.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어떤 허황된 철학적 주장이 당신을 현혹하였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신들을 받아들여라."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총독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2.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아폴론이시다. 아폴론은 기근과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며, 그분을 통하여 온·세상이 보존되고 다스림을 받는다."

3.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당신들이 미래의 일을 해석한다고 믿는 신 아폴론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어린 소녀에 대한 사랑에 불타올라 그

렇게도 소원하던 사랑의 대상을 자신이 죽이게 될 줄 알지 못한 채 정신 없이 달려가던 그 신이 아니던가요? 그러한 것도 알지 못하는 자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녀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자는 신일 수 없습니다.

4. 그가 겪은 것은 그런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운의 신은 곧 더 잔인한 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소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히아킨투스라는 소년의 미모에 반해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아폴론은 자신이 살리기 원했던 그 소년을 원반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5. 게다가 그는 넵튠에게 봉사하기도 했으며 다른 신의 짐승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벼락을 맞은 아이스쿨라피우스Aesculapius, 정숙하지 못한 비너스, 또한 그런 생활과 그것에 따르는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6. 모방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경멸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내가 숭배해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 그들이 했던 행동을 지금 그대로 한다면 당신들의 엄격한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처벌을 하면서 같은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숭배하는 것이 당신들은 가능한가요?"

7.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지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버릇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신들에게 기꺼이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네가 나와 함께 제우스 신과 유노 여신에게 가기를 명령한다."

8.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그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무덤이

크레타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3

1.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도둑질하는 데 익숙한 달마티아인들도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좁은 길목이나 으슥한 장소에 매복해 있으면서 사람들을 해칠 기회를 엿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누구라도 그곳으로 발을 디디면 돈이나 생명을 내놓으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그를 협박합니다. 거기서 이치에 맞는 것을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강요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이 문제입니다.

2. 나에게 불의를 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죽음으로 협박하는 총독님의 판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의 법은 부랑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동성 연애자, 사기꾼, 살인한 자를 처벌합니다. 내가 만일 그런 죄목 중 하나로 고발당한다면 총독님보다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단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법이 아닌, 재판자의 자의에 의한 것입니다.

3. 선지자가 경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166] 그러므로 총독님은 총독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

166) 참고. 시 14:2, 3, 53:2, 3.

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167] 그리고 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68]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4.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나는 판결이 아니라 강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처벌받을 것임을 명심하여라."

5.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총독님께서 연약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 얼마 안 있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육체는 곧 썩어져 벌레들에게 먹혀 버릴 한 인간을 섬긴다면 더욱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 [169]

4

1.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항상 바라고 있었다. 너는 자신도 모르게 너희들의 신념과 율법의 잘못된 점을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네가 말한 것처럼 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냐?"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

167) 마 7:2.
168) 참고. 롬 2:1.
169) 참고. 마 10:33, 24:30, 벧전 4:5.

2.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신의 아들은 누구인가?"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3.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란 말이냐?"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총독님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4.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보아라!"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그 아들은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났느냐?"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함으로써 아들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여자와 접촉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진흙으로 사람의 신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온전한 형상을 완성하신 다음에 영과 혼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쳤다.'"[170]

---

170) 참고. 시 45:1.

6.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신이 육체를 가졌느냐?"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7.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만약 그에게 육신이 없다면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신체가 없이는 생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지혜는 사람의 신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몸이 생각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8.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너는 옛 종교를 믿던 프리기아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신들에게 돌아서서 우리와 같이 제물을 드리지 않느냐? 너도 빨리 순종하도록 하라!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소집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 황제의 종교를 따르라! 너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너와 함께 가게 하라!"

9.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이들은 모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 때는 나의 말을 듣지만 반대로 내가 잘못되거나 해로운 것을 주장할 때는 나를 비난합니다."

5

1.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모두 말하라!"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거룩한 책의 명단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죽을 인생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2.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마술사들, 너처럼 마술을 부리는 너의 동료들,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술을 혐오합니다."

3.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너희는 마술사들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종교를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먼저 당신들이 만들어놓고 두려워하는 그 신들을 우리는 경멸합니다. 만약 조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든지, 조각용 대리석이 부족하게 되면 당신들의 신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은 주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선한 변호인과 같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4.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처형을 받지 않으려거든 그들의 이름을 말하라!"

아카키우스가 대답했다.

"지금 그 사람이 이미 법정에 서 있는데 총독님은 또 이름을 대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으로도 이미 지치신 총독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만약 내 이름을 알기 원

하신다면 나는 아카키우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을 듣기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아가타앙겔루스Agathangelus라고도 부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트로이의 감독인 피소Piso와 장로 메난더Menander의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5. 마르키아누스가 말했다.

"감옥으로 돌아가 데키우스 황제께서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받으신 후 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라."

6.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데키우스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 논쟁의 전체 내용을 읽은 황제는 미소를 지으며 감탄하였다고 한다. 황제는 마르키아누스를 곧 승진시켜 팜필리아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카키우스에게 감탄하여 그를 사면해주었다.

7. 이 기록은 데키우스 황제 재임 시 마르키아누스 총독하에서 3월 29일에 있었던 재판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14

막시무스의 재판기록[171]

1

1. 데키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제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칙령을 내려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귀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게 하였으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렸다.

2. 그때 하나님의 종인 경건한 사람 막시무스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관청에 신고하였다. 그는 평민으로서 상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3. 막시무스는 체포되어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옵티무스Optimus에게 소환되었다.

4. 총독이 그에게 말했다.

---

171) 막시무스는 에베소의 시민이었으며 상인이었다. 251년 5월 14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순교하였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막시무스입니다."

5. 총독이 말했다.

"너의 신분은 무엇이냐?"

막시무스가 말했다.

"자유민으로 출생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6. 총독이 말했다.

"직업은 무엇이냐?"

막시무스가 대답했다.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입니다."

7. 총독이 말했다.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막시무스가 대답했다.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8. 총독이 말했다.

"너는 천하 무적의 황제 폐하로부터 최근에 내려온 칙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막시무스가 대답했다.

"어떤 칙령을 말씀하십니까?"

9. 총독이 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허접한 미신을 버리고, 만물이 복종해야 할 진정한 왕이신 황제 폐하를 인정하며 그분의 신들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막시무스가 대답했다.

"이 세상 왕이 내린 불합리한 칙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10. 총독이 말했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막시무스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예배해온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11. 총독이 말했다.

"구원을 받으려거든 제사를 드려라! 만약 제사드리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여러 가지 고문으로 너를 항복하게 할 것이다."

막시무스가 대답했다.

"그것은 내가 항상 소원하던 바입니다. 나는 비참하고 잠시 잠깐인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1. 그러자 총독은 그를 몽둥이로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몽둥이로 맞고 있는 동안 총독이 막시무스에게 말했다.

"막시무스, 이 고문을 피해 가려거든 제사를 드려라!"

막시무스가 대답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이 고문은 고문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내가 만일 주님의 복음에서 배운 그분의 명령을 떠난다면 그때야말로 나는 참으로 영원한 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그러자 총독은 그를 말 모양의 고문대에 매달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고문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말했다.

"불쌍한 사람아, 이제 그만 너의 미련함을 버리고 제사를 드려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

막시무스가 대답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제사를

드리면 나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몽둥이나 쇠갈퀴나 불의 형벌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싸움을 했으며 당신들의 광적인 잔인함에 승리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3. 그러자 총독이 이렇게 말하며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거룩한 여신 다이아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신성한 칙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막시무스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돌로 쳐 죽일 것을 신의 자비함으로 명령하는 바이다."

4.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경주하던 막시무스는 사탄의 부하들에게 사로잡혔다. 그는 자기를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성벽의 바깥쪽으로 끌려 나간 그는 거기서 돌을 맞고 영혼이 떠났다.

3

아시아 주에 살던 하나님의 종 막시무스는 5월 14일, 데키우스 황제와 옵티무스 총독 치하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

15

키프리안의 재판기록

1

1. 황제 발레리아누스Valerianus가 네 번째, 갈리에누스Galienus가 세 번째로 집정관이었던 해[172] 8월 30일 카르타고의 비밀 법정에서 총독 파테르누스Paternus가 감독 타스키우스 키프리안Thascius Cyprianus에게 말했다.

"황제 발레리아누스와 갈리에누스로부터 내려온 칙령에 의하면 로마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로마의 종교 의식에 참석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 묻겠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2. 감독 키프리안이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인 입니다. 또한 나는 감독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 하

172) 서기 257년.

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으며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총독 파테르누스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한 신념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감독 키프리안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선한 신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4. 총독 파테르누스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발레리아누스와 갈리에누스의 칙령에 따라 쿠루비스[173]로 유배를 가야 한다."
감독 키프리안이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5. 총독 파테르누스가 말했다.
"황제께서는 감독들뿐만 아니라 장로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로들은 누구인가? 그들에 대해 말하라."
감독 키프리안이 대답했다.
"참으로 훌륭하고 유익한 당신들의 법률은 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총독 파테르누스가 말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추적하라는 명을 내릴 것이다."
키프리안이 말했다.
"우리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검열관들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173) 카르타고에서 남서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금의 코르도바.

들이 스스로 자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총독께서 그들을 추적하시면 찾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7. 총독 파테르누스가 말했다. "내가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또한 황제께서는 칙령을 통하여 어떤 장소에서도 집회를 가져서는 안 되며 카타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칙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키프리안

감독 키프리안이 대답했다.

"당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2

1. 그런 다음 총독 파테르누스는 감독 키프리안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키프리안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사이에 아스파시우스 파테르누스의 뒤를 이어 갈레리우스 막시무스Galerius Maximus가 총독이 되었다. 갈레리우스 막시무스는 감독 키프리안을 유배지에서 소환하여 다시 법정에 서도록 명령하였다.
2.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순교자 키프리안은 아스파시우스 파테르누스 총독의 명령에 따라 추방되어 쿠루비스에 유배되었다가 새 총독의 명령으로 돌아와 그의 농장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자신에게 이미 계시된 바와 같이 총독 앞으로 불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3. 키프리안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투스쿠스Tuscus와 바수스

Bassus가 집정관이던 해[174] 9월 13일 두 명의 장교가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그 중 한 명은 아스파시우스 파테르누스의 뒤를 이어 총독이 된 갈레리우스 막시무스의 부관이었으며 다른 한 명도 총독의 직속 장교였다.

4. 그들은 키프리안을 마차에 태우고 그들 사이에 앉게 했다. 그리고는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가 건강 회복을 위하여 은거하고 있던 섹스티Sexti[175]로 데리고 갔다.

5.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는 키프리안을 다음 날까지 보호 감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키프리안은 갈레리우스 막시무스의 부관에게로 인도되어 섹스티를 떠났다. 그런 다음 베네레아와 살루타리아 사이에 있는 사투르니Saturni라는 마을에서 그 부관과 함께 한 집에 머물렀다.

6. 키프리안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곳에 모였다. 키프리안은 이 사실을 알고 젊은 여자들에게 몸조심하라고 명령했다.[176] 키프리안이 머물고 있는 집 문 앞에 이미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3

1. 다음날 9월 14일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의 명령에 따라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이 섹스티로 왔다.

2. 갈레리우스 막시무스는 그날 키프리안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총독은 사우키올룸Sauciolum 홀에 앉아 있었다.

3. 키프리안이 나타나자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가 그에게 말했다.

---

174) 서기 258년.

175) 카르타고 근처로 총독의 별장이 있던 곳.

176) 마을 전체가 그 집 앞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불량배들도 많이 있었다. 키프리안은 여성도들을 그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양들을 지키려는 참된 감독의 모습을 보였다.

"당신이 타스키우스 키프리안인가?"

감독 키프리안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4.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가 말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불경한 사상의 아버지로 살아왔는가?"

감독 키프리안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5.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가 말했다.

"고귀하신 황제 폐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다."

감독 키프리안이 말했다.

"하지 않겠습니다."

6.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가 말했다.

"잘 생각하라!"

감독 키프리안이 대답했다.

"당신은 명령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난 더 이상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4

1. 갈레리우스 막시무스는 함께 자리하고 있던 자문단과 한참 동안 의견을 나눈 후에 마지못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불경한 사상 속에서 살아왔으며 신성 모독적인 반역을 하는 많은 무리들을 거느려 왔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신들과 거룩한 종교들에 대하여 당신 자신을 적으로 만들었다. 거룩하신 황태자 발레리아누스와 갈리에누스 황제와 고귀하신 발레리아누스 시저께서도 당신을 그들의 제사 예식에 참여하도록 돌이키지 못하셨다.

2. 그러므로 이제 사악한 범죄의 온상이자 주범자로 체포된 당신은 자신의

악한 행위로 당신 곁에 모았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당신의 피로 인하여 로마법의 엄격함과 신성함이 증명될 것이다."

3. 그리고 그는 서판에 적힌 판결문을 낭독했다.
"타스키우스 키프리안을 참수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노라."
감독 키프리안은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

1. 판결이 내려지자 형제들이 말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참수형을 당하자!"
그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났으며 많은 무리가 키프리안을 따라갔다.
2. 키프리안은 모자가 달린 외투를 벗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3. 그런 다음 달마티카[177]를 벗어서 집사들에게 넘겨주고, 린넨으로 된 투니카 차림으로 서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오기를 기다렸다.
4.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자 키프리안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금화 25개를 그에게 주라고 하였다. 형제들은 키프리안 앞에 아마포로 된 넓은 천과 손수건같이 생긴 천을 가져다 놓았다.
5. 키프리안은 자기 손으로 직접 천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눈을 가렸다. 그가 천의 끝자락을 잘 묶지 못하자 장로 율리아누스와 집사 율리아누스가 그것을 묶어 주었다.

---

177) 이집트 사람들이 입기 시작한 것으로 긴 셔츠처럼 생긴 겉옷이다. 달마티아를 거쳐 그리스로부터 전래되어, 로마의 황제 시대까지 남자와 여자들이 긴 소매 투니카 위에다 걸쳐 입었다.

6. 이렇게 해서 키프리안은 순교를 당했다. 그의 시신은 이방인들의 호기심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일단 가까운 곳에 안치되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많은 횃불과 촛불이 켜진 가운데 그의 시신을 들어 저수지 가까운 곳 마팔리아로路에 있는 행정관 마크로비우스 칸디디아누스의 묘지로 이송하였다. 기도와 엄청난 승리의 축제 분위기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반되었다.

7. 그로부터 며칠 후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는 사망하였다.

6

이렇게 복 중의 복 받은 순교자 키프리안은 발레리아누스와 갈리에누스가 다스리던 해 9월 14일에 순교하였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16

코논의 순교

1

1. 또다시 내려진 불의한 판결이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들인 파피아스, 디오도루스, 클라우디아누스의 순교가 완성된 후에 총독이 마기도스로 왔다. 그는 제우스의 영지에 거주하면서 전령을 보내 주민들을 그곳으로 모이라고 했다.

2. 그러나 전령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서둘러 도시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도시만이 홀로 불의한 독재자와 그의 군대 곁에 남겨진 것 같았다.

3. 그러자 독재자는 근위 기병대를 보내어 도시 근교의 사방을 수색하고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한 사람이라도 색출하도록 하였다.

4. 수색하러 나갔던 자들이 돌아와 도시 안과 그 주변의 영토에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2

1. 나오도루스라는 사람과 도시의 어른인 아펠레스, 그리고 우상에 대한 무례함에 화가 난 한 성전 관리자는 독재자를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짐작이 되는 장소들을 찾아 나섰다.
2. 오리게네스라는 보좌관이 앞에서 말한 나오도루스와 함께 갔다. 그리고 군대의 장교 한 사람과 다른 몇 사람이 함께 가서 '카르메나'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왕의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는 코논을 발견하였다.
3. 그에게 가까이 간 그들이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신가요, 코논?"
4. 그러자 그리스도의 종이며 선한 영혼을 가진 코논이 그들에게 말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들도 안녕하신가요?"
5. 오리게네스가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 총독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6. 거룩한 코논이 말했다.
   "총독께서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한가요? 나는 외국인인데다가 그리스도인인데요. 만약 그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오. 그러나 밭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마시오."
7. 이러한 코논의 대답에 화가 난 나오도루스는 그를 자기 말에 묶어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거룩한 순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저항 없이 온순하게 법을 위배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갔다.

3

1. 나오도루스가 오리게네스에게 말했다.
   "우리의 사냥은 헛되지 않았다. 수색하던 자를 한 명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2. 코논을 끌고 간 후에 나오도루스가 총독에게 말했다.
"신들의 은총과 황제의 명령과 당신의 행운에 의해서 우리의 총독으로 선택되신 이여, 당신이 찾고 있던 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법과 위대한 왕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3. 그러자 거룩한 코논이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말은 거짓입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4. 오리게네스가 말했다.
"총독 중의 총독이시여, 사람들이 이 도시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정원에서 일하고 있던 이 노인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4

1. 총독이 순교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나에게 말하라. 당신의 고향은 어디인가? 부모는 누구이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2. 코논이 대답했다.
"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으며, 그리스도와 같은 민족 출신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분을 섬겨 왔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3. 독재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들 또한 인정하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신들에게 맹세하거니와 당신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고귀한 신앙과 영광을 넘치게 갖게 될 것이다.
4.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다. 제사를 드려라.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 단지 유향 조금과 포도주와 나뭇가지를 취하여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라고만 말하라.
5.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충고를 듣고

그 가증스런 종교에서 벗어나라.

6.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잘못된 생각 속에 헤매는가? 더욱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닌가? 나는 그의 혈통과 그가 그 민족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들어 정확히 알고 있다.
7. 그들이 그에 대한 기록을 나에게 모두 읽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고 우리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라."

5

1. 코논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 독재자에게 말했다.
2.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경한 자여, 그 어리석음에 당신도 참여하기를! 그리고 생명 없는 돌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을 숭배하면서 죽여서는 안 되는 생명을 죽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어떻게 당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모독할 수 있는지요? 당신의 호흡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나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원히 찬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4. 이 말에 화가 난 독재자가 그에게 말했다.
5.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고문으로 당신이 말을 듣게 만들어 주겠다. 고문도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을 굶주린 사자에게 넘겨 죽게 하겠다. 아니면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당신을 먹이로 주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결코 패배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뜨겁게 달아오른 화덕 안의 불 속에 당신을 던져 넣어 몸이 녹아 버리게 할 것이다."
6. 그러자 복된 순교자 코논이 불의한 독재자에게 말했다.

"총독님, 참으로 야비하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로 엄포를 놓으면 내가 겁먹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설득했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7. 재판관이 지체하지 않는 지옥의 심판 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당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178]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179]

8. 당신이 선포한 어떤 고문도 나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9. 독재자가 그에게 말했다.
"그런 고문이 당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면 더 가혹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6

1. 원로들과 의논을 한 후에 독재자는 순교자의 발에 못을 박게 했다. 그리고 자기의 마차 앞에서 달리게 했다.

2. 두 개의 채찍이 순교자를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편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읊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180]

3. 광장에 가까이 왔을 때 심한 고통으로 거의 정신을 잃어가던 코논은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하늘을 향해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

---

178) 비교. 마 5:25.
179) 참고. 사 66:24, 막 9:48.
180) 시 40:1.

4.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며 피를 마시기를 즐겨 하는 개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주소서. 당신의 뜻을 행한 모든 의로운 자들과 함께 나를 안식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여."
5. 기도를 마치고 성호를 그은 후 그는 곧 숨을 거두었다.
6. 이 같은 순교자의 승리에 심히 놀란 독재자는 서둘러 자기의 길을 떠났다.
7. 이렇게 코논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가난한 농부였던 거룩한 순교자 코논에 대한 간략한 기록

코논은 황제 데키우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다. 그의 고향은 갈릴리의 나사렛이었다.

후에 '카르메나'라고 불리기도 한, 팜필리아 지방의 마기도스로 이주한 그는 거기서 작은 밭을 가꾸고 채소를 심어 물을 주며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살았다. 그는 참으로 단순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마치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자 같았으며, 시합에서 인사하는 자들에게 답례를 하는 사람 같았다. 총독 푸필리우스가 그를 부르기 때문에 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특히 그리스도인인 나를 왜 그분이 부르는 것인가요? 그분과 비슷한 사람을 부르라 하십시오." 그는 결국 묶여서 총독 앞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오히려 독재자를 조소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독재자는 철로 된 못을 그의 발에 박게 한 후에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였다. 기력이 다한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으며 기도를 한 후에 주님께 그의 영혼을 위탁하였다.

17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의 순교

1

1.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된 순교자들은 약속된 하늘나라로 급히 달려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위임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순교자들은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행했는데, 이는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겸손이 위대한 자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원하는 바를 부탁할수록 더 확실하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2. 하나님의 고귀한 증인들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남겨놓았다. 즉 그들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전하는 사명인데, 여기서 '그들'이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를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례 의식을 행하는 신앙의 동지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생활과 친족 관계로 인하여 나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3. 그들은 맹렬하게 날뛰는 세상의 압박과 이방인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고결한 경기인 그들의 전투를 치렀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 전투

에 참여했으며, 우리를 통해 그 내용이 형제들에게 알려지기 원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경험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 도전을 받고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그들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깊은 신의를 근거로 당연히 기꺼이 응할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긴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박해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평화로울 때에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

1. 우리는 함께 누미디아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형제들을 동반하고 길을 떠났다. 그 선교 여행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던 사명의 길, 즉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이 길은 또한 그 두 사람을 이미 하늘나라로 인도한 길이기도 하였다.
2. 우리는 키르타Cirta[181] 근교 무구아스Muguas라 불리는 지역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키르타에는 기독교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힌 이방인들과 주둔군 장교들의 개입으로 박해의 파도가 바다의 물결처럼 넘실대고 있었다. 날뛰는 사탄의 광기는 의로운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게걸스럽게 입을 벌려 달려들고 있었다.
3. 그 속에서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는 갈망하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신실한 표지를 받았다. 이 지역에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박해의 폭풍 속

---

181) 누미디아의 옛 수도로, 카르타고 문명의 중심지였다.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견을 받고 있던 시티우스의 정복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후에 그 도시를 재건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 콘스탄티나Constantina로 불렸다.

에서 그들이 가야 할 순교의 길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제 시간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또한 약속된 면류관의 장소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4. 잔인하고 맹목적인 미움에 사로잡힌 총독은 무자비하고 난폭한 군 순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수색했다.

5. 그의 광적인 잔인함은 지난 박해 때 피해를 입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활하던 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탄은 이미 오래 전에 박해를 받아 추방을 당한 자들에게까지도 그 손을 뻗쳤다. 아직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순교자들이었던 그들은 총독의 무자비한 광기로 인하여 결국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다.

3

1. 그들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감독 아가피우스Agapius와 세쿤디우스Secundius도 유배지로부터 끌려와 총독 앞으로 소환되었다. 두 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한 분은 특별히 육체적 금욕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다.[182]

2.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벌에서 또 다른 형벌로 끌려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전쟁터에서 또 다른 전쟁터로 나아온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음[183]으로써 세상의 껍데기뿐인 허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던 그들은 이제 완성된

182) 당시에 성직자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일반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두 감독 중에서 스스로 독신이었던 한 감독이 특별하게 더욱 존경을 받고 있었다.

183)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를 받을 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며 그때부터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으로써 사망이 쏘는 것[184]을 짓밟기 위해 마지막 전쟁터로 나아온 것이었다.

3. 주님께서 속히 곁에 두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세상과의 전투가 길게 연장되는 가운데 서서히 승리를 얻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

4. 그래서 그들은 총독의 일시적인 세속적 권세하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복된 순교의 전투지로 서둘러 갔다. 형제들이여, 그때 훌륭한 감독이요 영광스러운 순교자인 아가피우스와 세쿤디우스가 그들의 전쟁터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하는 중에 우연히 우리와 같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다!

5. 그들은 살아 계신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서 이같이 거룩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증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값진 피를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였다. 결코 그럴 수는 없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의 믿음을 불어넣어 순교자로 만들기를 원하였다.

6. 형제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매우 돈독해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헌신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의 본을 보여주기만 해도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슴을 이슬처럼 적심으로써 우리가 의연히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견디어내도록 힘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그 순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7. 그 며칠 동안 그들의 힘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영혼이 밝히 깨어났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들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충만한 은혜로 빛나고 계셨다.

---

184) 고전 15:54 이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

4

1. 두 감독은 떠났다. 그러나 그들 뒤에는 그 본보기와 가르침에 감동해서 그들이 걸어간 영광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결심한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가 남아 있었다.
2. 그리고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에게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가[185] 손짓하였다.
3.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안 군인들이 그들을 덮쳤을 뿐만 아니라,[186] 과격한 백부장의 군인들과 난폭한 대중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을 습격하였는데 마치 그곳이 유명한 기독교 성지라도 되는 것 같았다.
4. 오! 이 습격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것이었는가! 오! 복되고도 마땅히 기쁨에 겨워할 만한 소란함이여! 이러한 소란이 일어난 것은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에게 의로운 피를 흘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5.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곳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우리는 이미 두 순교자를 굳게 포옹하고 순교를 완성하러 가는 길로 그들을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에게서 미래의 순교자들이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6.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실 시간이 그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

---

185) 종려나무 가지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상징 중의 하나로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종교에서도 승리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대교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게 된 것은 뜨거운 태양열과 폭풍을 잘 견디는 식물학적 특징에 기인한다.

186) 순회 전도자였던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는 선교 여행 중 유배지에서 총독에게로 소환되어 오던 두 감독과 우연히 같은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다. 감독을 호송하던 보초병들은 두 감독을 대하는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의 태도를 의심하여 키르타 시 당국에 그들을 고발하였다. 보고를 받은 시에서는 이틀 후에 군인들을 보내어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를 연행하였다.

오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찬란하게 빛나는 형제들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나마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즉 우리도 무구아스에서 키르타까지 함께 끌려간 것이다.

7. 순교의 종려나무 가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선택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뒤에서 끌려오고 있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걸음은 힘찼으며,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이 그들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8. 이렇게 해서 곧 우리보다 앞서 가게 될 그들이 키르타로 끌려가는 동안 그들은 우리 뒤에서 길을 갔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9.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를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10. 그들은 곧 심문을 당하였다. 그리고 용감하고도 고집스럽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졌다.

5

1. 그 후에 그들은 치안 군인의 수차례에 걸친 잔혹한 고문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했다. 의인과 경건한 자를 악랄하게 고문하는 치안 군인은 한 백부장과 키르타 시 당국 즉 악마의 제사장들의 협조를 받아 자신의 잔인성을 발휘하였다. 육신적인 안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사지를 찢음으로써 그들에게서 믿음을 앗아가려는 듯 고문은 잔인하였다.

2. 그러자 이미 데키우스 황제 때 박해의 위기를 한 번 넘긴 적이 있었던 야코부스는 항상 신의와 진실의 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진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집사라는 사실을 숨김 없이 고백하고 말았다.

3. 마리아누스는 다시 고문을 당하였다. 그가 자신은 집사가 아니라 단지 성

경 낭독자일 뿐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4. 얼마나 참혹한 고문이었는지! 아직까지 본 바도 들은 바도 없는 최악의 고문이었다. 그것은 쉴새없이 독을 뿜어내는 악마의 머리와 사람을 속여 넘어뜨리는 그의 기술이 합력하여 고안해낸 새로운 발명품이었다.

5. 마리아누스는 피를 쏟으면서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순교자와 함께하였다. 마치 형벌도 순교자를 높이려는 것처럼 마리아누스의 몸은 높이 매달려 있었다.

6. 마리아누스는 밧줄에 묶여 매달려 있었는데 밧줄이 손이 아닌 엄지손가락 끝부분에 묶여 있었다. 예민하고 연약한 손가락 끝으로 온 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누스의 고통은 더욱 심했다.

7. 그런데다 발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달아 놓아서 제멋대로 양쪽에서 가해지는 고문으로 마리아누스의 몸은 동시에 위아래로 잡아당겨지고 뒤틀리면서 찢겨져나갔다. 내장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고 뼈가 부서져 흔늘거리고 몸 전체가 간신히 근육에 걸려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8. 그러나 너, 이방인의 악함이여, 너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인에게 그 이상의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다.

9. 네가 아무리 사지를 매달아 놓고 옆구리를 찌르며 내장을 다 찢어놓았다 할지라도 마리아누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더욱 커져만 갔다.

10. 마침내 고문하는 자들의 잔인함이 항복을 하고 마리아누스는 자기의 승리를 기뻐하는 가운데 다시 감옥에 끌려가 갇혔다. 거기서 그는 야코부스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6

1. 이방인들이여! 도대체 지금 너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영

원한 빛의 기쁨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옥의 형벌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가? 이 세상의 어두움[187]으로 그들을 겁주어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마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이미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었으며, 육체적 고통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였다.

3. 너희가 아무리 비밀스럽고 캄캄한 곳을 고문 장소로 찾아내며, 무시무시한 공포를 자아내는 어두운 동굴과 암흑으로 덮인 거처를 찾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장소도 더러울 수 없으며 어떤 시간도 고통의 시간일 수 없다.

4.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진 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밤낮으로 돌보고 계셨다.

5. 혹독한 육체적 고통을 치른 마리아누스가 깊은 잠에 빠져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의 구원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 주셨다. 잠에서 깨어난 후 마리아누스는 직접 우리에게 그 환상에 대해 말해 주었다.

6. "형제들이여, 아주 높고 빛나며 고결해 보이는 재판정이 나에게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매우 고귀한 모습의 재판관이 의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7. 그리고 높은 단으로 설치된 관람석이 있었는데, 그 관람석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수많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장식들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참으로 고귀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8. 곧 순교자들의 한 무리가 불려왔습니다. 재판관은 그들에게 참수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9. 그때 우레와 같이 우렁차고 분명한 목소리가 '마리아누스를 먼저 데려오

---

187) 감옥의 어두움을 이 세상의 어두움, 즉 사탄의 권세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참고. 행 26:18.

라!' 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10. 나는 그 관람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키프리안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재판관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키프리안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관람석의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웃으면서 '와서 내 옆에 앉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11. 그리고는 또 한 순교자의 무리가 내가 자리를 함께하는 가운데 심문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재판관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그의 관저까지 그와 동행했습니다.

12. 우리는 아름다운 목초지와 연록색의 숲을 통과해 갔습니다. 키가 높이 자라 있는 사이프러스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소나무가 우리에게 선선한 그늘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사방으로 초록색 숲의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3. 중앙에는 맑고 빛나는 샘이 솟아나고 있었는데 그 샘으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물이 힘찬 물줄기로 흘러나와 그 지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재판관이 우리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14. 그리고는 키프리안이 샘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목이 마른 듯 샘에서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워서 마시고 잔을 다시 채워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15.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곧 내 목소리에 놀라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

1. 또한 야코부스도 자신이 받을 승리의 면류관을 환상으로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2. 며칠 전 내가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와 함께 마차로 여행하고 있을 때였다. 밝은 대낮이었고 마차는 심히 덜컹거리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야코

부스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는 결국 우리가 심하게 흔들어 깨워서야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후 그가 말했다.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나와 함께 기뻐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3.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젊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키가 크고 귀티 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서는 밝은 광채가 비치고 있어서 오래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고 얼굴은 구름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4. 그는 지나가면서 자주색 허리띠를 우리 품에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누스 당신에게, 다른 하나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나를 따라 오너라!'"

5. 오! 깨어 있는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잠이여! 믿음 속에서 잠을 깬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잠을 잔 것인가! 그는 육신만 잠들었던 것일 뿐 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

6. 순교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고양되어 있었는지 믿어야만 한다. 거룩한 이름을 고백함으로 고난을 당할 이들에게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든지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

7. 달리는 마차의 덜컹거림이나 햇빛이 쏟아져 내리는 한낮의 밝음도 그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8. 주님은 구태여 조용한 밤의 고요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셨다. 주님은 자신의 순교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의외의 시간을 택하셨던 것이다.

8

1. 그러한 은혜가 한두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은 아니다. 아이밀리아누스

Aemilianus도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기사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형제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거의 50세를 살아온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금식을 계속했는데, 보통 때보다 배나 더 쉴 새 없이 기도를 하였다. 그러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 헌신한 그의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어느 날인가 주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다. 어느 밝은 대낮에 아이밀리아누스는 깊은 잠에 빠졌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환상 중에 본 비밀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2. "내가 감옥에서 끌려나왔을 때 어떤 이방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은 나의 친형제였습니다.

3. 그는 어느 정도 호기심이 섞이고 조롱하는 어투로 우리 문제에 대해 캐물으며 우리가 이러한 감옥의 암흑과 궁핍함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4.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암흑 속에서도 대낮같이 밝은 빛을, 굶주림 속에서도 배부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양식을 갖고 있다.'

5. 이 말을 듣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모두 사형을 받을 것이다.'

6. 나는 그가 일부러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게 정말인가? 우리 모두 사형당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7. 그러자 그는 다시금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검과 피가 너희에게서 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멸시하는 너희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가?'

8. 그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잠깐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두 같은 광채[188]로 빛나고 있느냐? 그러나 별들은 모두 빛을 비추고 있다.'

9. 그러자 호기심 많은 그는 또다시 물어볼 것을 찾아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너희 중에 누가 더 많이 주님의 은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10. 내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두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더 받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너는 알 수 없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11.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끈질기게 나를 조르며 괴롭히는 그에게 나는 결국 이렇게 대답해주었습니다.

'더 오랫동안 더 힘든 고난을 당한 뒤에 승리한 사람일수록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189].' "

9

1. 이러한 계시가 있은 후에 그들은 며칠 더 감옥에 머물러 있다가 관청으로 끌려갔다. 키르타 시 의회에서는 그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

188) 참고. 고전 15:41.
189) 마 4:24.

것에 대한 보고서와 일종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총독에게로 보내는 배려를 해주었다.

2. 그때 거기에 서 있던 우리 형제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자가 있었다. 이제 임박할 순교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미 그의 얼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빛나고 있었다.

3. 격분한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도 같은 종교, 같은 이름에 속한 자인지 물었다. 그가 거리낌 없이 용감하게 고백하자 감동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4. 이러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하여 순교자들은 순교의 죽음을 준비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얻을 수 있었다. 총독에게로 보내진 그들은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나갔다.

5. 총독의 심문을 받은 후에 그들은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람바이시스Lambaesis190의 감옥에 갇혔다. 이 감옥이야말로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유일한 의인들의 처소가 된 곳이다.

10

1. 그 사이에 매일매일 수많은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주님께로 떠났다. 그러나 이성을 잃고 날뛰는 총독의 광적인 분노는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 그리고 다른 성직자들을 살육하여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 총독은 우선 평신도들을 처리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2. 잔인한 총독은 교활하게도 평신도들을 성직자로부터 격리시켜놓았다. 성직자들이 곁에 없으면 평신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극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3. 그러자 우리의 신실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성직자들은 그로

190) 총독의 관저가 있던 도시로,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인해 근심하기 시작했다. 평신도들은 이미 영광스럽게 그들의 전투를 마치고 있는데, 성직자들의 승리는 자꾸만 연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1

1. 그때 아가피우스Agapius가 도움을 주러 나타났다. 아가피우스는 이미 오래 전에 순교를 통해 믿음의 신비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자이다. 그는 살아 있을 때 친자식처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던 테르툴라Tertulla와 안토니아Antonia가 자기와 함께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2. "한번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응답받은 것을 너는 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답해달라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
3. 이 아가피우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야코부스에게 고요한 시간을 틈타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야코부스는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 사형 집행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있어요. 나는 이제 아가피우스와 다른 순교자들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4. 형제들이여, 나는 어젯밤에 아가피우스가 매우 즐거운 모습으로 키르타의 감옥에 갇혀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주 성대하고 기쁨에 넘치는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 나와 마리아누스는 마치 애찬에 참석하는 것처럼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소년과 마주쳤습니다. 그 소년은 삼일 전에 어머니와 함께 순교한 쌍둥이 중 한 명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목에 장미로 만든 화관을 걸고 있었으며 오른손에는 푸르른 녹색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6. 소년이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일이면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테니까요.'"

7. 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신 아버지의 선하심이여! 주님께서는 선택받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자비의 선물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 주신다.

8. 야코부스가 이러한 환상을 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총독의 판결이 내려졌다. 사형 선고를 내린 총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시중 드는 자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와 나머지 성직자들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선조들에게로 돌아갔으며 이 세상의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9. 그들은 곧 면류관을 받을 장소로 끌려갔다. 그곳은 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방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양쪽에 높이 쌓인 제방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벌어질 엄청난 장면을 구경할 수 있었다.

10. 순교의 피가 시내를 이루어 강물의 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순교자들에게는 두 가지 신비 중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피로 세례를 받았으며 강에서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다.[191]

12

1. 사람들은 그곳에서 순교자들의 처형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이 고안해낸 기발한 처형 방법이었다. 처형장에 끌려나온 의인들의 수가 사형 집행인을 당

191) 여기서 저자는 거룩한 세례의 두 가지 형태(물세례와 피의 세례)를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도 요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피로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눅 12:50.

황하게 했다. 어떻게 사형 집행인 한 사람의 손과 검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을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 사형 집행인은 기막히게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사람들을 몇 줄로 세워 놓았다. 그런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박해자의 칼로 마치 성난 폭풍처럼 한 번에 여러 순교자들의 목을 내리쳤다.

2.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이같이 편리한 방법, 편리한 죄악을 고안해낸 것이다.
3. 만약 그 사형 집행인이 한 장소에서 이런 일을 계속 한다면 쓰러진 시체 더미들이 산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체 더미들로 가득 채워진 강물은 더 이상의 장소 제공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4. 관습에 따라 사형 직전에 순교자들의 눈은 가리어졌지만 어두움이 결코 자유로운 영혼의 시력을 가리지는 못하였다. 도리어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광채가 그들에게 비취고 있었다.
5.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친척들이나 자신을 옆에서 보살피던 형제들에게 놀랍게도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육적인 눈은 가리어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이 보인다고 했다. 하늘에서 말들이 내려왔는데 눈처럼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흰 옷을 입은 청년들이 그 위에 타고 있었다고 했다.
6. 동료 순교자들 중에서는 이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며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말들이 울부짖으며 킁킁거리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7. 거기서 마리아누스는 이미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용감하게 의인들이 흘린 피에 대한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예언했다. 이미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 즉 전염병, 포로 생활, 기근, 지진,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독충들의 출현 등이 임할 것을 경고했다.[192]

8.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 신실한 순교자는 이방인들을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기를 따라오도록 격려하였다. 다가올 인류의 참혹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이처럼 값지고 훌륭한 죽음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각성시켜 준 비상 나팔과도 같았다.

13

1. 이 모든 일 뒤에 마리아누스의 모친은 마카비 형제들의 어머니[193]와 같은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순교의 모든 과정이 지나자 그녀는 아들에 대해 비로소 안심하였다. 순교한 아들로 인해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들을 낳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뻐하였다.
2. 그녀는 자기 태의 영광인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아들의 목의 상처에 수없이 입맞추었다.
3. 오! 당신은 진실로 마리아[194]다! 당신의 아들에게 어머니라 불리는 당신은 얼마나 복 받은 자인가! 그 태의 열매가 이렇게도 아름답게 그녀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 누가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는 복이 그녀를 비켜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4. 자기의 사람들을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측량

---

192) 역사적 사실들이 마리아누스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마리아누스의 예언대로 로마제국은 곧 국가적인 재앙들로 심한 몸살을 앓게 된다.

193) 마카비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유대 독립을 성공으로 이끈 혁명가이다. 마카비의 어머니는 일곱 아들이 하루에 죽는 것을 목격했으나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즐거움을 잃지 않았으며 도리어 그 아들들을 격려하였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아들들과 함께 확고한 신앙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 외경 마카비서 하 7:20 이하.

194) 순교자 마리아누스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다. 여기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서 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다.

할 수 없는 긍휼하심이여! 자기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충만한 은혜로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의 구속[195]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도다!

5. 누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의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한 것까지도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195)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곧 순교자들의 머리요 인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다.

18

몬타누스**와 루키우스의 순교

1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에게는 당신들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들에게는 형제들의 큰 무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향한 사랑과 깊은 의무감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신실한 증거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인내를 그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2세기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신비운동과 임박한 재림을 주장한 이단자인 몬타누스와 동명이인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2

1. 총독의 잔인한 태도는 대중을 격동시켜서 피와 죽음을 보게 하는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곧 혹독한 기독교 탄압으로 이어져서 부당하고 잔인하고 편파적인 방법으로 루키우스Lucius, 몬타누스Montanus, 플라비아누스Flavianus, 율리아누스Iulianus, 빅토리쿠스Victoricus, 프리몰루스Primolus, 레누스Renus, 도나티아누스Donatianus 그리고 한 명의 세례 준비자를 체포하였습니다. 그 세례 준비자는 감옥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운명하였습니다. 물세례에서 순교의 면류관으로 흠없이 순결한 길을 직행하여 간 것입니다.
2. 또한 프리몰루스의 마지막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기 몇 달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3

1. 체포된 우리는 관할 경찰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경찰로부터 전날 총독이 우리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산 채로 태워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자기의 종들을 타오르는 불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서는 왕의 마음과 말을 그 손 안에 두고 계셨습니다.[196] 주님께서는 총독의 타오르는 분노가 우리를 비켜가게 하셨습니다.
3. 온전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던 우리는 오래지 않아 구하던 바를 응답받았습니다. 즉 우리를 태우려고 불을 붙이자마자 불이 붙지 못하고 자꾸 꺼져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슬로 인해 빨갛게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꽃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

196) 참고. 잠언 21:1.

4.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옛 신앙의 본보기에 새 것을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청년들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분께서 또한 우리 안에서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197]

4

1.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한 총독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 군인들이 우리를 감옥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더러움과 어두움이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두움에 싸여 있던 감옥이 성령의 빛으로 인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한밤중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깊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의 마음이 환한 낮처럼 우리를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처럼 감옥 꼭대기에 있는 고문실로 올라갔습니다.
3. 거기서 우리가 어떤 날들을 겪어야 했는지, 어떤 밤들을 지나야 했는지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의 참혹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4. 시험이 클수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은 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전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197) 이 편지의 저자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던져졌으나 심히 뜨거운 풀무의 불꽃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참고. 단 3:13~27.

5.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을 때 이미 죽음이 쏘는 것을 힘없게 하시며 그 사나운 힘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6. 군인이 무장해야 할 때가 아니면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전투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군인은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 쓰게 될 승리의 면류관은 앞서 치른 전투에 대한 상급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공격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7. 며칠 후에 우리는 형제들의 방문을 받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낮의 기쁨과 위로가 밤에 겪었던 온갖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5

1. 그때 우리와 함께 있던 레누스가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그의 환상에 보였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때 등불이 그들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앞서 가지 않으면 사람들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 우리가 등불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레누스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발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198]

---

198) 시편 119:105.

6

1. 그날 밤이 지난 후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죽은 총독[199]을 대신해 주州를 관리하고 있던 재무관에게로 끌려갔습니다.

2. 오, 기쁨의 날이여! 오, 영광의 쇠사슬이여! 그렇게도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던 쇠사슬이 아니던가! 우리에게는 이 쇠사슬의 쇠가 순금보다도 값지고 명예롭게 여겨졌습니다. 쇠사슬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쇠끼리 부딪치며 내는 즐거운 소리!

3.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여유 있게 서술하는 것이 미래의 순교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너무 짧지 않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군인들은 재무관이 어디에서 우리를 심문하려고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우리를 끌고 광장 전체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4. 그런 다음 재무관은 우리를 비밀 재판실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난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는 거기서 악마를 때려눕히고 승자가 되어 감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하여 다시 남겨졌습니다.

5. 이 전투에서 패배한 악마는 다른 궤계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쓰러지게 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오랫동안 끈질기고 강도 높게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물과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200] 사탄은 이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199) 총독이었던 갈레리우스 막시무스는 키프리안이 순교한 며칠 뒤 258년 9월에 사망하였다. 새로운 총독이 임명될 때까지 재무관이 총독의 임무를 대신하였다.

200)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양식과 물이 거의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하였다. 프리몰루스, 도나티아누스, 레누스가 심한 영양 결핍으로 인해 감옥에서 순교하였다.

7

1.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궁핍으로 인한 절대적 위기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2. 즉 우리와 함께 있던 장로 빅토르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빅토르는 이 환상을 본 후 얼마 안 되어 순교하였습니다.

3. 그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한 젊은 청년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밝은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출구를 찾아 온갖 장소를 헤매고 다녔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너희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너희 앞에 아직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은 매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영은 그의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제 순교의 고난이 멀지 않은 혼은 그의 안식처를 찾고 있다."

5. 그러자 빅토르는 주님[201]께 낙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빅토르는 낙원이

---

201) 얼굴에 광채가 나는 젊은 청년은 그리스도로 여겨졌다. 그는 순교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 청년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puer'는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를 지칭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puer'로 표현하는 전통은 계속되어 고대 교회의 기도문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기도문에 익숙했던 순교자들에게는 젊은 청년으로 나타난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낙원은 이 세상 밖에 있다."

빅토르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낙원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6. 그러나 빅토르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만한 징표를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야곱의 징표[202]를 말해 주어라."

7.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고난에 있어서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8.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203]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낮아지셔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긍휼하심의 선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8

1. 당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매 쿠아르틸로시아Quartillosia에게 환상을 보여

---

202) 야곱의 징표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를 말한다. 야곱은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형의 복수를 피하여 도망하던 위기와 고통 속에 있을 때 꿈에서 하늘의 문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직접 야곱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2~17).

203) 시 50:15.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이미 삼일 전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2. 그때까지도 이곳 감옥에 우리와 함께 있던 그녀는 곧 가족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녀는 환상 중에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3. 쿠아르틸로시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순교한 내 아들이 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물통 가장자리에 와서 앉더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환난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4. 그리고 곧이어 매우 키가 큰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양손에 우유로 가득 찬 대접을 한 개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

5. 그는 들고 온 대접을 내밀어 우리 모두가 마시게 해주었는데, 우리 모두가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접은 비지 않았습니다.

6. 그런데 갑자기 창의 한가운데에 놓여 창을 양쪽으로 가르던 바위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자 창이 환하게 트여 우리는 그 창으로 마음껏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7. 그 청년은 들고 있던 대접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배가 부르도록 마셨는데도 대접에는 아직 마실 것이 남아 있다. 이제 세 번째 대접이 너희에게 더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청년은 사라졌습니다."

9

1. 쿠아르틸로시아가 환상을 본 다음날 우리는 음식이 배식될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이라고 해봐야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궁핍한 먹을거리에 불과했지만, 이틀 동안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거의 기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갑자기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이, 굶주린 자에게 먹을 양식이, 갈

망하던 자에게 순교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루키아누스를 통해 휴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루키아누스는 견고한 쇠사슬로 된 감옥의 빗장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보았던 두 대접과 같이 부副집사인 헤렌니아누스와 세례 준비자 야누아리우스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부족하지 않는 양식[204]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3. 이들의 원조를 통하여 병든 자들과 비참함을 느끼던 자들이 다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최악의 식량과 차가운 물로 인해 병들었던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져다준 양식으로 인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10

1.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한마음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고 기도하고 있음을 일깨우고자 할 뿐입니다.
2.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됨을 유지해야만 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쓰러질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3.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205]
4. 생명과 왕권을 약속하신 분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방

204) 성찬 예식의 떡과 포도주를 말한다. 감옥에 갇힌 순교자들을 위해 감옥 안으로 그것들을 들여보낸 것이다.
205) 마 18:19.

법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없습니다.

5. 형제들과 화평을 누렸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206

6.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07

7. 자녀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화평을 깨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8. 우리는 이것을 권면 받은 바대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1

1. 몬타누스가 율리아누스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서 우리의 교제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던 어떤 여자에 관한

---

206) 마 5:9.

207) 롬 8:16, 17.

208)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여자는 배교했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교인을 말한다. 당시에 한 번 배교했던 자가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지려면 일반적으로 수년간의 공적인 참회 기간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참회 기간은 순교자들을 통한 중보로 단축될 수 있다는 사상이 등장하였다. 배교자들의 참회 기간에 영향력을 끼치는 순교자들의 이러한 권위는 종종 배교자들에 의해서 남용되었는데, 이것이 카르타고 교회의 성직자들 사이에 분쟁을 가져오게 하였다.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은 참회 기간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을 원했으며 배교자들을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다시 받아들이는 데 반대하였다.

문제[208] 때문이었습니다. 몬타누스가 율리아누스에게 심한 질책을 한 후 불화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던 그날 밤 그에게 이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2. 그가 말했습니다.
"백부장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끌려간 우리는 곧 한없이 넓게 펼쳐진 평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던 키프리안과 레우키우스를 만났습니다.

3. 우리는 환하게 빛이 비치는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은 의복이 눈부신 하얀 색으로 변했고 우리의 육신도 희어져서 광채가 났으며 그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4.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투명해져서 우리의 시선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209]

5. 그때 루키아누스가 내게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 더러움은 내가 율리아누스와 속히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6.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하여 한마음 되어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미래의 우리 모습을 이곳에서 만나 봅시다.

7. 만일 우리가 의인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고 악인에게 예고된 형벌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209) 몬타누스는 환상 중에 다시 자기 몸에 더러움이 있는 것을 보았다.

12

1. 위의 편지는 순교자들이 모두 함께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순교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한 번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순교자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많이 축소해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플라비아누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편지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라는 사명을 맡겼기 때문이다.

2. 그들은 몇 달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서 감옥의 형벌을 견디고 있었다. 지독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이 오래도록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을 끌어내어 총독의 법정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3. 그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했다. 그런데 군중들은 플라비아누스에게 저의가 의심되는 호의를 보이며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플라비아누스가 자신은 집사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러자 플라비아누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 즉 루키우스, 몬타누스, 율리아누스, 빅토리쿠스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플라비아누스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다.

4. 순교의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진 플라비아누스는 충분히 슬퍼할 만도 했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경건한 지혜로써 홀로 남겨진 슬픔을 절제하고 있었다.

5.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210] 내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말할 뿐인 사람에게 왜 내가 분노해야만 하는가?"

플라비아누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

210) 잠 21:1.

13

1.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희생제의 장소로 끌려갔다.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왔으며 형제들도 모두 그 자리에 운집하였다. 형제들은 전에도 하나님의 증인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면 스승이었던 키프리안의 가르침을 따라 순교자들에 대한 사랑과 신의의 표시로 그들의 뒤를 따라가곤 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별하였다. 훨씬 더 많은 형제의 무리가 순교자들을 호위하며 그들에 대해 각별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2. 사람들은 기쁨으로 빛나는 그리스도 증인들의 얼굴에서 내적인 행복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없이 빛나는 얼굴만으로도 군중이 굳건한 신앙에 이르도록 도전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잠잠히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순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권면의 말을 건넴으로써 군중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4. 루키우스는 타고난 연약한 체질과 소박하고 조용하며 수줍어하는 성격 외에도 심각한 병세와 감옥에서 생긴 과로로 인해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많은 군중의 혼잡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전에 죽게 될까봐 몇 명의 형제들만 동반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와 동행하는 형제들을 교훈하였다.

5. 형제들이 "우리를 기억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루키우스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억해주십시오."라고 응답했다.[211]

6. 얼마나 놀랄 만한 겸손함인가! 그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도 어떤 영광도 미리 취하려 하지 않았다. 율리아누스와 빅토리쿠스는 형제들에게 강력

---

211) 순교자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말이다.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순교자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전투의 상대는 매우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도의 지원군이 여전히 필요했던 것이다.

하게 교회의 평화를 권면하고 모든 성직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옥에서 그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방문해주었던 성직자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한 점 두려움 없이 기쁨에 충만하여 고난의 장소로 나아갔다.

14

1. 한편 정신과 육체가 강건했던 몬타누스는 순교 전에도 너무나 당당하여 전혀 사람을 개의치 않았다. 언제나 진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순교가 눈앞에 다가오자 그는 더더욱 힘이 생겨나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망할 것이니라."212

2. 몬타누스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을 찾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가슴속에 새겨넣고자 했다.

3. 그는 또한 이단들의 교만함과 악독한 불손함을 강력하게 책망하며, 순교자들의 많은 숫자만 보아도 이단들이 돌아가야 할 교회의 진실성이 증명된다고 호소하였다. 그런 다음 배교자들의 지나친 성급함도 질책하였다.

4. 그는 배교자들과 협상하는 문제를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갖도록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하였다.

5. "형제 여러분, 용감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군세게 싸우십시오! 당신들에게는 본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의 없는 배교자들에 현혹되어 함께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굳건히 신앙을

212) 참고. 출 22:20.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당신들도 더욱 확신을 가지고 면류관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 그는 독신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말을 건네며 순결을 유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서는 그들의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쳤다.
7. 지도자들에게는 화평과 일치를 부탁하며 지도자들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8.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화평을 유지할 때 비로소 백성들이 감독들에게 순종하게 되며 사랑의 유대를 잘 유지하도록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또한 누군가 말을 할 때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이야말로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범인가!

15

1. 이미 사형 집행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몬타누스의 목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몬타누스는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그는 군중의 청원으로 인해 순교자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남아 있는 플라비아누스가 삼일째 되는 날 그들을 따라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2.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몬타누스는 자기의 눈을 가리려던 천을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한 조각을 남겨 삼일째 되는 날 플라비아누스의 눈을 가리는 데 쓰라고 지시했다.
3. 또한 플라비아누스를 위해 그들이 묻힐 묘지의 가운데를 비워 두라고 명령했다. 무덤 속에서라도 플라비아누스가 그들과 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그리고 곧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온전히 믿으면 그대로 된다[213]는 주님의 약속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이틀 후에 몬타누스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날 플라비아누스도 끌려나와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던 것이다.
5. 플라비아누스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이틀간 그의 순교가 지체된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에 덧붙이도록 부탁하였다. 그가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했을 것이다.

16

1. 플라비아누스에 대해 왜곡된 호의를 품은 군중은 그의 구명을 위해 소리 높여 그의 사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의 용기는 꺾이지 않았으며 마음은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다.
2. 순교가 지체된다는 생각도 그의 강한 정신력을 흔들지는 못했다.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순교의 순간을 전심으로 기대하였던 그의 온전한 믿음은 현재 잠시 그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214]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3. 그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그의 모친이 그의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215] 그녀는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들의 순교를 열망한 것과 아들이 순교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함으로써 자신이 아브라함의 딸임을 증명하였다.
4. 얼마나 거룩한 어머니의 사랑인가! 모범을 보여준 옛 신앙의 인물들과

213) 참고. 막 11:24.
214) 군중의 개입으로 인해 그의 순교가 지연된 것을 말한다.
215)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의 모친이 옆에서 함께 걸어갔다.

과히 견줄 만한 어머니가 아닌가! 그녀야말로 진정 마카비의 어머니가 아닌가!

5. 자녀의 수가 몇 명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외아들을 내어 드림으로써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전부를 주님께 바친 것이다.[216]

6. 플라비아누스는 자신의 순교가 연기된 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어머니의 용기를 칭송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순교할 기회를 얼마나 바랐는지 아십니다. 자주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나오고 여러 번 순교가 지체되는 고통까지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십니다. 이제 내가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으니,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해야만 할 것입니다."

17

1. 플라비아누스 일행이 감옥의 출입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 문을 여는 데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였다. 문을 열기 위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 여러 명이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겨야만 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초월적인 힘이 이미 하늘에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을 감옥의 오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그것의 부당함을 증명하려는 듯 보였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면류관이 지연되는 마땅한 이유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감옥도 어쩔 수 없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인 그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216) 일곱 아들이 모두 순교하는 것을 격려하였던 마카비 형제들의 어머니와 비교하고 있다. 마카비 형제들이 일곱이었던 것에 비해 플라비아누스는 독자였다. 하지만 아들 한 명만을 잃었다고 해서 그 신앙의 명성이 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어머니는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3. 이틀 동안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소망과 확신 속에서 동료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곧 자기도 순교할 날이 올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이 순교자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였는지!
4. 내가 생각한 바를 그대로 말하자면, 지체되기로 한 이틀이 지나고 삼일째 되는 날, 그는 마치 고난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당시 몬타누스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이방인 군중들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18

1. 마침내 삼일째 되는 그날 그를 소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소문이 알려지자 믿지 않는 자들과 배교자들이 그 순교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사방에서 구름 떼처럼 몰려들었다. 하나님의 증인은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감옥에서 걸어나왔다.
2. 우리 모두의 기쁨도 컸지만 가장 행복해한 사람은 바로 플라비아누스 자신이었다. 그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다. 아무리 군중들이 반대할지라도 자신의 믿음과 앞서 간 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총독이 억지로라도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3. 구원을 열망하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자 그는 전혀 주저함 없이 푸스키아눔에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4. 얼마나 위대하고 참된 믿음인가! 그는 법정이 있는 총독 관저로 들어섰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가운데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19

1. 거기서 우리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우리는 그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으

며 그의 손을 잡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였다.

2. 그곳에는 전에 그와 같이 공부했던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설득하고 있었다. 순교할 것을 멈추고 임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였다. 확실하지도 않은 두 번째 죽음(영원한 죽음)을 현실의 죽음보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였다.

3. 그것은 이방인들의 논리였다. 즉 영원한 죽음이 두려워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이었다.

4. 플라비아누스는 이러한 충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믿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힘있게 말했다.

5. 그는 먼저 순전한 양심을 가질 자유에 관한 한 돌들을 숭배하느니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했다.

6. 그러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것이며,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20

1. 플라비아누스의 이러한 논증에 그를 설득하려고 했던 이방인 친구들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자 우정이란 이름으로 더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적어도 고문으로는 플라비아누스의 완강한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2. 그러나 그때 그를 법정에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총독은 그에게 왜

집사가 아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집사인 체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플라비아누스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3. 그때 한 백부장이 등장해서 그의 거짓말을 증명해 줄 만한 편지를 입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플라비아누스가 대답하였다.
"도대체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 편지를 쓴 사람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4. 군중이 함성을 지르며 그의 말에 항의하였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총독이 다시 한 번 그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대답했다.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5. 그 말에 흥분한 군중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그를 고문하라고 요구했다.

6. 그러나 가혹한 감옥의 형벌을 통하여 이미 자기 종의 믿음을 충분히 시험해보신 주님께서는 순교자의 육신이 더 이상 어떤 고문으로도 고통당하지 않게 하셨다.

7. 주님께서는 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왕의 마음을 인도하셨으며,[217]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울 싸움을 다 싸우며 죽기까지 충성한 자기 증인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

21

1. 플라비아누스는 판결이 내려지자 기뻐하였다. 이제 순교의 고난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는 곧 우리와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에게 순교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자신이 한 말에 덧붙여 달라는 부탁을 했다.

---

217) 참고. 잠 21:1.

2. 또한 이틀간 순교가 지체된 것과 관련된 그의 환상에 관해서 기록해 주기를 원했다.

3. 그가 말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감독인 키프리안만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나는 키프리안에게 직접 죽음의 칼이 아팠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순교를 당할 사람으로서 그 죽음의 고통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 그러자 감독 키프리안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순교자의 영혼이 이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육신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

5. 한 순교자가 다른 순교자를 향하여 주는 참으로 놀라운 격려의 말이 아닌가! 키프리안은 순교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 칼날이 결코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이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될 자에게 굳건한 용기를 불어넣기 원했던 것이다.

6. 플라비아누스는 계속해서 설명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순교한 후에 나는 꿈속에서 매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했던 순교자 무리에서 나만 혼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유를 말하자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단 말인가? 그로 인해 당신은 두 번이나 고백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그때 칼에 의해서 순교자가 될 것이다.' "[218]

218) 여기서 두 명칭 고백자(confessor)와 순교자(martyr)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백자란 이방인 재판관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형벌을 당하되 죽임을 당하지는 않은 자들의 호칭이며, 순교자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을 위한 호칭인 것이다.

7. 이후 이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즉 플라비아누스는 총독의 비밀 법정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였다. 그리고는 환상에서 미리 본 바와 같이 다른 순교자들과 헤어져 혼자 남았다가 다시 법정에 끌려나와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 순교를 완성한 것이다.

8.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는 이미 수케수스Successus와 파울루스Paulus[219]가 동료들과 함께 순교의 면류관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때 나는 감독 수케수스가 나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과 의복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나는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퍼져 나오는 눈부신 천사의 광채를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9. 간신히 그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교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 명의 군인이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10. 그들은 나를 어떤 장소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총독 앞으로 불려나갔고 총독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1. 그때 갑자기 모인 군중 한가운데서 어머니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찬양하시오, 찬양하시오. 아직 아무도 이런 순교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 정말로 그랬다. 그가 감옥에서 보여주었던 그 특별한 금욕과 절제의 모

---

219) 순교한 감독 수케수스는 아마도 키프리안이 그의 편지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Abbir Germaniciana의 감독 수케수스일 것으로 추정된다. Abbir Germaniciana는 튀니지의 수도인 Tunis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감독 파울루스는 Obba의 감독이었던 파울루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습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그의 순교는 아직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라에서 지급하던 아주 적은 양의 양식에도 그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자기가 먹을 양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거의 매일 금식하다시피 하였다.

22

1. 여기서 나는 왜 플라비아누스가 혼자 이렇게 성대한 행렬의 호위를 받으며 끌려가게 되었는지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수많은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여 모든 것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지침을 주며 길을 갔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는 마치 왕 같았다.
2. 그는 앞으로 순교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임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이미 다스리고 있음을 왕의 행차와 같이 위엄이 가득한 마지막 가는 길에서 보여 주고 있었다.
3.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표적도 빠지지 않았다. 잔잔한 빗줄기가 아주 적당하게 내렸던 것이다. 그것은 많은 면에서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우선은 중간에 비가 옴으로 인해 호기심으로 급하게 달려 나오던 이방인들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순교의 순간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평화의 입맞춤 시간에 이방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함께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220] 더구나 플라비아누스가 "주님이 수난 받으셨을 때처럼 물과

220) 갑자기 내린 비는 하나님께서 순교자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플라비아누스는 약속했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의식은 이방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순교자가 순교 직전에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면 그리스도와 그의 신실한 증인들이 사탄에 대하여 가지는 영원한 승리에 대한 지분을 그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참고. 롬 16:20.

피가 섞이기 위하여"[221]라고 말한 뒤에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한 것이다.

23

1. 이렇게 모든 형제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평화의 입맞춤을 나눈 뒤에 플라비아누스는 푸스키아눔 가까운 곳에 있던 거처에서 나왔다.
2. 그는 연설을 하기에 적당해 보이는 약간 높은 장소로 올라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한 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3.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교회와 평화하고 서로 사랑의 일치를 유지한다면 당신들은 우리와 진정한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마지막 작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222]
4. 마지막으로 그는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루키아누스의 감독직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찬사로 장로 루키아누스를 추천하고 감독직의 승계자로 지명하였다.
5. 그의 이러한 추천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이미 하늘과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는 그가 그런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

221) 플라비아누스는 이때 고대 교회 예배에서 행해지던 물과 포도주를 섞는 의식을 생각하고 있다. 고대 예배에서 물과 포도주의 두 요소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징한다. 포도주와 물을 섞는 의식은 포도주가 물을 받아들임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으며, 포도주에 섞인 물처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때 물과 포도주를 분리할 수 없는 것같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의식을 연상케 하는 플라비아누스의 표현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전 교회가 함께 그 영광을 나누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요 19:34.

222) 참고. 요 15:12.

것이기 때문이다.[223]

6. 마지막 말을 마친 후에 그는 사형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사흘 전에 몬타누스가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었던 천조각으로 눈을 가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의 고난을 완성하였다.

7.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교의 기록인가!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얼마나 고귀한 본보기인가! 이것은 믿음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이유에서 기록되어 보관되었다. 우리가 옛 기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기록으로부터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224]

---

223) 순교를 앞둔 순교자의 유언을 교회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224) 순교자들에 관한 기록을 교회가 그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옛 문서들과 같은 위치에 두고자 하는 점에서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교록의 서론과 매우 유사하다.

19

프룩투오수스[225]의 순교

1

1. 발레리아누스와 갈리에누스가 황제이며 아에밀리아누스와 바수스가 집정관이었던 해[226] 1월 16일 주일에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집사 아우구리우스Augurius와 에울로기우스Eulogius와 함께 체포되었다.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은혜로운 자들, 즉 아우렐리우스Aulerius, 페스투기우스Festucius, 아엘리우스Aelius, 폴렌티우스Pollentius, 도나투스Donatus, 막시무스Maximus가 그의 집을 향했다. 프룩투오수스는 그들의 발

225) 프룩투오수스는 스페인 타라고나(Tarragona)의 감독이었다. 서기 259년 발레리아누스와 갈리에누스 황제 박해시에 순교하였다. 그의 보기 드문 미덕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교도들까지도 그를 매우 사랑하여 그를 화형시키던 원형경기장에 시위 예방을 위해 보초들을 세워야만 했다. 이 문서의 사실성은 입증되었으며 프룩투오수스는 스페인과 아프리카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있다.

226) 서기 259년을 말함.

자국 소리를 듣자 곧 침대에서 일어나 샌들을 신은 채로 그들을 맞으러 밖으로 나갔다.

2. 그에게 군인들이 말했다.

"갑시다. 총독님이 당신과 당신의 집사들을 소환하셨소."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군인들에게 말했다.

"가겠소. 하지만 당신들이 허락한다면 내가 신을 좀 신었으면 좋겠소."

군인들이 말했다.

"좋소. 신을 신으시오."

3. 그들은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프룩투오수스는 주님의 면류관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에 차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형제들도 그와 함께하여 그를 격려하며 자기들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1. 다음날 감옥에서 그는 로가티아누스Rogatianus라는 형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6일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1월 21일 금요일에 총독 앞으로 끌려 나와 심문을 당했다. 총독 아에밀리아누스가 말했다.

"감독 프룩투오수스와 아우구리우스, 에울로기우스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관리가 말했다.

"그들을 입장하게 하라."

2. 총독 아에밀리아누스가 감독 프룩투오수스에게 말했다.

"당신은 황제들이 칙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들었는가?"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말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Christianus sum."

총독 아에밀리아누스가 말했다.

"황제들께서는 신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3. 총독 아에밀리아누스가 말했다.

"당신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말했다.

"모릅니다."

아에밀리아누스가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주님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총독 아에밀리아누스가 말했다.

"신들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숭배한다는 말이냐?"

4. 총독 아에밀리아누스는 집사 아우구리우스에게 말했다.

"프룩투오수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집사 아우구리우스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총독 아에밀리아누스가 집사 에울로기우스에게 말했다.

"너는 프룩투오수스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집사 에울로기우스가 말했다.

"프룩투오수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프룩투오수스도 섬기는 그분을 섬깁니다."

총독 아에밀리아누스가 감독 프룩투오수스에게 말했다.

"당신은 감독인가?"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에밀리아누스가 말했다.

"당신은 감독이었다."

총독은 판결에 따라 그들을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3

1. 감독 프룩투오수스가 그의 집사들과 함께 원형경기장으로 끌려가자 군중은 슬퍼하기 시작하였다. 프룩투오수스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성령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요[227] 이방인들의 교사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독의 도리에 대하여 명시해주신 그대로 살아온 감독이었다.[228] 그러나 프룩투오수스가 그로 인하여 큰 영광에 이를 줄 알고 있었던 형제들은 슬퍼하기보다 도리어 기뻐하였다.

2. 많은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포도주 잔을 권했을 때 프룩투오수스가 말했다.
"아직 금식을 끝낼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4시[229]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수요일에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요일이 되자 그는 기쁨과 확신에 차서 순교자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낙원에서 금식을 마치기 위해 서둘렀다.

3. 그가 원형경기장에 도착하자 곧 그의 성경봉독자인 아우구스탈리스 Augustalis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프룩투오수스에게

227) 참고. 행 9:15.
228) 참고. 딤전 3:1~7.
229) 대략 오전 10시쯤을 가리킨다. 보통 금식은 오후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의 신발을 벗기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순교자가 대답했다.
"아들아, 그냥 놔두어라. 용기 있게 기쁨으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내가 스스로 신을 벗을 것이다."
그가 신을 벗고 난 뒤에 군인인 우리 형제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이름은 펠릭스였다. 그는 프룩투오수스의 오른손을 붙잡으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프룩투오수스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해 뜨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기억할 것이다."

4

1. 그는 원형경기장의 관람석 계단에 서 있었다. 형벌이라기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갈 시간이 이미 가까워졌다. 관청으로부터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은혜로운 자들, 즉 앞에서 열거된 그들에게 그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면하며 말했다.
2. "너희들에게는 목자가 없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과 약속은 장차 미래에서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도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한 순간의 연약함일 뿐이다."
그는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하며 그의 집사들과 함께 구원을 향해 나아갔다. 순교할 자격을 얻은 이들, 순교로 인해 행복한 이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열매를


끓는 가마에서의 순교

맺어가고 있었다.

3.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았으며 그들 가운데 계신 삼위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불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셨으며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러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거닐고 계셨기 때문이다.


스페인 타라고나 원형경기장

4. 그들의 손을 묶고 있던 끈이 불에 타버리자 그들은 기뻐하며 평소의 습관대로 팔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세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보냈다.

5

1. 이 일 후에도 주님의 위대한 일은 다시 한 번 일어났다. 우리 형제 중에 바빌라스Babylas와 뮈그도니우스Mygdonius라는 아에밀리아누스 총독 집안의 노예가 있었다. 그들의 육신적 주인은 아에밀리아누스 총독의 딸이었다. 그들은 몸이 나무기둥에 묶인 채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하늘로 올라가는 프룩투오수스와 그의 집사들을 보았다. 그들은 총독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총독님이 오늘 사형을 내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소망하던 하늘로 돌아갔는지 와서 보십시오."

총독 아에밀리아누스가 도착하였으나 그에게는 그들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6

1. 슬픔에 빠진 형제들은 목자 없이 버려진 양처럼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프룩투오수스가 순교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믿음과 그가 치른 경기를 기억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반쯤 타버린 시신의 불을 완전히 끄기 위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급히 원형경기장으로 왔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유골을 할 수 있는 만큼 수거하여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갔다.
2.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큰 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며,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약속했던 것을 자기 자신의 수난과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도 입증해야만 했던 프룩투오수스가 순교한 후에 형제들에게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각자 집으로 가져갔던 유골들을 즉시 돌려주라고 권고하였다.[230]

7

1. 또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아에밀리아누스에게도 프룩투오수스는 약속한 바와 같이 두 집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복장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아에밀리아누스를 책망하며 조롱하였다. 그는 순교자들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옷을 벗겨 땅바닥에 버리게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2. 오! 복된 순교자들이여! 그들은 값비싼 금같이 불로 연단을 받았으며 믿음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로 옷 입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

---

230) 개인들이 가져갔던 유골들은 다시 수거되어 한 무덤에 안치하게 되었다.

는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오! 복된 순교자들이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주님께서 순교자들의 선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들을 평화롭게 영접하셨다. 주님께 영광과 찬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

마리누스의 순교

1. 도처에서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231]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에서 마리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 참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군대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그는 고귀한 출생과 부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로마인들에게 포도나무 가지로 된 표식은 하나의 명예였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곧 백부장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 포도나무 표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비게 되자 마리누스는 계급에 따라 그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승진 후보였던 한 사람이 마리누스를 고발하며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마리누스가 그리스도인이며 황제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로마법에 의해 로마의 관직

231) 황제 갈리에누스(Gallienus)가 통치하던 260~268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때는 로마제국 전역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혀 없던 기간이었다.

에 오를 수 없으며, 그 자리는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마리누스

3.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요한 재판관 아카이우스Achaeus는 먼저 마리누스에게 의견을 물어 보았다. 마리누스가 단호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자 재판관은 그에게 세 시간의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4. 그가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당시 감독이었던 테오테크누스Theoteknus가 그를 데리고 갔다. 감독은 마리누스와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를 거룩한 곳 앞에 가까이 서게 하였다. 그리고는 마리누스의 겉옷을 살짝 들추어 그의 허리에 찬 검을 가리키는 동시에 맞은편에 놓아 둔 거룩한 복음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마리누스에게 그 두 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명령하였다. 아무 망설임 없이 마리누스는 오른손을 뻗어 거룩한 하나님의 책을 가리켰다. 테오테크누스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오. 그러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당신이 선택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평안히 가시오."
5. 마리누스가 교회에서 나오자, 전령이 큰소리로 외치며 그를 법정으로 오게 하였다. 이미 주어진 시간이 지난 것이다. 재판관 앞에서 그는 더 큰 용기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다. 곧바로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 생을 마감하였다.

21

막시밀리아누스의 재판기록

1

1. 투스쿠스와 아눌리누스가 집정관이던 해[232] 3월 12일 테베스테Teveste[233]의 포룸에 파비우스 빅토르Fabius Victor가 막시밀리아누스와 함께 소환되었다. 그들을 변호할 폼페이아누스Pompeianus도 함께했다. 폼페이아누스가 말했다.

"병역 면제세 책임자[234]인 파비우스 빅토르는 카이사리아[235]의 군지휘관

232) 서기 295년.

233) 현재 알제리의 테베사 지역을 말한다.

234)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로 대부분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한 단위 구역에 속하는 각 조세 단위 지역에서는 해마다 한 명의 군인을 징집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세금의 한 형태인 이 신병 차출 의무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이를 이유로 정부의 관리로부터 토지를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돌아가면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세워 일을 처리하게 했다. 이 일을 맡은 책임자는 신병을 준비하거나 아

인 발레리아누스 퀸티아누스Valerianus Quintianus, 빅토르의 아들이자 선량한 예비 신병인 막시밀리아누스와 함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그에게 신체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사료됩니다."

2. 총독 디온Dion이 말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3. 총독 디온이 말했다.
"그의 키를 재라."
사람들이 그의 키를 자로 재려고 하자 막시밀리아누스가 말했다.
"나는 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총독 디온이 말했다.
"키를 재어라!"
그를 잰 후에 관리가 결과를 낭독하였다.
"175cm입니다."

5. 디온이 관리에게 말했다.
"그에게 표를 받게 하여라!"
막시밀리아누스가 저항하면서 대답했다.
"나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니면 그에 해당하는 면제세를 각 사람에게서 거두는 일을 하였다. 파비우스 빅토르의 경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그 대상이 된 것이다.

235) 마우레타니아의 수도.

2

1. 디온이 말했다.

"죽지 않으려면 군대에 가거라!"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군에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 목을 치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2. 총독 디온이 말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설득했느냐?"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나의 영혼과 나를 부르신 분입니다."

3. 디온이 막시밀리아누스의 아버지 빅토르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오!"

아버지 빅토르가 대답했다.

"그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4. 디온이 막시밀리아누스에게 말했다.

"군대에 가고 표[236]를 받아라!"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 디온이 말했다.

"곧 너를 너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주겠다."

그가 대답했다.

"속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공적이 될 테니까요."

---

236) 가죽끈이나 삼실로 꼰 노끈에 납으로 봉인을 한, 군인의 인식표를 가리킨다.

6. 디온이 관리에게 말했다.

"그에게 표를 달아라!"

막시밀리아누스는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대답했다.

"나는 이 세상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표를 달면 나는 그것을 뜯어버릴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를 받은 후에 납으로 만든 또 다른 표를 목에 거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분을 우리 생명의 인도자이자 구원의 창시자로 따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7. 디온이 말했다.

"불쌍하게 멸망하지 않도록 군 복무를 하고 표를 받아라!"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이름은 주님 곁에 있습니다. 나는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8. 디온이 말했다.

"네 젊은 나이를 생각하고 군 복무를 하거라! 군인이 되는 것이 젊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냐?"



막시밀리아누스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군인으로서 나의 의무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9. 총독 디온이 말했다.

"우리 주 디오클레티아누스과 막시미아누스, 콘스탄티우스와 막시미우스의 거룩한 친위대에도 그리스도인 군인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그들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10. 디온이 말했다.

"군에 복무하는 자들이 무슨 악을 행한단 말이냐?"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 총독 디온이 말했다.

"군 복무를 거부함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군대에 가라!"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나의 주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3

1. 디온이 말했다.

"그의 이름을 지워라!"

그의 이름이 지워지자 디온이 말했다.

"너는 거만하게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그에 마땅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서판에 적힌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막시밀리아누스는 거만하게 군사의 선서 의무를 거부하였으므로 참수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2. 막시밀리아누스는 대답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21년 3개월 18일 동안 살았다. 막시밀리아누스는 사형 집행 장소로 이송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하여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3. 그리고 기쁨에 빛나는 얼굴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나의 군 복무를 위해서 마련해 두셨던 새 옷을 이 사형 집행인에게 주세요. 나의 순교가 완성된 후에 순교자로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 껴안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 곁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곧 사형당했다.

4. 그 후에 폼페이아나Pompeiana 부인이 재판관에게 부탁해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 자기 집에 안치한 후에 다시 카르타고로 이송하였다. 그런 다음 궁전 가까이 순교자 키프리안이 묻혀 있는 낮은 언덕 아래에 장사를 지냈다. 그로부터 13일 후에 이 부인도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5. 또한 그의 아버지 빅토르는 큰 기쁨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주님께로 먼저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도 오래지 않아 그의 뒤를 따를 것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군인으로서 나의 의무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9. 총독 디온이 말했다.

"우리 주 디오클레티아누스과 막시미아누스, 콘스탄티우스와 막시미우스의 거룩한 친위대에도 그리스도인 군인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그들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10. 디온이 말했다.

"군에 복무하는 자들이 무슨 악을 행한단 말이냐?"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 총독 디온이 말했다.

"군 복무를 거부함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군대에 가라!"

막시밀리아누스가 대답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나의 주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3

1. 디온이 말했다.

"그의 이름을 지워라!"

그의 이름이 지워지자 디온이 말했다.

"너는 거만하게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그에 마땅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서판에 적힌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막시밀리아누스는 거만하게 군사의 선서 의무를 거부하였으므로 참수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2. 막시밀리아누스는 대답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21년 3개월 18일 동안 살았다. 막시밀리아누스는 사형 집행 장소로 이송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하여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3. 그리고 기쁨에 빛나는 얼굴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나의 군 복무를 위해서 마련해 두셨던 새 옷을 이 사형 집행인에게 주세요. 나의 순교가 완성된 후에 순교자로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 껴안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 곁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곧 사형당했다.

4. 그 후에 폼페이아나Pompeiana 부인이 재판관에게 부탁해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 자기 집에 안치한 후에 다시 카르타고로 이송하였다. 그런 다음 궁전 가까이 순교자 키프리안이 묻혀 있는 낮은 언덕 아래에 장사를 지냈다. 그로부터 13일 후에 이 부인도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5. 또한 그의 아버지 빅토르는 큰 기쁨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주님께로 먼저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도 오래지 않아 그의 뒤를 따를 것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22

마르켈루스[237]의 재판기록[238]

총독 아그리콜라누스가 통치하던 해 10월 30일 마르켈루스의 순교

1(a)

아스타시우스 포르투나투스Astasius Fortunatus가 총책임자로 팅기스Tingis를 관리하던 해에 황제의 생일 축하 연회[239]가 열렸다. 모두들 잔치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르켈루스라는 백부장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마르켈루스는 군인의 띠[240]를 풀어 군단기 앞에 내던지며 큰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였다.

---

237) 트라얀 군단의 백부장이었던 마르켈루스는 298년 아프리카의 팅기스(현재 모로코의 탕제르)에서 순교하였다. 이후에 그의 유해는 고향인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그는 레온 시의 수호 성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

238) 이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던 공식 속기사 카시우스는 즉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으며, 마르켈루스의 사형언도에 분개하여 기록을 거부하다가 마찬가지로 사형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239)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제였다.

240) 군인의 허리띠는 군인의 계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군인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의미하며, 군인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나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이제부터는 황제들의 군사이기를 거부할 것이며, 나무와 돌로 만든 당신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경멸할 것이다. 그들은 귀먹고 말 못하는 우상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놀라서 그를 붙잡아 감금한 후에 대장 포르투나투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대장은 연회가 끝난 후에 회의실에 앉아 마르켈루스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1(b)

백부장 마르켈루스가 끌려오자 대장 포르투나투스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무슨 생각으로 허리띠를 풀고 허리띠와 백부장의 막대를 던져 버리며 군인의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느냐?"

2

1. 마르켈루스가 대답했다.

"이미 지난 7월 21일 당신들이 황제를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군단기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일 뿐 이 세상의 군인일 수 없음을 분명한 목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2. 대장 포르투나투스가 말했다.

"너의 어리석음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을 황제와 부황제에게 보고하고, 나의 상관이며 카이킬리우스Caecilius를 대신하여 이 지역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총독 아우렐리우스 아그리콜라누스[241]에게 너를 보내야겠다."

241) 정확히는 praefectorum praetorio로 그 당시 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3

1. 10월 30일 팅기스에서 백부장 마르켈루스가 법정에 소환되었다.
법정의 관리가 말했다.
"백부장 마르켈루스를 대장 포르투나투스가 총독님의 법정으로 보내왔습니다. 그의 이름 외에도 편지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편지를 읽겠습니다."
2. 아그리콜라누스가 말했다.
"읽도록 해라."
관리가 편지를 낭독했다.
"나의 주이신 총독님께 포르투나투스가……"

4

1. 편지를 다 낭독한 후에 아그리콜라누스가 말했다.
"서류에서 읽혀진 내용이 사실이냐?"
마르켈루스가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아그리콜라누스가 말했다.
"너는 백부장이라는 계급으로 군 복무를 했느냐?"
마르켈루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2. 아그리콜라누스가 말했다.
"무슨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군인의 맹세를 깨뜨리고 그런 말을 하였느냐?"
마르켈루스가 대답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적개심이 없습니다."
3. 아그리콜라누스가 말했다.

"이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네가 다 말했다는 것이냐?"

마르켈루스가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아그리콜라누스가 말했다.

"무기를 버렸다고?"

마르켈루스가 대답했다.



마르켈루스

"맞습니다. 무기를 버렸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한 군인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1. 아그리콜라누스가 말했다.

"마르켈루스는 규율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백부장으로 군복무를 했던 그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군인의 맹세를 저버리고 모독했다고 고백했으며, 적개심에 가득 차서 앞에서 읽은 대로 서류에 적혀 있는 모든 말을 했음이 명백하므로 참수형에 처할 것을 결정한다."

2.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마르켈루스가 말했다.

"아그리콜라누스 각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순교자 마르켈루스는 이 세상을 떠났다.

23

카시아누스의 순교

1

1. 법정의 속기사[242]였던 카시아누스Cassianus는 황제 직속 부대 소속인 아우렐리아누스 아그리콜라누스가 총독으로 있던 해, 거룩한 순교자 마르켈루스가 심문을 당하던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2. 스페인인 백부장 마르켈루스가 10월 30일 팅기스로 소환되자 아우렐리아누스 아그리콜라누스는 크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그를 배교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마치 국가법의 권위로 그의 굽히지 않는 신앙 고백을 꺾어보려는 것 같았다.

3. 그러나 마르켈루스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하찮은 이 세상의 군사일 수 없음을 권위 있고 당당하게 천명하였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의

242) 법정에서 재판을 기록하던 속기사는 황제 시대에 있던 직업으로서 낮은 계급에 속했다.

눈에는 도리어 마르켈루스가 재판관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아우렐리아누스 아그리콜라누스는 그에게 적개심이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었다.

4. 카시아누스는 재판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위대한 순교자의 신심에 굴복한 아우렐리아누스 아그리콜라누스가 마르켈루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보자 그는 큰 목소리로 저주를 하며 펜과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5. 관리는 놀라서 넋을 잃고 마르켈루스는 미소 짓고 있었으며 아우렐리아누스 아그리콜라누스는 몸을 부르르 떨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왜 저주를 하며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는지 그가 물었다.

6. 총독이 불의한 판결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카시아누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며 속기하는 일을 거부했다. 그러자 아그리콜라누스는 속히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감금하라고 명령하였다.

2

1. 복된 순교자 마르켈루스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카시아누스가 순교의 동반자가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르켈루스는 간절히 사모하던 대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였다.

2.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3일에 카시아누스는 마르켈루스가 심문을 받던 바로 그 장소에 소환되었다. 마르켈루스가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대답을 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마르켈루스에게 순교의 승리를 얻게 해주었던 것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예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4

펠릭스[243]의 재판기록

1

1.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여덟 번째, 막시미아누스가 일곱 번째로 집정관이었던 해[244]에 황제들이 내린 칙령이 제국 전역에 하달되었다. 제국의 전 도시와 식민지를 관리하는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그 지역 감독들과 장로들로부터 그들의 신에게서 온 책들을 압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2. 티비유카Thibiuca[245]에도 6월 5일 이 법령이 선포되었다. 그러자 법무관 막닐리아누스Magnilianus는 그리스도인 원로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243) 펠릭스 아프리카누스(Felix Africanus)라고도 불린다. 티비유카의 감독이었던 펠릭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가져온 최초의 희생자로 기억된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첫 번째 칙령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압수하라는 것이었다.

244) 303년을 말한다.

245)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튀니스 지역에 해당한다.

그날 감독 펠릭스가 카르타고로 떠나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로 아페르Aper와 성경 봉독자 퀴릴루스Cyrillus와 비탈리스Vitalis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2

1. 그들에게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너희들은 신이 만든 책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페르가 대답했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불에 태워버리게 그것들을 내놓아라."
2. 그러자 아페르가 말했다.
"우리 감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그는 어디에 있느냐?"
아페르가 말했다.
"모릅니다."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너희는 총독 아눌리누스에게 가서 해명을 하게 될 때까지 관청의 감시를 받을 것이다."


펠릭스

3

1. 다음날 감독 펠릭스가 카르타고에서 티비유카로 돌아왔다. 막닐리아누스는 관리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감독 펠릭스에게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당신이 감독 펠릭스인가?"

감독 펠릭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과 양피지들을 내놓으시오."

감독 펠릭스가 말했다.

"가지고 있지만 내놓지는 못합니다."

2.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불에 태워버리게 책들을 내놓으시오."

감독 펠릭스가 말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책들을 태워버리느니 차라리 나를 불에 태우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당신의 말보다 황제들이 내린 명령이 우선이다."

감독 펠릭스가 말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사람의 명령보다 중요합니다."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겠소. 만약 당신이 이 지역에서 황제들의 칙령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을 고발장과 함께 총독에게 보낼 것이며 거기서 당신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해야 할 것이오."

4

1. 삼일 후에 법무관이 감독 펠릭스를 소환하여 말했다.

"다시 생각해 보았는가?"

감독 펠릭스가 말했다.

"전에 말한 것을 지금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법무관 막닐리아누스가 말했다.

"총독에게로 당신을 보내겠으니 총독 앞에서 답변을 하시오."

그리고는 티비유카 시 의원인 빙켄티우스 켈시누스Vincentius Celsinus에게 그를 총독에게 이송하도록 넘겨주었다.

5

1. 6월 14일 펠릭스는 티비유카에서 카르타고로 이송되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부사령관에게 넘겨졌고, 부사령관은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다음날 그는 다시 밝은 곳으로 불려나왔다.

부사령관이 말했다.

"당신은 왜 그 불필요한 책들을 건네주지 않는 것이오?"

감독 펠릭스가 말했다.

"내가 그 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부사령관은 그를 감옥의 제일 깊은 곳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16일 후에 감독 펠릭스는 사슬에 묶인 채 총독 앞으로 불려나왔다. 그때가 밤 제4시였다. 아눌리누스가 그에게 말했다.

"왜 하찮은 책들을 내놓으려 하지 않느냐?"

감독 펠릭스가 대답했다.

"나는 그것들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 아눌리누스는 감독 펠릭스를 7월 15일에 참수형에 처할 것을 명령하였다.

6

1. 감독 펠릭스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56년 동안 살아온 나는 순결을 지켰으

며 복음을 지키고 믿음과 진리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영원히 계신 당신께 나의 생명을 제물로 드립니다."

2. 감독 펠릭스는 기도를 마친 후에 군인들에 의해 사형장으로 끌려가 참수되었다. 그리고 카르타고에 있는 '스킬리인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에 묻혔다.

25

다시우스의 순교

1

1. 막시미아누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부도덕하고 무법한 황제들이었다. 이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군인들의 진영에서는 매년 사투르누스 Saturnus(로마세계에서의 농경신, 새턴Saturn)의 성대한 축제를 벌이는 관습이 있었다.
2. 다른 어떤 날들보다 사투르누스의 날에는 그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바쳐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 역할을 맡도록 선택된 사람은 사투르누스의 날까지 30일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왕의 옷을 입고 사투르누스와 같은 차림으로 대중 앞에 나섰으며 많은 군인들이 그를 수행하고 그 앞에 정렬하였다. 그에게는 그가 원하는 모든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욕망을 행하며 악마적인 쾌락을 탐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3. 그러나 30일이 지나고 사투르누스 축제의 날이 오면 왕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은 관습에 따라 행하던 추하고 저속한 놀이를 끝내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검으로 살해되어 이름도 알지 못하는 흉측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

2

축제의 주인공으로 다시우스가 선출되었다. 그는 가시 속의 장미처럼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사투르누스 축제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환호를 받았으며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았다.

3

1. 이 저속한 전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불행하게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 세상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추악한 관습도 끝나지 않고 도리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2.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의 행렬을 따르며 사탄의 형상으로 가장하였다. 그들은 염소 가죽을 두르고 얼굴을 변장하였다. 그들은 선으로 거듭났으나 그 선을 던져버리고, 원래 그들이 태어났던 악에 머무르고 있었다.
3.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사탄과 그의 행렬을 떠났던 자들이 악하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통해 다시 사탄을 경배하고 있었다.

4

1. 다시우스는 이런 전통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과 그 속임수를 함께 경멸하고 사탄과 행렬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사탄을 이겨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 진군하였다.
2. 지혜로운 그는 거룩한 열심에 불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30일 동안 이 저속한 관습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혐오하고 멀리하는 귀신들을 섬긴다면 나는 나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 내어주는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명도 저주스럽게 빼앗길 것이다. 30일 후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사투르누스의 향연이 끝나고 나의 목숨을 단검에 내어주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약속을 믿고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단검에 내어주면 나는 생명을 잃은 후에 다시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이다.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짧은 고문과 처벌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 후에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5

1. 사투르누스의 그 유명한 축제를 열기 위해서 다시우스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할 그날이 다가왔다.

2. 다시우스가 자기를 강요하는 군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에게 그런 추악한 일을 강요하여 우상 사투르누스에게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게 한다면 나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편을 택하겠다."

3.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그를 속히 어두운 감옥에 가두었다. 다음날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부총독 바수스Bassus의 관사로 끌고 갔다.

6

부총독 바수스가 앉아 있는 단 아래에 다시우스가 끌려와 있었다. 그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본 뒤 바수스가 말했다.

"너의 직업은 무엇이며, 이름은 무엇인가?"

다시우스가 담대하고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나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며,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다시우스입니다."

7

1. 부총독 바수스가 말했다.

"평화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며 매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염려하는 우리의 주 황제들을 위하라."

2. 다시우스가 대답했다.

"이미 말했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늘에 계신 왕을 위해서만 싸울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선물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8

1. 부총독 바수스가 말했다.

"다시우스, 우리 황제들의 거룩한 그림 앞에 간절히 빌어라. 이방 민족들도 모두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다."

2. 복된 순교자 다시우스가 대답했다.

"이미 여러 번 고백한 바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순전하며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일체의 하나님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세 번이나 거룩한 삼위 일체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탄의 진노를 속히 이기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1. 부총독 바수스가 말했다.
"다시우스, 너는 모든 인간이 왕의 권위와 거룩한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온정을 베풂으로 인해 네가 겁없이 나에게 이런 자신 있는 대답을 하고 있구나."
2. 그리스도께 복 받은 경건한 경기자 다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경건하지 않은 황제들이 명령한 것을 행하십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결심한 믿음을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지킬 것이며, 또한 이러한 나의 신앙 고백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명령이나 협박으로도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10

1. 부총독 바수스가 말했다.
"보라! 너에게 두 시간의 여유를 주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하여 우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라."
2. 다시우스가 대답했다.
"두 시간의 여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의 소원과 결심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황제들과 그들의 영광을 저주하고 혐오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저곳에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11

1. 그러자 부총독 바수스는 그에게 많은 고문을 가한 뒤 참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로 떠나는 그를 어떤 인도자가 향을 피우는 제단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2. 그가 다시우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하자 다시우

스는 그 향을 빼앗아 사방에 뿌리며 사악한 우상들을 땅바닥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이마에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 성호를 그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는 힘 있게 독재자와 대항하여 싸웠다.

12

1. 거룩한 순교자는 11월 20일 금요일 네 번째 시, 월력으로는 24일에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는 사형 집행인 아니케투스 요안네스Anicetus Ioannes에 의해 참수당했으며 평안하게 순교를 완성하였다.
2. 다시우스는 도로스토룸[246]에서 막시미아누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다스리던 해[247]에 부총독 바수스의 심문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순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246) 소아시아의 미시아(Mysia)에 있는 도시.
247) 서기 303년.

26

아가페, 에이레네, 키오네와 동료들의 순교[248]

1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은혜가 클수록 거룩한 자들의 승리도 그만큼 크고 위대하였다. 눈에 보이는 원수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패배를 당하고 그 악한 영들의 계획이 성령 충만하며 순결하고 경건한 여성들로 인하여 불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2. 거룩한 세 처녀가 데살로니가에서 왔다. 데살로니가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바울로부터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던 도시다. 바울은

248) 이들은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서 순교하였다. 303년 기독교 저술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었다. 이교도 아버지를 두었던 이들은 여러 권의 성경을 숨겨 가지고 있었으며, 성경을 자유롭게 읽지 못하자 산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체포된 것은 성경 때문이 아니라 제사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에이레네의 언니인 아가페와 키오네가 화형당한 이후에 그녀의 집이 수색을 당하고 그곳에서 성경이 발견되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24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250]라고 말했다.

막시미아누스의 칙령에 따라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덕을 갖추며 복음의 법에 순종하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늘에 있는 보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고향과 가족과 재산과 부를 버렸다. 이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행하였으며,[251] 계명에 따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하여,[252] 어떤 높은 산에 이르렀다.

3. 그들의 몸은 산꼭대기에 머물고 있었으나 기도에 전념한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서 거닐고 있었다.

2

1. 그들은 그곳에서 체포되어 총독에게 끌려갔다. 그것은 그들이 남은 계명을 완수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였다.
2. 그들 중에서 세례의 빛나는 순결을 지키던 여인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Χιόνα보다 희리이다.'[253]라고 한 거룩한 선지자의 말과 같이 키오네Χιόνη라는 이름의 처녀였다. 또 한 처녀는 우리 하나님과 구세주의 선물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으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254]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평안을 보여 주었다.

---

249) 살전 1:8.
250) 살전 4:9.
251) 참고. 창 12~14장.
252) 참고. 마 10:23.
253) 시 51:7.
254) 요 14:27.

3. 사람들은 그녀를 에이레네(평강)라고 불렀다. 또 다른 처녀의 이름은 아가페(사랑)였다. 그녀는 교훈의 목적에 도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다. '교훈의 목적은……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255] 거룩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녀의 이름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것이었다.

4. 총독 앞으로 끌려간 세 처녀가 제사드리기를 거부하자 총독은 그들에게 화형을 선고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잠시 잠깐 불의 고난을 통하여 사탄과 하늘의 악한 영들로 이루어진 모든 군대를 이기고,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며, 천사들과 함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 대한 재판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3

1. 재판관 자리에 총독 둘키티우스Dulcitius가 앉아 있고, 법정의 서기 아르테미시우스Artemisius가 말했다.

"총독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의 수비대에서 여기 있는 자들에 대해 총독님께 보내온 문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총독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낭독하라."

서기가 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하사관[256] 카산드루스Cassandrus가 나의 주 총독님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총독께 보내는 아가톤, 에이레네, 아가페, 키오네, 카시아, 필립파, 유

---

255) 딤전 1:5.

256) '하사관'이라는 번역이 적합하지는 않다. 원래의 단어는 로마 군인 계급의 하나인 베네피카리우스(beneficarius)로 되어 있다. 베네피카리우스는 상관의 총애를 받아 힘든 업무를 맡지 않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장교보다 계급이 낮은 군인을 말한다.

티키아는 제사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총독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신들의 총애를 받는 황제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너희의 행동은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그리고 그는 아가톤에게 말했다.

"왜 너는 다른 경건한 사람들처럼 성전에 가서 신들의 호의를 구하지 않느냐?"

아가톤이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3. 총독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오늘도 너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이냐?"

아가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아가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아가페가 대답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4. 총독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에이레네,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주이며 왕이신 황제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느냐?"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키오네?"

키오네가 대답했다.



에이레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독이 말했다.

"카시아, 너의 생각은?"

카시아가 대답했다.

"나는 나의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5. 총독이 말했다.

"너는 우리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겠는가?"

카시아가 대답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총독이 말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필립파?"

필립파가 대답했다.

"그것을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총독이 말했다.

"유티키아,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티키아가 대답했다.

"나도 같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6. 총독이 말했다.

"남편이 있느냐?"

유티키아가 대답했다.

"죽었습니다."

총독이 말했다.

"언제 죽었는가?"

유티키아가 대답했다.

"약 일곱 달 전에 죽었습니다."

총독이 말했다.

"네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냐?"

유티키아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의 아이입니다."

7. 총독이 말했다.

"남편은 죽었다면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유티키아가 대답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총독이 말했다.

"유티키아, 제발 그런 미친 짓을 그만두고 이성을 되찾기를 부탁한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유티키아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총독이 말했다.

"유티키아, 당신은 임신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4

1. 그리고 총독은 심문을 계속하였다.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가페? 우리가 우리의 주며 왕이신 황제들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모든 것을 너도 행하겠느냐?"

아가페가 대답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나의 결심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총독이 말했다.

"너의 생각은, 키오네?"

키오네가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의 결심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2. 총독이 말했다.

"당신들은 그 불경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이나 사본이나 책을 가지고 있는가?"

키오네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황제들이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총독이 말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신념을 갖게 하였느냐?"

키오네가 대답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총독이 물었다.

"너희들로 하여금 이 같은 광신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키오네가 대답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총독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주며 왕이신 황제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성을 잃은 채 오랫동안 그들의 명령을 무시해왔다. 그렇게 많은 칙령과 큰 위협이 반포되었는데도 너희는 우리의 주며 왕이신 황제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건하지 못한 이름을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수비대원들과 장교들이 너희에게 그리스

도를 부인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할 것을 간절히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가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4. 그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아가페와 키오네는 악의를 가지고 우리 주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적인 칙령을 완강히 대적하며, 어리석고 경박하며 역겨운 그리스도인들의 종교를 고백하기에 화형에 처할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였다.
"아가톤, 에이레네, 카시아와 필립파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허락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5

1.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 화형을 당한 뒤에 에이레네는 다시 심문을 받게 되었다.
총독 둘키티우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신을 공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전을 기록한 많은 양피지와 책들, 서판과 파피루스를 오늘까지도 보관하려 했다니 너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자백해야만 했는데 너는 그것을 부인하였다. 너의 자매들이 처형당한 것을 보고도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며 눈앞에 있는 죽음을 보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2. 그러므로 너를 처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너에게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어 줄 수는 있다. 지금이라도 네가 신들을 섬기겠다고 하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며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고 오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으며 신들에게 제사지낼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의 큰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총독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누가 너에게 그 책과 문서들을 오늘까지 몰래 보관하도록 설득하였는가?"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산 채로 화형당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책들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4. 총독이 말했다.

"네가 살고 있던 집에 그 책들이 있던 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보다 위험하게 생각했으며 그들에게조차 그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를 고발했을지도 모릅니다."

5. 총독이 말했다.

"우리의 주며 왕이신 황제들의 중대한 칙령이 처음으로 반포된 작년에 너희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떤 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총독이 물었다.

"누가 너희와 함께 있었느냐?"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우리는 하늘을 지붕 삼아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숨어 있었습니다."

6. 총독이 물었다.

"누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었는가?"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총독이 물었다.

"너희 아버지도 알고 있었는가?"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하거니와,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7. 총독이 물었다.

"그러면 이웃 중 누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우리가 있던 곳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직접 그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총독이 물었다.

"네가 말한 대로 너희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그 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준 적이 있는가?"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그 책들은 우리 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것들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낮 읽던 그 책을 숨겨놓은 후, 더 이상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8. 총독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너의 언니들은 이미 판결에 따라 화형을 당했다. 네가 산으로 도피했으며 그 책과 양피지들을 숨긴 사실이 발각되기 전부터 이미 너는 유죄 판

결을 받았지만 너의 언니들과 같은 방식으로 속히 죽을 수 있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도시의 경찰들과 관노 조시무스Zosimus에게 너를 알몸으로 사창가에 보낼 것을 명령하겠다. 너는 궁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하루에 빵 한 덩이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며 한순간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감시할 것이다."

6

1. 경찰들과 관노 조시무스가 안으로 들어오자 총독이 말했다.

"너희가 나의 허락 없이 그녀를 명령받은 그 장소에서 한시라도 벗어나게 하면, 그 즉시 너희도 같은 중죄로 다스릴 것임을 잘 알고 있겠지? 에이레네의 방과 장롱에서 압수한 책들은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려라!"

2. 사람들은 총독의 명령에 따라 에이레네를 끌고 나와 명령된 장소 즉 매춘굴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녀가 순결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으며 한마디 희롱하는 말조차도 하려는 자가 없었다. 총독 둘키티우스가 그녀를 다시 불렀다. 총독은 재판관 석에 앉아서 그녀에게 말했다.

"여전히 그 정신 나간 짓을 고집하겠는가?"

에이레네가 대답했다.

"그것은 정신 나간 짓이 아니라 신앙심입니다."

3. 총독 둘키티우스가 말했다.

"전에 너에게 내려진 판결에서도 네가 황제들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네가 그 광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마땅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는 파피루스를 달라고 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에이레네, 그녀는 황제들의 명령에 복종하여 제사지내기를 거부하였으

며, 그리스도인의 종교 섬기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두 언니와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산 채로 화형에 처할 것을 명령한다."

7

1.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자 그녀는 총독의 재판정 밖으로 끌려 나왔다. 군인들이 그녀를 끌고 어떤 언덕으로 올라갔다. 전에 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그곳에서 순교했다. 그들은 많은 장작더미를 준비하지 않고 그녀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하였다.
2. 에이레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아홉 번째로, 막시미아누스 황제가 여덟 번째로 집정관이었던 해[257] 4월 3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가운데 에이레네는 순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

257) 서기 304년.

27

유플루스의 재판기록

1

1.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아홉 번째, 막시미아누스가 여덟 번째로 집정관이었던 해[258] 8월 12일 카타니아Catania[259]에서 비밀 재판실의 휘장 뒤에 서 있던 집사 유플루스Euplus가 이렇게 말하며 소리쳤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갈망하고 있다."

지방 총독 칼비시아누스Calvisianus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지금 소리친 자를 들어오게 하라."

2. 유플루스가 복음서를 들고 비밀 재판실 안으로 들어오자 막시무스라는 칼비시아누스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말했다.

---

258) 304년을 말한다.

259)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저 사람이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3. 지방 총독 칼비시아누스가 유플루스에게 말했다.

"이것들은 어디에서 났느냐? 너의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냐?"

유플루스가 대답했다.

"나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4. 지방 총독 칼비시아누스가 말했다.

"그것들을 네가 이리로 가져 왔느냐?"

유플루스가 말했다.

"총독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가져왔습니다."

5. 칼비시아누스가 말했다.

"그것들을 읽어 보아라."

유플루스가 복음서를 펴서 낭독하였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260]"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 낭독하였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261]"

6. 유플루스가 또 다른 말씀을 낭독하자 지방 총독 칼비시아누스가 말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유플루스가 말했다.

"내가 전해 받은 우리 주님의 법입니다."

---

260) 마 5:10.
261) 막 8:34.

지방 총독 칼비시아누스가 말했다.

"누구에게서 전해 받았다는 것이냐?"

유플루스가 대답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지방 총독 칼비시아누스가 중간 판결을 내리며 말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그는 고문을 받고 심문도 받아야 한다.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라."

유플루스가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진 후에 다시 두 번째 심리가 시작되었다.

2

1.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아홉 번째, 막시미아누스가 여덟 번째로 집정관이었던 해 8월 12일에 지방 총독 칼비시아누스가 고문대에 묶여 있는 유플루스에게 말했다.

"네가 신앙 고백을 통해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말하려느냐?"

유플루스는 묶이지 않은 손으로 자기 이마에 십자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지금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성경을 읽습니다."

2. 칼비시아누스가 말했다.

"너는 왜 황제들이 금지한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았느냐?"

유플루스가 대답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들을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을 넘겨주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 책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놓을 것입니다."

3. 칼비시아누스가 다시 중간 판결을 내리며 말했다.

"유플루스는 황제의 칙령을 어기며 성경책들을 넘겨주지 않고 백성들에

게 읽어주었으므로 고문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문을 받으면서 유플루스가 말했다.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고난을 겪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4. 지방 총독 칼비시아누스가 말했다.

"유플루스, 이런 미친 짓을 그만두어라. 신들을 경배하라. 그러면 너를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유플루스가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께만 경배하며 귀신들을 저주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것을 오랫동안 소원해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도 더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플루스를 오랫동안 고문한 후에 칼비시아누스는 고문을 멈추라고 명령하였다.

5. 그리고 칼비시아누스가 말했다.

"불쌍한 사람아, 신들을 경배하라. 마르스와 아폴론과 아이스쿨라피우스를 섬겨라."

유플루스가 말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룩한 삼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만들지 않은 신은 모두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6. 총독 칼비시아누스가 말했다.

"석방되기를 바란다면 제사를 드려라."

유플루스가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께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이상 바라지 않습니

다. 총독님도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칼비시아누스는 유플루스를 다시 한 번 더 가혹하게 고문하라고 명령했다.

고문을 당하면서 유플루스가 말했다.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여. 당신 때문에 제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플루스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자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이런 저런 말을 했다.


유플루스

3

1. 칼비시아누스는 휘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판결문을 불러주었다. 그리고는 판결문이 적힌 서판을 들고 밖으로 나와 낭독하였다.

"그리스도인 유플루스는 황제들의 칙령을 무시하여 신들을 경외하지 않고 모독하였으므로 참수형으로 처벌할 것을 명령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2. 유플루스의 목에 그가 체포될 때 가지고 있던 복음서를 매달아놓게 하였다.

포고자가 큰소리로 외쳤다.

"그리스도인 유플루스는 신과 황제들의 원수다."

3. 유플루스가 기뻐하며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간 후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목을 내밀어 사형 집행인에 의해 참수되었다.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향료를 넣은 후 장사를 지냈다.

28

이레네우스의 순교

1

1.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류의 경기들을 싸우며 군주들이 가하는 형벌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의 종, 시르미움Sirmium[262]의 감독 이레네우스Ireraeus에게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형제들에게 그의 승리에 대해 알리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감독 이레네우스는 타고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바른 일을 행하려고 힘쓰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이름[263]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

262) 오늘날 세르비아의 스렘스카 미트로비차(Sremska Mitrovica)를 말한다.
263) '이레네우스'는 그리스어로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2

1. 그는 체포되어 판노니아Pannonia[264] 속주의 총독인 프로부스Probus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 프로부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신성한 법령을 준수하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감독 이레네우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265]"

2. 총독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황제들께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고문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귀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문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3. 총독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아니면 너를 고문할 것이다."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총독님이 그렇게 하면 나는 기쁠 것입니다. 주님의 수난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4. 총독 프로부스가 그를 고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를 매우 가혹하게 고문한 후에 총독이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레네우스, 이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제사를 드려라."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

264) 지금의 헝가리 지역을 말한다.

265) 참고. 출 22:20.

"선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늘 제물을 드려 왔던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3

1. 그때 그의 부모가 와서 그가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와서 그의 발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자들은 슬픈 얼굴로 그의 젊은 나이에 호소하였습니다.
2. 부모의 슬픔과 눈물, 가속들의 탄식, 이웃 사람들의 통곡 소리, 친구들의 애통함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의 젊은 나이를 불쌍히 여겨라."
3. 그러나 이레네우스는 이미 말한 것처럼 더 숭고한 욕망에 사로잡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266]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눈앞에 바라보며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아무에게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총독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사람들의 눈물을 보아서라도 마음을 돌리고 너의 어리석은 행위를 포기하라. 너의 젊은 나이를 생각하고 제사를 드려라."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영원히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

266) 마 10:33.

5. 프로부스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그곳에 갇혀서 여러 가지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4

1. 어느 날 한밤중에 이레네우스는 법정에 앉아 있는 총독 프로부스에게 재판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보내졌습니다.

2. 프로부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제사를 드려라, 이레네우스."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황제들이 명령한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3. 화가 난 프로부스는 그를 몽둥이로 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레네우스가 대답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어려서부터 섬기라고 배워온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은 나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용기 있게 하십니다. 나는 그분께만 예배 드릴 것이며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4.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라. 이미 네가 겪은 고문들로 족하지 않은가."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총독님은 총독님이 내린 형벌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5.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있느냐?"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있느냐?"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부모는 있느냐?"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6.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심문을 받을 때 너를 위해 운 자들은 누구냐?"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267]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7.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주의를 집중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8.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그들 때문에라도 제사를 드려라."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에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총독님은 명령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9.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잘 생각하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도록 제사를 드려라."

267) 마 10:37.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 곧 총독님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속임수에 대항하여 나에게 얼마나 큰 인내심을 주시는지 볼 것입니다."

10. 프로부스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판결을 내리겠다."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는 기쁠 것입니다."

11. 프로부스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법령에 불순종한 이레네우스를 강물에 빠뜨려 처형할 것을 명령한다."

12. 이레네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갖가지 협박과 더 많은 고문, 그런 다음에는 칼로 처형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총독님은 그 중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니 이것들을 행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총독님이 아시기 바랍니다."

5

1. 그러자 프로부스는 너무 분노해서 그를 먼저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자는 마치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여러 형벌과 고문을 통해 인내를 주셨으며 나에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3. 곧 다이애나의 다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끌려간 그는 옷을 벗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레네우스

4.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천사들이 당신의 종 이레네우스의 영혼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 이레네우스는 당신의 이름과 시르미움 교회에 속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수난을 당합니다.

5.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나를 받아 주시고, 이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6. 그런 다음 그는 사형 집행인으로부터 참수되어 사우스Saus[268] 강에 던져졌습니다.

6

하나님의 종 시르미움의 감독 이레네우스는 4월 6일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이며 프로부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26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순교하였습니다.

268) 판노니아에 있으며 도나우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다.
269) 304년.

29

율리우스[270]의 재판기록

1

1. 신실한 자들에게 다가온 영광스러운 경기를 통하여 영원한 약속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박해의 때에 율리우스도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총독 막시무스에게 끌려갔다.

2. 총독 막시무스가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관리가 말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려 합니다."

270) 율리우스(Julius)는 302년 모이시아(Moesia, 지금의 불가리아)의 도로스토룸에서 순교하였다. 27년간 로마 군대에 종사한 고참 군인이었으며, 동료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하였다. 그는 이시키우스, 발렌티누스 등 4명의 군인들과 함께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총독이 말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율리우스입니다."
총독이 말했다.
"율리우스,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에 대한 이 말이 사실이냐?"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 외에 어느 것도 되지 않겠습니다."

4. 총독이 말했다.
"그러면 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황제들의 명령을 무시하겠다는 말이냐?"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총독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살아 계신 참 나의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

1. 총독 막시무스가 말했다.
"제사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내가 군대에서 헛된 나날을 보내기는 했어도 죄를 짓거나 싸움을 하다가 법정에 끌려온 적은 없습니다.

2. 나는 7번이나 전쟁에 출정하여 그때마다 어느 누구의 뒤에 선 적이 없으며 누구보다 용감하게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황제께서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충성한 내가 그보다 훨씬 좋은 일에 대해서 신의 없는 자처럼 행동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 총독 막시무스가 말했다.

"군에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무장 군인이었습니다. 고참병으로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섬깁니다."

4. 총독 막시무스가 말했다.

"율리우스, 내가 보기에 너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총독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총독 막시무스가 말했다.

"네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내 말을 따르라. 네가 쓸데없이 내 말을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너에게 많은 돈을 마련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나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며 10년치의 월급을 보너스로 받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6.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아무리 많은 사탄의 돈이나 당신의 교묘한 유혹도 나에게서 영원한 빛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야 할 판결을 내게 내리십시오."

3

1. 총독 막시무스가 말했다.

"황제의 명령을 따르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의 머리를 벨 것이다."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경건하신 총독님, 황제들의 안녕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이제는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2. 총독 막시무스가 말했다.

"네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제사드리기를 거부한다면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영원한 칭찬을 얻을 것입니다."

3. 막시무스가 말했다.

"네 마음을 돌려라. 조국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너에게 영원한 칭찬이 있을 것이다."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합니다."

4. 막시무스가 말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 살아 있는 황제들보다 죽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며 그를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5. 막시무스가 말했다.

"너를 불쌍히 여겨 다시 한 번 충고한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라."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당신들과 함께 산다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6. 막시무스가 말했다.

"내가 너를 죽이게 되지 않도록 내 말을 듣고 제사를 드려라."

율리우스가 대답했다.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7. 그러자 총독 막시무스가 판결을 내렸다.

"황제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율리우스를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한다."

4

1. 율리우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자 모두들 그에게 입맞추었다. 율리우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모두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보냅니다."

2. 이시키우스Isichius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군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거룩한 순교자 율리우스에게 말했다.

"율리우스여, 기쁨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곧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또한 선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미 우리를 떠나 주님께 먼저 가 있는 하나님의 종인 형제 발렌티누스Valentinus에게 인사를 꼭 전해 주십시오."

3. 율리우스가 이시키우스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율리우스

"형제여, 빨리 오시오. 당신이 부탁한 대로 그에게 당신의 인사를 꼭 전하겠습니다."

4. 그는 수건을 받아서 자기의 눈을 가린 다음 목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당신의 거룩한 순교자들과 함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5. 사탄의 하수인이 칼을 들어 율리우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을 맞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30

클라우디우스, 아스테리우스와 동료들의 재판기록

1

1. 리키아Lycia 주[271]의 총독 리시아스Lysias가 아이기아Aegea 시의 재판정에 앉아서 말했다.
"이 도시의 의회에 공식적으로 고발된 그리스도인들을 재판하도록 데려오라."
2. 인적 기록 담당관인 유탈리우스Euthalius가 말했다.
"총독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기아 시 의회는 체포한 그리스도인들을 이곳에 소환하였습니다. 그들은 세 형제와 어린 아기가 있는 두 명의 여자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명철하신 총독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귀하신 총독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271) 소아시아의 서남부 지역.

3. 총독 리시아스가 말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클라우디우스Claudius입니다."
총독 리시아스가 말했다.
"미친 짓으로 너의 젊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가서 우리 주 황제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라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고문을 피하라."
4. 클라우디우스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선과 의로운 행위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신들은 더러운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제사를 기뻐하며 자기를 숭배하는 영혼들을 영원히 멸망하게 합니다. 총독님은 결코 내가 그들을 섬기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5. 그러자 총독 리시아스는 그를 몽둥이로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다른 방법으로는 너의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클라우디우스가 말했다.
"아무리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해도 절대로 나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6. 총독 리시아스가 말했다.
"우리 주 황제들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다. 이를 거역하는 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을 돌리는 자는 명예와 선물을 받을 것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말했다.
"그들이 주는 선물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줍니다."
7. 그러자 총독 리시아스가 그를 고문대에 매달아 발 밑에 불을 피우고 그의 발뒤꿈치 일부를 잘라내어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클라우디우스가 말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이나 고문으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8. 그러자 총독 리시아스는 그를 쇠갈퀴로 고문하라고 명령하였다.

클라우디우스가 말했다.

"당신이 귀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내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고문을 통해서 당신은 나를 결코 해칠 수 없으며,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9. 총독 리시아스가 말했다.

"가장 날카로운 사금파리를 취하여 그의 옆구리를 찌르고 양초에 불을 켜 그에게 대어라."

총독이 명령한 대로 되자 클라우디우스가 말했다.

"불과 당신이 주는 형벌은 내 영혼에 구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부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총독 리시아스는 진노하며 그를 고문대에서 끌어내어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2

1. 인적 기록 담당관 유탈리우스가 말했다.

"총독이시여, 높으신 당신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형제 아스테리우스 Asterius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총독 리시아스가 말했다.

"너도 신들을 믿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불복종하는 자들을 위

해 예비된 형벌을 네 눈앞에 보게 될 것이다."

2. 아스테리우스가 말했다.

"하늘에 계시면서 크신 능력으로 겸손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도록 부모님께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총독님이 섬기는 그 신들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주장은 모두 꾸며낸 것이며 진리가 아닙니다."

3. 그러자 리시아스는 그를 고문대에 매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의 옆구리를 비틀어라. 그리고 그에게 신들을 믿고 제사를 드리게 하라."

아스테리우스가 말했다.

"나는 조금 전 당신의 질문에 답하던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나와 형의 영혼은 하나이며 신앙 고백도 하나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나의 육신은 당신의 권세 아래 있으나 나의 영혼은 아닙니다."

4. 리시아스가 말했다.

"쇠지렛대를 들어서 그의 발에 묶어라.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느낄 정도로 세게 비틀어라."

아스테리우스가 말했다.

"어리석고도 미친 짓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고문하고 괴롭히십니까? 당신 눈에는 당신에게 이 모든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5. 리시아스가 말했다.

"숯에 불을 붙여 그의 발에 대어라. 그리고 단단한 채찍과 몽둥이로 그의 등과 배를 마구 때려라."

이 모든 고문을 당한 뒤에 아스테리우스가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내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상하지 않은 데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리시아스가 말했다.

"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가두어라."

3

1. 인적 기록 담당관 유탈리우스가 말했다.

"네온Neon이라는 그들의 셋째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리시아스가 말했다.

"아들아, 너는 가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고문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네온이 말했다.

"당신의 신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신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그 신들을 대신하여 변호할 필요가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신들의 악의의 협력자라면 나는 그 신들이나 당신보다 훨씬 나은 자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 당신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총독 리시아스가 말했다.

"그의 목을 부러뜨려서 신들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네온이 말했다.

"진리를 말하는 내가 당신에게는 신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리시아스가 말했다.

"그의 발을 잡아 늘이고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뒤 채찍으로 그의 등을 세게 쳐라."

3. 그 모든 일을 겪은 뒤에 네온이 말했다.

"나는 참으로 나에게 유익하며 내 영혼을 이롭게 할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나의 결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리시아스가 말했다.

"인적 기록 담당관 유탈리우스와 체형 집행인 아르켈라우스의 감시하에,

이 죽어 마땅한 세 형제를 성 밖으로 끌고나가,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게 하라."

4

1. 인적 기록 담당관 유탈리우스가 말했다.
"주여, 고귀하신 당신의 명령에 따라 돔니나Domnina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리시아스가 말했다.
"여자여, 너를 위해 준비된 불과 형벌들이 보이느냐? 그것들을 피하고 싶다면 가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2. 돔니나가 말했다.
"영원한 불과 형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의 신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돌과 나무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3. 리시아스가 말했다.
"그 여자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몸을 잡아 늘이고 사지를 몽둥이로 쳐라."
체형 집행인 아르켈라우스가 말했다.
"고귀하신 총독 각하, 돔니나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총독 리시아스가 말했다.
"시체를 강물 깊은 곳에 던져버려라."

5

1. 인적 기록 담당관 유탈리우스가 말했다.
"테오닐라Theonilla가 여기 있습니다."
총독 리시아스가 말했다.

"여자여, 반항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불과 형벌들이 너에게도 보일 것이다. 그 형벌을 피하도록 가서 신들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려라."

2. 테오닐라가 말했다.

"나는 불의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는 이들의 불보다 몸과 영혼을 사를 수 있는 영원한 불을 두려워합니다."

3. 리시아스가 말했다.

"따귀를 때려라. 그리고 그녀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발을 묶어 세게 비틀어라."

고문을 당한 뒤에 테오닐라가 말했다.

"외국에서 온 자유인 여인을 이렇게 고문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4. 리시아스가 말했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매달고 따귀를 때려라."

테오닐라가 말했다.

"나를 알몸으로 세워 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친과 부인까지도 나를 통해 수치로 옷 입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여자들이니까요."

5. 리시아스가 말했다.

"너에게는 남편이 있느냐? 아니면 과부인가?"

테오닐라가 말했다.

"오늘까지 23년을 살았으며 아직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홀로 있으며, 더러운 우상들을 떠나 하나님을 안 날부터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6. 리시아스가 말했다.

"그녀가 수치를 당하게 날카로운 칼로 그녀의 머리를 밀어라. 그런 다음 가시떨기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네 기둥에 사지를 묶고 등뿐 아니라 몸

전체를 채찍으로 쳐라. 그리고 그녀의 배 위에 숯불을 얹어라. 그녀가 그렇게 죽으리라."

인적 기록 담당관 유탈리우스와 체형 집행인 아르켈라우스가 말했다.

"그녀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7. 리시아스가 말했다.

"자루를 가져다가 그녀의 시체를 담고 단단히 묶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유탈리우스와 아르켈라우스가 말했다.

"고귀하신 각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6

이것은 아우구스투스와 아리스토불루스Aristobulus가 집정관이던 해[272] 총독 리시아스가 통치하던 아이기아에서 8월 23일에 있었던 순교의 기록이다. 이 거룩한 순교자들의 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있을지어다.

272) 285년.

31

크리스피나[273]의 재판기록

1

1.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아홉 번째, 막시미아누스가 여덟 번째로 집정관이었던 해[274] 12월 5일 식민지 테베스테Colonia Thebeste[275]에서 총독 아눌리누스Anulinus가 비밀 법정에 앉아 있었다. 인적 기록 담당관이 말했다.

"타고라Thagora[276]에 사는 크리스피나, 그녀는 우리 황제들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총독께서 명령하시면 그녀를 심문하겠습니다."

---

273) 크리스피나(Crispina)는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다. 결혼을 하여 자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거스틴의 설교에서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 유명해졌으며, 그녀의 무덤을 찾는 수많은 순례 행렬로 인해 400년경 순례 성지가 조성되었다.

274) 304년.

275) 오늘날 알제리의 테베사(Tebessa).

276) 오늘날 튀니지의 타가윈(Tagarwin).

2. 총독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크리스피나가 안으로 들어오자 총독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크리스피나, 황제들의 신성한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잘 모릅니다."

3.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거룩하신 황제들 우리 주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 고귀하신 부황제들 콘스탄티우스와 막시무스께서 내리신 법에 따라 황제들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인간으로 나시고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이시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나는 결코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4. 총독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미신을 버리고 로마 신들의 제단에 너의 머리를 숙여라."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5.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너는 참으로 완악하여 나의 말을 멸시하는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기꺼이 법의 힘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겠다."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굽히지 않고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6.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미신에 빠져서 신성한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 너의 정신이 참으로 허황되도다."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나는 매일 나의 주님이며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 외에 어떤 신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내가 내리는 명령은 신성하며, 너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나는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7. 총독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너는 마땅히 우리 주 황제들을 충성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전全 아프리카가 황제들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드렸으며, 너에게도 그 의무가 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네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나로 하여금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것은 총독님의 명령을 행하는 그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2

1.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평안하게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마땅히 복종해야 할 신들을 네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원하지 않는 자들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네가 이미 신앙 있는 자이기를 바라며 로마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제단에 향을 바치기를 요구한다."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나는 태어난 이후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은 알지도, 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네가 무사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행하라."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당신의 말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시 나를 죽이실 것입니다."

3.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신성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멸망하기를! 나는 영원한 신, 영원무궁토록 계실 하나님께 제사드릴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며 두려워해야 할 신이십니다. 그분은 바다와 푸른 식물들과 건조한 대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4.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로마의 신들을 섬겨라. 결코 패함이 없는 우리 주 황제들과 나 자신도 그 신들에게 복종하느니라."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로 된 우상들로 나의 영혼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형벌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너는 구원에 합당한 일을 따르지 않고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있다.”

3

1. 그리고 아눌리누스는 인적 기록 담당관에게 말했다.

“온갖 추악함에 물든 그녀의 머리를 면도칼로 빡빡 밀어 민머리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먼저 그녀의 얼굴로 수치를 당하게 하여라.”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그 신들이 직접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내가 만약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기 당신의 법정에서 심문을 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너는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네 동료들같이 형벌을 받다가 죽기를 원하느냐?”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만일 내가 내 영혼을 멸망시키고 죽어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기를 원했다면 벌써 내 뜻을 포기하고 당신의 신들에게 절했을 것입니다.”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네가 마땅히 숭배해야 할 신들을 섬기기 거절한다면 나는 너의 목을 베라고 명령할 것이다.”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잃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너는 계속해서 그 어리석은 신념을 고집할 것이냐?”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이 여종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4

1. 아눌리누스가 말했다.
"우리가 이 불경한 여자를 더 참아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여자가 법정에서 말한 내용의 기록을 낭독하라."
재판기록이 다 읽히자 총독 아눌리누스가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읽었다.
"크리스피나는 가치 없는 미신을 고집하며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하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신과 같은 황제의 법령에 따라 참수형에 처할 것을 명령하는 바이다."
2. 크리스피나가 대답했다.
"이렇게 당신의 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자기의 목을 내밀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수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32

필레아스가 트무이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1. 필레아스가 세상의 학문으로도 큰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직접 자신에 관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순교에 대해서 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의 증언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다.[277] 그는 트무이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 "이 모든 모범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던 순교자들은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눈을 들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만 순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 죽음으로 결연히 나아갔으며 굳건히 그들의 소명을 붙

277) 필레아스가 트무이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면서 기록한 유세비우스의 서론이다.

잡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278]

3.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짊어지고 있던 순교자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과 모든 고문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견디어 냈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보초병들은 경쟁이나 하듯이 말과 행동으로 온갖 협박과 공갈을 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279]

4. 그 모든 고문을 참아내던 그들의 용기와 의연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들을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로, 어떤 이들은 회초리로, 또 어떤 이들은 채찍으로 그들을 때렸으며, 끈이나 밧줄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 그러한 고문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심각한 악의가 그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어 나무기둥에 매달고 기구를 이용해 사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 다음 고문 집행인들은 명령에 따라 그들의 온 몸을 향해 달려들어 마치 살인자들을 대하듯이 옆구리뿐 아니라 배와 허벅지와 얼굴까지 무기로 찔러댔습니다. 어떤 이는 회랑 안에서 두 손이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사지의 관절이 늘어나면서 오는 고통은 어떤 고통보

278) 참고. 빌 2:6~8.
279) 참고. 요일 4:18.

다도 극심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기둥에 놓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묶었기 때문에 묶은 밧줄은 온 몸의 무게로 인해 심하게 당겨지고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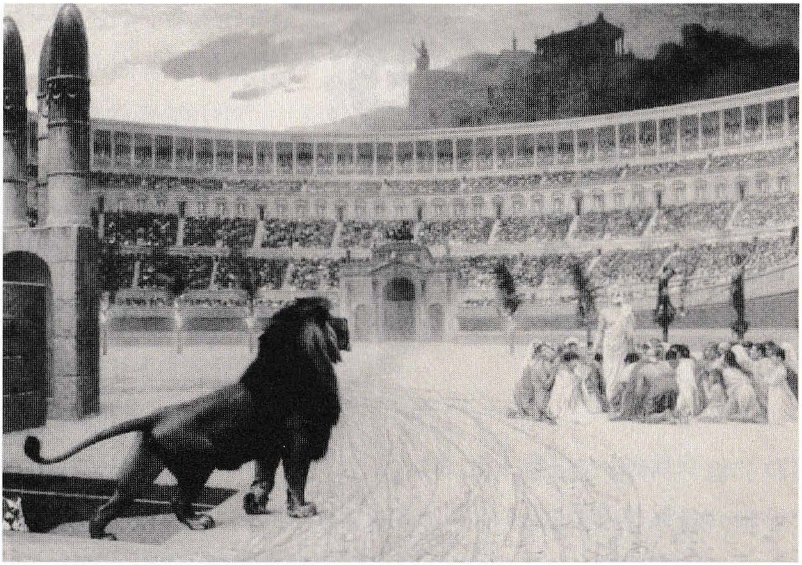
6. 그런 고문은 총독이 그들을 심문할 때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심문하러 갈 때에도 시종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지키게 했는데, 혹시 그들 중에 고문에 못 이겨서 항복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사정없이 쇠사슬을 채우라고 명령하였으며,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은 땅바닥에 던져버려 끌고가게 하였습니다.

7. 그들에게는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수들이 매질 다음으로 고안해낸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8.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문 뒤에 다시 고문대에 눕혀져 양쪽 발이 고문대 네 번째 구멍에까지 늘어나는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문대에 거꾸로 누워야 했습니다. 매질로 인해 생긴 상처들이 온 몸을 덮고 있어서 똑바로 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아닥친 고통으로 인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진 고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사형 집행 때보다 더 끔찍스런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9.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받는 중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보여준 용기는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쯤 죽어서 감옥으로 다시 갔으며 거기서 며칠 후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그러나 정성 어린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나머지 사람들은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10. 이렇게 해서 거룩하지 못한 제물에 손을 대고 저주 받을 자유를 얻어 괴



원형경기장의 순교자들

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제사드리기를 거부하고 사형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아무런 주저 없이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280],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281]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1. 이것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순교자의 글이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기 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다. 자기의 상황을 알릴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온 자기의 죽음에도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다.

280) 출 22:20.
281) 출 20:3.

33

필레아스[282]와 필로로무스의 재판기록

1

1. 단 위에 서 있는 필레아스Phileas에게 총독 쿨키아누스Culcianus가 말했다.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는가?"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나의 정신은 항상 온전하였으며 나는 온전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신들에게 제사하라."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

282) 필레아스는 304~305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매우 부유하고 화술이 뛰어나며 학식 있는 이집트 트무이스(Thmuis) 지역의 귀족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후 트무이스의 감독이 되었다. 감독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후계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구금되었다. 감옥에서 기록한 그의 감동적인 편지는 유세비우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존되었다.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고 하였기 때문입니다.[283]"

2.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태양신에게 제물을 바쳐라."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284]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염소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285]"

3. 변호인 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지금 당신은 그 헛된 제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죽을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가?"

총독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기뻐한단 말이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생각과 참된 말의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4.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283) 참고. 출 22:20.
284) 사 1:11.
285) 참고. 사 1:11~13.

"이제 제사를 드려라."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바울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모세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명령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른 장소에서 자기들의 의식을 거행하며 범죄하고 있습니다."

5.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그런 쓸데없는 말들은 그만 하고 이제 제사를 드려라."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나는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총독이 말했다.

"우리가 영혼에 손해를 입힌단 말이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그렇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6.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이 육체는 부활할 것인가?"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나는 맹세를 했다. 너도 맹세를 하라."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맹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286]' 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7.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바울은 박해자가 아니었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는 시리아인이 아니었느냐? 그가 시리아어로 강론을 하지 않았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그리스어로 강론하였고,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8. 쿨키아누스가 대답했다.

286) 참고. 약 5:12, 마 5:37.

"너는 아마도 그가 플라톤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것이다."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플라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철학자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그가 설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면 그가 한 말들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9.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이제 그만 제사를 드려라."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정말 그럴 생각인가?"

필레아스가 말했다.

"예."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너는 너의 아들들과 아내가 당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하나님에 관한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287]"

10.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이냐?"

필레아스가 자기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영원토록 계십니다. 아멘."

---

287) 참고. 신 6:5.

2

1. 그러나 필레아스가 총독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변호인들이 금지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왜 총독에게 반항하는가?"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그가 나에게 질문을 하였기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2.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너의 말을 아끼고 이제 제사를 드려라."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영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보십시오. 사형 집행이 가까웠을 때 그의 옆에는 아들들과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머리의 연로한 그는 돌이키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3.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귀 먹은 자를 듣게 만드시고,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벙어리의 입을 여셨으며,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자가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받게 하셨으며, 다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4.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모욕을 당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은 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5.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내가 너를 존중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네가 살던 도시에서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너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께 완전한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6.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네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나를 존중해주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너는 그렇게 이유 없이 죽기를 바라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죽기 원하는 것입니다."

7.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바울은 신이었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그러면 그는 누구였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너의 형제에게 너를 돌려주어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나에게 당신의 완전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8.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네가 무엇인가가 부족하여서 이런 어리석은 데 빠졌다고 생각했다면 전혀 너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어서 너뿐만 아니라 거의 이 주州 전체를 먹여 살릴 만하다. 그래서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네가 제사를 드리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 스스로를 아끼는 것입니다."

9. 변호인들이 총독에게 말했다.

"그는 이미 프론티스테리움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필레아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쿨키아누스가 말했다.

"불쌍한 네 아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우리 모든 영혼의 구원자는 내가 이렇게 매인 자가 되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영광의 기업으로 부르신 그분만이 나의 아내 또한 그 영광의 기업으로 부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10. 변호인들이 총독에게 말했다.

"필레아스의 판결을 유보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쿨키아누스가 필레아스에게 말했다.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너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겠다."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11. 변호인들과 총독을 비롯한 모든 관리들, 그리고 친척들이 그의 발을 붙잡으며 어려움을 당할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파도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소란스럽게 쏟아져나오는 모든 말을 담담히 물리쳤다.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는 거룩한 순교자들과 사도들이 자기 부모요 친척이라고 말했다.

3

1. 그곳에 로마군 기병 중대를 지휘하는 필로로무스Philoromus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친척들의 눈물에 에워싸인 필레아스가 노련한 총독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결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며 소리쳤다.

2. "왜 당신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불필요한 시험을 계속합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그 사람을 왜 신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왜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합니까? 그의 눈이 이미 당신들의 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귀가 당신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눈이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음을 당신들은 보지 못합니까?"

3. 이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필로로무스에게 향하였다. 그들은 그에게도 필레아스와 같은 형벌을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재판관이 그들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 두 사람을 참수형에 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들이 재판정을 나가 사형집행 장소로 가고 있을 때 필레아스의 변호인 중 한 사람이었던 필레아스의 형제가 소리치며 말했다.

"필레아스가 사면을 간청합니다."

쿨키아누스가 필레아스를 다시 불러 말했다.

"네가 무엇을 간청하였느냐?"

필레아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는 황제들과 총독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필레아스는 이 말을 하고 법정을 떠났다.

4. 그들은 참수형을 받을 장소에 도착하였다. 필레아스가 동쪽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소리쳐 말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의 원수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배교할 자들을 찾고 있다. 우리는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명심하여 지키라. 흠 없으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 그룹 위에 좌정하고 계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시작이며 끝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도록 하자.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 그가 이 말을 마치자 재판관의 명령을 받고 따라온 사형 집행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보시는 가운데 참수형을 집행함으로써 지칠 줄 모른 두 사람의 영혼을 해방해 주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34

40인 순교자들의 유언장[288]

세바스테에서 순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40인 순교자들의 유언장

멜레티우스와 아이티우스와 유티키우스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인 자들이 모든 도시와 지역에 있는 감독과 장로, 집사,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1

1.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경기를 끝

---

288) 320년 황제 리키니우스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아르메니아의 총독이었던 아그리콜라우스는 그의 부대에 그 칙령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천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두 번째 군단에 속한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신앙을 고수하였다. 그들을 회유하는 데 실패한 아그리콜라우스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추운 겨울날 세바스테(지금의 터키 시바스)의 성벽 바깥에 있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게 하였다. 호숫가에는 따뜻하게 목욕물이 데워지고 있었다. 결국 한 사람이 몸이 얼어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였으며 나머지는 순교하였고 그들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시작이며 끝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도록 하자.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 그가 이 말을 마치자 재판관의 명령을 받고 따라온 사형 집행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보시는 가운데 참수형을 집행함으로써 지칠 줄 모른 두 사람의 영혼을 해방해 주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34

40인 순교자들의 유언장[288]

세바스테에서 순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40인 순교자들의 유언장

멜레티우스와 아이티우스와 유티키우스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인 자들이 모든 도시와 지역에 있는 감독과 장로, 집사,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1

1.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경기를 끝

288) 320년 황제 리키니우스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아르메니아의 총독이었던 아그리콜라우스는 그의 부대에 그 칙령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천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두 번째 군단에 속한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신앙을 고수하였다. 그들을 회유하는 데 실패한 아그리콜라우스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추운 겨울날 세바스테(지금의 터키 시바스)의 성벽 바깥에 있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게 하였다. 호숫가에는 따뜻하게 목욕물이 데워지고 있었다. 결국 한 사람이 몸이 얼어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였으며 나머지는 순교하였고 그들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다.

내고 하늘에 있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갈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즉 우리의 유해가 사렘 지역의 도시 셀론에 묻힐 수 있도록 장로이며 우리의 아버지인 프로이두스와 우리의 형제들인 크리스피누스, 고르디우스, 퀴릴루스, 마르쿠스, 그리고 암모니움[289]에서 온 사프리키우스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동일한 마지막을 함께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기를 경주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지역에서 함께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우리 즉 아이티우스와 유티키우스 그리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슬픔과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는 형제 사랑의 법을 지키며 속히 우리의 뜻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순종과 자비의 큰 상급을 당신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3. 화장터에서 거두어들인 우리들의 유골은 하나도 그 장소에 남겨두지 말고 잘 관리하여 앞에서 말한 사람들에게 보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고귀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 자들이 그 노고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을 떠나지 않은 채 지킨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보고 가장 먼저 기쁨과 복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290]

4.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찮은

---

289) 현재 터키의 시바스.

290) 참고. 요 20: 11~18.

의도 때문에 의로운 일을 망치는 자이며, 자기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구원자께서 자신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 믿음으로 묶어 주신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5. 아직 나이 어린 유노이쿠스Eunoicus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따라 우리와 같은 경기의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도 우리와 같이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고 목숨을 보전하여 세상에 좀더 남아 있는다면 그에게 우리의 순교에 대하여 잊지 않을 것을 부탁하며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위대한 부활의 날에 그가 우리와 함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6. 형제를 향한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의 형제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다'[291]고 했기 때문입니다.

2

1. 그러므로 형제 크리스피누스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며 명령합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타락에 대하여 이방인이 되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흔들리기 쉬우며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292] 그것은 잠시 동안 꽃이 피지만 곧 시들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자들에게 사라지

291) 참고. 시 11:5(70인경에 의함).
292) 참고. 약 1:11.

내고 하늘에 있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갈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즉 우리의 유해가 사렘 지역의 도시 셀론에 묻힐 수 있도록 장로이며 우리의 아버지인 프로이두스와 우리의 형제들인 크리스피누스, 고르디우스, 퀴릴루스, 마르쿠스, 그리고 암모니움[289]에서 온 사프리키우스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동일한 마지막을 함께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기를 경주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지역에서 함께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우리 즉 아이티우스와 유티키우스 그리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슬픔과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는 형제 사랑의 법을 지키며 속히 우리의 뜻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순종과 자비의 큰 상급을 당신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3. 화장터에서 거두어들인 우리들의 유골은 하나도 그 장소에 남겨두지 말고 잘 관리하여 앞에서 말한 사람들에게 보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고귀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 자들이 그 노고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을 떠나지 않은 채 지킨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보고 가장 먼저 기쁨과 복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290]

4.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찮은

289) 현재 터키의 시바스.
290) 참고. 요 20: 11~18.

의도 때문에 의로운 일을 망치는 자이며, 자기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구원자께서 자신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 믿음으로 묶어 주신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5. 아직 나이 어린 유노이쿠스Eunoicus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따라 우리와 같은 경기의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도 우리와 같이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고 목숨을 보전하여 세상에 좀더 남아 있는다면 그에게 우리의 순교에 대하여 잊지 않을 것을 부탁하며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위대한 부활의 날에 그가 우리와 함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6. 형제를 향한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의 형제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다'[291]고 했기 때문입니다.

2

1. 그러므로 형제 크리스피누스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며 명령합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타락에 대하여 이방인이 되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흔들리기 쉬우며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292] 그것은 잠시 동안 꽃이 피지만 곧 시들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자들에게 사라지

291) 참고. 시 11:5(70인경에 의함).
292) 참고. 약 1:11.

지 않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2. 지금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적당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위하여 한 시도 지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새로운 생활을 실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생활의 변화는 미리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시간은 당신에게 유용할 것이며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지난 죄악들을 사함 받고 죄의 증서를 도말하기 위함입니다.[293] '그 죄의 증서 안에서 너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하여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거룩한 말씀이 이미 오래 전부터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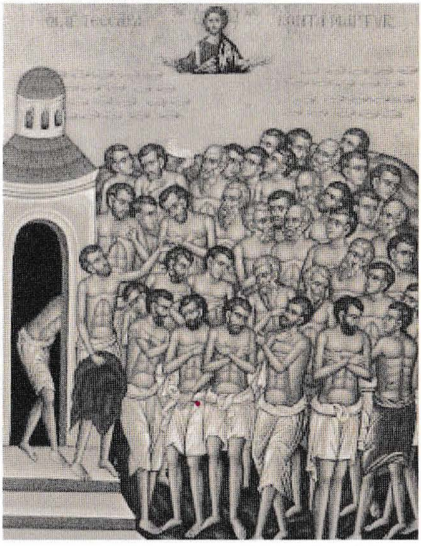
4.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십시오. 사랑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의를 이룰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295]를 가진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주 하나님께서 저들이 형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296] 본성적으로 그들은 함께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향한 고귀한 실천을 통해 하나가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

293) 참고. 골 2:14.
294) 참고. 고전 7:29.
295) 교회를 말함.
296) 참고. 마 12:50.

3

1. 장로 필립푸스와 프로클리아누스, 디오게네스와 거룩한 교회에게 우리 모두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퓨델라 지역에 있는 프로클리아누스와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 가속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막시무스와 그 교회, 마그누스와 그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돔누스와 그 가속, 우리의 아버지인 일리아스와 발레리우스와 그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나 멜레티우스는 나의 친척 루타니우스와 크리스푸스와 고르디우스와 그 가속, 엘피디우스와 그 가속, 힙에레키우스와 그 가속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 우리는 또한 사렘 지역에 있는 자들과 장로와 그 가속, 집사들과 그 가속, 막시무스와 그 가속, 헤스키우스와 그 가속, 큐리아쿠스와 그 가속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크사두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더불어 나 아이티우스는 나의 친척 마르쿠스와 아퀼리나, 장로 클라우디우스와 나의 형제들인 마르쿠스와 크리폰, 고르디우스와 크리스푸스 그리고 나의 누이들과 나의 아내 돔나와 나의 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3. 또한 크시마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나의 어머니 율리아와 형제들인 퀴릴루스와 루푸스, 리그루스와 퀴릴라 그리고 약혼녀 바실레이아와 집사들 클라우디우스, 루피누스, 프로클론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암모니움에서 온 사프리키우스와 게네시우스와 수산나와 그 가속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세바스테의 40인 순교자

4.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主인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십 명의 형제들이자 함께 매인 자 된 우리는 멜레티우스, 아이티우스, 유티키오스, 퀴리온, 칸디두스, 앙구스, 가이우스, 쿠디온, 헤라클레이오스, 요안네스, 테오필루스, 시시니오스, 스마륵데스, 필로크티모스, 고르고니오스, 퀴릴루스, 세베리아누스, 테오둘로스, 니콜라우스, 플라비우스, 크산티오스, 발렌티우스, 헤쉬키오스, 도메티아누스, 돔누스, 헬리아누스, 레온티우스, 유노이코스, 발레리우스, 아카키우스, 알렉산드로스, 비비아누스, 프리스쿠스, 사케르도누스, 엑디키오스, 아타나시우스, 뤼시마쿠스, 클라우디우스, 일리아스 그리고 멜리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인 자 된 사십 명의 우리는 우리 중 한 사람인 멜레티우스가 직접 기록한 이 편지에 서명을 하였으며,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선과 그분의 나라에 도달하기를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아멘.

35

사바스의 순교

고티아Gothia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갑바도기아 지역의 교회와 모든 지역의 거룩한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

1. 복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297]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바스가 속한 고트족 가운데서도 증명되었습니다.
2. 고트족인 사바스는 고티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출생하여 회심한 그는 마치 세상을 비추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297) 참고. 행 10:35.

는 거룩한 자들을 닮아가려고 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의를 온전히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어릴 때부터 그가 열심을 쏟은 것은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완전한 덕이라 여겼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298] 앞서 갔습니다.

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299]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사모한,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앞서 갔습니다. 그는 순전히 대적하는 자 그리고 악한 생활을 하는 자들 위에 군림하는 자[300]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그가 주님 안에서 생을 마감한 후 우리는 그의 놀라운 행적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1. 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에는 어눌하였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301]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평화롭게 진리를 말했으며 우상 숭배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낮은 자들에게 적절히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사람이어서 말에는 성급하지 않았으나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신속했습니다.

---

298) 참고. 엡 4:13.
299) 참고. 롬 8:28.
300) 사탄을 의미한다.
301) 참고. 고후 11:6.

2. 그는 늘 교회 안에서 찬양을 했으며 그것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돈이나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모든 면에서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며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밤낮 기도에 전념하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복종하였습니다. 늘 유익한 일에 힘썼으며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



갑바도기아 지역의 예배처 흔적

하여 역사하는, 흠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며[302] 어디서나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3

1.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믿음 안에서 보여준 경건한 행적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티아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바스가 사는 마을의 어떤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로 드린 고기 대신에 제물이 아닌 고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박해자들의 눈도 피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을 흠없이 지켰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 그것을 안 사바스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가운데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 속임수를 생각해냈던 사람들은 그를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자, 그들은 그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3.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트족의 관습 때문에 다시 한 번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마을의 어떤 이방인들이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박해자인 왕[303]의 이름으로 '마을에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맹세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4. 다시 사바스는 공회 한가운데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 아무도 그런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302) 참고. 갈 5:6.

303) 서기 370년경 고트족의 왕이었던 아타나릭(Athanaric)은 고트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였다.

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는 단 한 사람 외에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5. 이 사실을 안 불의한 왕은 사바스를 소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왕 앞에 불려오자 왕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걸치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불의한 왕은 그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4

1. 그 이후에 고티아의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절의 성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사바스는 장로가[304] 거주하고 있는 고트족의 다른 도시로 가서 장로와 함께 부활절 축제를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사바스가 길을 가고 있을 때 놀라울 정도로 크고 광채가 나는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바스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돌이켜 장로 산살라Sansala에게 가라." 사바스가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산살라는 고향에 없습니다."

2. 장로 산살라는 박해를 피하여 로마니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거룩한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바스는 그가 돌아온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장로가 있는 도시로 가는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304) 사바스는 장로인 산살라의 성경 낭독자였다.



갑바도기아 지역의 모습

3. 그러자 화창한 그날 그 시각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눈이 바닥에 쌓여 있는 장면이 사바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가 계속해서 갈 수 없도록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4. 그러자 사바스는 길을 돌이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서 산살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살라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5. 그들은 함께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셋째 날 밤에 로테스테우스 왕의 아들인 아타리두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그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아타리두스는 집에서 자고 있는 장로 산살라를 발견하고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바스에게도

덮쳐서 몸을 사슬로 묶었습니다.

6. 그리고는 마차에 태웠습니다. 사바스는 태어날 때처럼 벗은 채였습니다. 그들은 사바스를 끌고 얼마 전에 불이 났던 숲을 통과해 갔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채찍으로 난폭하게 때리면서 하나님의 종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5

1. 그러나 원수들의 난폭한 행동은 의인의 인내와 믿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사바스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옷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게 한 채 불타서 거칠고 날카로운 것들로 가득한 땅으로 채찍질하며 끌고 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의 발이 상했는지 혹은 나의 몸 어딘가에 당신들이 가했던 구타와 채찍의 상처가 있는지 찾아보시오."

2. 그들은 그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정없이 가혹하게 다룬 그의 몸에서 하나의 상처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마차에서 굴대를 빼내어 그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늘여 굴대의 끝을 잡게 하였습니다. 또한 발도 잡아당겨 다른 굴대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굴대 위로 그를 쓰러뜨려 땅바닥에 거꾸로 눕힌 뒤 밤이 깊을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사정없이 괴롭혔습니다.

3.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밤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풀려난 사바스는 도망하지 않고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녀가 식탁 차리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날이 밝자 이 사실을 안 불의한 아타리두스는 그를 그 집의 기둥에 묶어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6

1. 얼마 지나지 않아 아타리두스가 보낸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바칠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장로와 사바스에게 말했습니다.
   "아타리두스께서 당신들이 이것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2.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아타리두스에게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원하는 대로 처형하라고 권하시오."
3. 사바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군주이신 아타리두스께서 보내셨다."
   사바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 명의 군주일 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아타리두스는 사악하며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타리두스와 같이 부정하며 타락한 멸망의 음식입니다."
4. 사바스가 이렇게 말하자 아타리두스의 노예 중 한 명이 격분하여 창을 꺼내 사바스를 향해 던졌습니다. 창의 날카로운 끝이 사바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사바스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5.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우상의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노고를 헛되게 만든 사바스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창으로 나를 맞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나는 그런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당신이 털로 된 실오라기를 나에게 던진 것같이 느낄 뿐입니다."
6. 곧 그의 말이 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창에 찔린 상처로 인

해 소리를 지르거나 신음도 내지 않았으며 그의 몸 어디에서도 부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

1. 이 모든 것을 안 아타리두스는 그를 사형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시종들은 묶여 있던 장로 산살라를 풀어주고, 사바스를 잡아 익사시키려고 무사이온Musaion이라고 불리는 강가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2. 이때 사바스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산살라 장로는 나와 같이 죽지 않음으로 범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바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간섭할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
3.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사바스는 성령의 기쁨에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주님이시여, 찬송을 받으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타리두스는 자기 자신을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그는 길을 가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의 고통이 장차 거룩한 자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305]
4. 강둑에 도착했을 때 그를 사로잡고 있던 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자! 죄 없는 이 사람을 풀어줍시다. 아타리두스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305) 참고. 롬 8:18.

그러나 사바스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며 당신들에게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간 자들이 강 건너편에서 나를 영접하기 위해 영광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5. 그러자 그들은 사바스를 강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사바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목에 나무 토막을 매달아 강물 속으로 던져 그는 곧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죽음을 맞았고, 구원의 상징인 나무와 물[306]로 인하여 자신을 흠없이 지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삼십팔 세였습니다.

6. 그는 부활절이 지난 다섯 번째 안식일 4월 12일에 순교하였습니다. 발렌티아누스Valentianus와 발렌스Valens가 황제였으며 플라비우스 모데스투스 Flavius Modestus와 플라비우스 아린테우스Flavius Arintheus가 집정관이었던 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307]

8

1.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를 물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도 없이 노천에 버려둔 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개도, 새도, 그리고 어떤 짐승도 그의 시신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형제들의 손으로 거두어져 안치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유니우스 소라누스Iunius Soranus라는 스키티아의 유명한 귀족이 사바스의 유골을 믿을만한 사람들을 통해 스키티아에서 로마니아로 보냈습니다.

2. 사바스는 자신의 고향에 귀중한 선물과 영광스러운 믿음의 열매를 선물

---

306) 나무는 십자가를,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
307) 서기 372년.

하였으며, 여러분의 고향인 갑바도기아에는 자신의 유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낸 것입니다. 이 일은 장로의 뜻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님께서 그를 기다리며 염려하는 형제들을 위해 은총으로 섭리하신 결과였습니다.[308]

3. 경기를 마친 순교자가 면류관을 얻은 그날을 기념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그쪽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는 사도적인 모든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며, 자기의 종들을 선택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4.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박해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자신의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모두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와 성령께 영광과 영예와 권세와 위대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308) 이 편지는 고티아 교회가 사바스의 유골을 갑바도기아 교회로 보내면서 동봉한 것이다.

순교 연표 ▼	
1 심포로사	(120년 추정)
2 폴리캅	(155/156년)
3 카르푸스, 파필루스, 아가토니케	(155/156년)
4 프톨레마이우스와 루키우스	(165년)
5 저스틴과 그 동료들	(165년)
6 리옹 사람들	(177년경)
7 스킬리 순교자들	(180년)
8 아폴로니우스	(185년)
9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	(202/203년)
10 포타미아이나와 바실리데스	(208년)
11 메트라와 아폴로니아	(249~251년 추정)
12 피오니우스	(251년)
13 아카키우스	(251년)
14 막시무스	(251년)
15 키프리안	(258년)
16 코논	(249~251년)
17 마리아누스와 야코부스	(259년)
18 몬타누스와 루키우스	(259년)